2018 작가미술장터 도록·비평집



2018 작가미술장터 도록·비평집

차례

4 **예술하라–함께하는 예술보고서**
장터, 주체간 상호교류를 위한 장 / 고충환

22 **2018 연희동 아트페어 : Becoming a Collector**
연희동 주택가에 선 미술 직거래 장터 / 기혜경

40 **더 스크랩 2018**
유쾌하고, 가볍고, 세련된 감각의 공유 장터 / 김미진

58 **HAO : OK션[옥션] 2018**
제주 자양 삼계탕과 사일런스 옥션의 매력 / 김은지

76 **미술 퍼레이드 新 개미장터**
작품 선정의 안목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장터 / 박영택

94 **블라인드 포스터전 2018 & 서대문여관아트페어**
뜨거운 열기를 함축한 스튜디오 연출과 새로운 작품 판매 가능성을 보여주다 / 박영택

112 **집기류(輯技類)**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 백기영

130 **ART369**
미술 해방촌의 새로운 모색 / 백기영

148 **2018년 아트레지던시 미술장터 ‘Art Market Stamp–tour in Jeonju’**
추억을 큐레이팅 하다 / 변종필

166 **유니온아트페어 2018 ‘Let’s Make Together’**
예술가의 연대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연대를 향해 / 심소미

184 **2018 그림도시**
싱글채널 무빙 이미지를 위한 시장 / 양지윤

202 **2018 아뜨마트**
고도성장의 도시에서 예술장터라는 실험 / 양지윤

220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 부산**
부산으로 부팅하시겠습니까? / 윤율리

238 **퍼폼 2018**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은 없다 / 이명옥

256 **Art at Home II ‘예술이 가득한집’**
컨설팅을 통해 일상으로 들어온 미술품 / 정무정

274 **제4의 예술장터**
블록체인과 미술이 빚은 낯선 풍경 / 정무정

292 **파트론 비치 아트페어**
해변에서 여는 아트페어 / 최형순

310 2018 작가미술장터를 마치며 / 윤율리

314 사업개요

316 작가색인

2018.8.30.—2018.9.1.
참여연대 통인갤러리카페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018.8.30.—2018.9.2.
팔레드서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30

2018.9.6.—2018.9.10.
충주문화회관 외 2곳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로 128

예술하라— 함께하는 예술보고서



(주)미하라
website blog.naver.com/artmehara
facebook /artmehara
instagram @artmehara





예술하라ㅡ함께하는 예술보고서: 장터, 주체간 상호교류를 위한 장

고충환(미술평론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작가미술장터는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작가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예술가와 비예술가, 전문가와 비전문가간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활 속의 미술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직거래 장터다. 갤러리 중심의 1차시장과 옥션 및 아트페어 중심의 2차시장의 틈새를 노린 일종의 틈새시장이다. 작가 입장에선 중간 마진 없이 작품을 팔 수 있고, 관객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상방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소품 위주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미술에 문외한인 일반 관객들을 미술에 입문시키는 한편, 잠자는 취미를 일깨워 문화적 삶을 향유하게 만드는 계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작가미술장터로 선정된 예술하라–함께하는 예술보고서는 미하라(대표 홍성미) 기획으로 서울과 충주 두 곳에서 연이어 열렸다. 일정상 서울에서 먼저 열렸지만 사실은 충주가 메인이다. 서울과 충주 전시가 구성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같은 전시로 보면 되겠다. 전시를 기획한 미하라는 비록 작년에 처음 생긴 신생단체지만, 사실은 그동안 오랜 기획력을 바탕으로 이미 상당한 작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서 신뢰가 가는 편이다. 이번 전시에도 주로 그 작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에 추천을 받은 일부 작가들을 포함해 12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서울 전시는 갤러리 팔레드서울과 통인갤러리카페에서, 연이은 충주 전시는 충주문화회관과 관아갤러리 그리고 카페인사동에서 열렸다. 그중 통인갤러리카페와 카페인사동은 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 전문적인 전시공간이라기보다는 카페갤러리에 가깝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작가들과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터인 만큼 본격적인 전시를 위한 공간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소소한 참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이 둘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식의 개념이 적용된 것 같다. 장터의 성격에도 걸맞는 것 같고, 갤러리(전시를 위한 공간)와 카페(소통을 위한 장)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경우로도 보인다.

이번 미술장터는 다른 미술장터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보인다.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미술장터라고 하면 청년 아니면 신진작가 위주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미술장터 자체가 태생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견작가들이 소외되기 마련인데, 가뜩이나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중견작가들이 미술장터에서마저 상실감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미술장터는 이런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전시에서도 확인된 것이지만 실제로도 다들 알만한 작가들이었고, 현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들이었다. 이처럼 알만한 작가들임에도 겉보기와는 다르게 적어도 시장의 측면에서 보자면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작가들도 적지 않다. 하나 같이 뚜렷한 자기 세계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작품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번 미술장터는 바로 이런, 고고하면서(?) 정작 실속은 없는 중견작가들을 시장의 문턱으로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미술장터는 의욕은 컸고, 디테일이 섬세하지 못했다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의욕이 문제지, 디테일은 고쳐가며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하튼 진행과정에서 세심한 부분을 챙기는 배려가 뒷받침되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작가와 평론가를 연결시키는 피칭 프로그램을 위해 알만한 소장평론가 대여섯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다른 장터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 장터에 관한한 초유의 일일 것이다. 작가 6명과 평론가 6명이 작업에 대해 토론하고 피드백하는 자리였다. 구조로 보면 일 대 일 매칭방식인데도, 정작 실제로는 사실상 집단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집중력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았다. 충주 전시에선 피칭 프로그램 대신 '좋은 콜렉터, 콜렉션이란?' 주제로 김종근 평론가의 특강이 있었고,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피칭 프로그램에 이어 식전 행사로 퍼포먼스가 열렸는데 서울 전시에서는 한국 아방가르드미술의 전설인 성능경 작가가, 충주 전시에서는 마문호 작가가 각각 '예술하라'는 주제에 맞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특히 서울 전시의 경우 사실상 퍼포먼스와 미니경매, 리셉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원래는 순차적으로 계획한 것이지만 퍼포먼스가 길어지면서 그렇게 되었다. 왁자하고 약간은 혼란스러운 것이 장터의 분위기를 업시켜준 면이 없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좀 정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퍼포머와 시간 안배에 대한 사전조율이 있었겠지만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장르라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경매도 좀 그랬다. 다행스럽게도 경매에 나온 작품 모두 낙찰이 돼 제 주인을 찾아갔지만 지켜보는 내내 조마조마했다. 어쩌면 본격적인 경매라기보다는 경매제도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혹 작품이 주인을 못만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었다. 작가에 대한 배려 때문에라도 예상되는 응찰자와 최소한의 사전조율이 선행되어졌어야 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피칭 프로그램과 퍼포먼스, 미니경매와 리셉션이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고, 무엇보다도 이를 계기로 평소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동료 작가들이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모처럼의 자리였고, 그중에는 동료 작가를 격려해 주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준 작가들도 적지 않았다. 주체간 상호교류야말로 눈에 보이는 성과(이를테면 작품 판매실적과 같은)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작가와 관객, 작가와 평론가, 작가와 작가가 상호교류하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충주 그리고 청주의 지역화단을 활성화시키는(충주 전시에는 서울을 비롯한 충주와 청주 지역작가들이 참여했다.) 계기의 장이 되는 것이야말로 장터의 존재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충주 전시에는 시장이 직접 전시장을 찾기도 했는데 장터로선 이례적인 일이다. 장터가 지역화단을 넘어 공직자와 예술계를 매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도적 주체로부터 점차 개별주체 중심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다. 제도의 존재의미가 여전히 결정적이지만, 개인이 주체로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매개시켜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며 의미·기능이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직접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는 바로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형식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중견작가 중심의 이번 전시는 여타의 장터와는 변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써 작가미술장터가 자기를 전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 차별화된 기획

운영: 장터에 걸맞는 공간 구성

홍보: 적극 홍보 필요

고충환은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영남대학교 회화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키치의 현상학 이후, 신세대미술의 키치 읽기」로 등단했으며, 2001년 성곡미술대상과 2006년 월간미술대상 학술부문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그동안 《재현의 재현》(성곡미술관, 2001), 《비평의 쟁점》(포스코미술관, 2005), 《조각의 허물 혹은 껍질》(모란미술관, 2008), 《드로잉조각, 공중누각》(소마미술관, 2009)을 기획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랜덤하우스코리아, 2006)과 공저로 『비평으로 본 한국미술』(대원사, 2001)이 있다. 현재 한국미술평론가협회와 국제미술평론가협회 회원으로 있다.



Alternative plant–love, 2015, Wire Drawing, D. printing, 100×70.5cm

김유정 *Kim Yujung*

학력
단국대학교 서양화 박사졸업

주요전시
2018 식물에도 세력이 있다, 소피스갤러리, 서울
2017 숨의 광경, 갤러리 밈, 서울
2016 조각난 숲,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5 생존조건, 갤러리 도스, 서울
2014 전도된 풍경, 선광미술관, 인천
2013 침묵의 정원,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수상
2018 대상, 남도문화재단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
2013 겸재정선 내일의 작가상, 겸재정선미술관

레지던시
2015–2017 인천아트플랫폼 6, 7기
2012–2014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 3기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소피스 갤러리,
OCI미술관, 이랜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동구청,
유진갤러리, 제일화재,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정 갤러리 외

연락처
yujung0425@hanmail.net



그러면 그렇지, 2009, 질구이 삼벌, 68×49×32cm

김주호 *Kim Jooho*

학력
서울대학교 조소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7 70청춘전, 나무화랑, 서울
2017 햇불에서 촛불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6 사랑 만들기, 강화미술관, 강화
2016 강화, 밝음과 그늘, 강화미술관, 강화
2016 아름다운 절 미황사, 자하루미술관, 해남
2015 돋보인다, 진천 종박물관, 진천
2015 토요일, 금산갤러리, 서울
2015 풍류남도 만화방창, 행촌미술관, 해남
2014 인간, 그리고 실존, 김종영미술관, 서울
2014 코리안 뷰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3 Steel Drawing, 갤러리 가회동60, 서울
2013 2013 플랫폼 액세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3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작품소장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김포국제조각공원,
대전시립미술관, 모란미술관, 소마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인천아트플랫폼, 직지문화공원,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연락처
jooho7@hanmail.net



민들레–바람을 타고2, 2017, 혼합재료, 30.6×20.6×30.3cm



The Lovers, 2015, Oil on Canvas, 53×72.8cm

노동식 *Roe Dong Sik*

학력
경원대학교 환경조각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산수유람,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8 봄바람 타고 훨~훨~, 갤러리오, 서울
2018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디뮤지엄, 서울
2016 경기잡가(京畿雜歌),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5 꿈을 싣고 날아라!, 포스코갤러리, 포항
2015 2015 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공허한 제국,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기념–헬로우 아트,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5 심리적 오브제, 우양미술관, 경주

수상
2002 입선, 중앙미술대전
2001 특선, 단원미술대전
2001 특선, 중앙미술대전

레지던시
2015 김환기 아트센터 레지던시

작품소장
가평 평화월드센터, 김해 봉하마을, 디자인하우스, 세종시 수변공원, 우리은행 본점, 코오롱 본사, 포천 아트밸리, KT 본사, KT 서초지점

연락처
won-soong@hanmail.net

문호 *Moon Ho*

학력
중앙대학교 서양화 학·석사 졸업
로체스터 공과대학교 파인아트 스튜디오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Sweet Peace, 인영갤러리, 서울
2018 제1회 뭄바이 비엔날레, Sir J.J. School of Art, 뭄바이
2017 The Moment, 갤러리 탐 압구정, 서울
2017 제15회 겸재진경미술대전,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16 The Scene of Life, 가나어린이미술관, 양주
2016 예감–여섯 개의 시선, 선화랑, 서울
2015 The Moment, 갤러리 포월스, 서울
2013 The Moment, 살롱 드 에이치, 서울
2008 An Isolated House,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2007 四界山水, 학고재아트센터, 서울

레지던시
2015–2017 가나아뜰리에

작품소장
겸재정선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호서대학교

연락처
moonoya@hanmail.net
www.moonho.kr



나 어때, 2012, 종이, 55×40cm

선무 *Sun Mu*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두심장, 말카스텐 팍하우스, 뒤셀도르프
2018 경기천년 프로젝트, 수원상상캠퍼스, 수원
2017 더불어평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7 횃불에서 촛불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7 서유기, 문래예술공장, 서울
2016 그것이 행복이라면,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15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5 북한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禁止, ngbk, 베를린
2014 홍.백.남., 트렁크갤러리, 서울
2014 紅.白.藍, 원전미술관, 베이징
2013 머하니, 갤러리 담, 서울
2012 나는 누구인가, 갤러리 이듬, 부산
2010 불러오다, 갤러리 정,서울
2010 갤러리 이듬, 부산
2009 Korea Now, 상상마당갤러리, 서울

작품소장
경기도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연락처
sunmuart@gmail.com



딱지, 1990, Acrylic on Canvas, 70×70cm

손기환 *Son Kihwan*

학력
홍익대학교 서양화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경기아카이브, 지금 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6 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5 트라우마 기억,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2012 SeMA 콜렉션으로 다시보는 1970–80년 한국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0 Window–New turkey Edition, 이스탄불시립 탁심미술관, 이스탄불
2005 The Battle of Vision, 다름슈타트
2003 조국의 산하, 대안공간 풀, 서울
1996 뷰파인더 캔바스, 서남미술관, 서울
1995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오월 광주로 가는 길,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1994 민중미술 15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9 88년 문제작가전, 서울미술관, 서울
1985 한국미술 20대 힘, 아랍미술관, 서울
1981–3 제9, 10회 앙데뺑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대영박물관, 상명대학교 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진천 목판화미술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연락처
khson0603@naver.com



Forest, 2014, 디지털프린트, 125×84cm



Embed–Landscape3, 2018, 변형캔버스 위에 폴리퍼티, 아크릴, 오일, 35×41cm

신재은 *Shin Jae Eun*

학력
서울대학교 조소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안젤라연구소, SeMA창고, 서울
2018 GAIA–prologue,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8 가이아, 토끼가 뛰는 언덕,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인천
2018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8 청년예술가S 실연회, 부천아트벙커 B39, 부천
2017 도시 농업: 네 잎 클로버,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7 쉐어 프로젝트: 실험실,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7 부평 영아티스트 3기 선정작가전, 부평아트센터, 부평
2017 1인 가구 사진관 738, 서울시청 하늘광장 갤러리, 서울
2017 3회 포트폴리오 박람회 선정작가전, 서울예술재단, 서울
2017 MAKE ART TOP10, Make Art Space, 파주
2014 호황 프로젝트, 스페이스 눈, 수원

레지던시
2018 인천아트플랫폼
2017 하슬라 국제레지던시
2016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연락처
whrhfm@naver.com

위영일 *Wee Young Il*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 학·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회화 박사수료

주요전시
2018 종근당예술지상 수상전, 세종미술관 1관, 서울
2017 INNER VIEW, 경기문화재단 로비갤러리, 수원
2017 Play Art,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6 數를 읽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6 What is Art?! 현대미술 쉽게 보기, 고양 아람미술관, 고양
2015 Anonymous–Colors,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5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2012 이미지의 역습,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2010 Korea Tomorrow, SETEC, 서울
2010 월간 퍼블릭 아트–New Hero Fly in Heyri, 갤러리 한길, 파주

레지던시
2015–2016 인천아트플랫폼
2014 금천예술공장
2013 경기창작센터
2011 난지창작스튜디오
2009 국립창동스튜디오

작품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성남아트큐브미술관

연락처
weeyoungil.wixsite.com/weeyoungil
wee012@hanmail.net



반영 ***Reflection***, 2016, Pencil on Paper, 30×23.5cm

이샛별 *Li Setbyul*

학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9 녹색에코 Green echo,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8 아직 살아있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8 경기 아카이–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2017 녹색에코 Green Echo,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4 인터페이스 풍경 Interface Scenery, 자하미술관, 서울
2014 오키나와, 타이완, 제주 사이; 제주의 바다는 갑오년이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3 스토리텔링, 다섯 편의 이야기,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1 다중감각, 사비나미술관, 서울
2009 악동들 지금,여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6 아시아의 지금, 대안공간 루프/쌈지스페이스/갤러리 숲/아라리오 베이징, 서울/북경

레지던시
2018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2기
2017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4기
2010 갤러리 포스 베이징 레지던시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연락처
www.lisetbyul.com
lisetbyul@gmail.com



이상적인 봄 풍경 ***Ideal Spring Landscape***, 2017, Egg tempera on Epoxy molding compound, 8.5×11.7cm

정아롱 *Chung Arong*

주요전시
2017 2017 플랫폼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2017 A Montage of Identities, Gallery MC, 뉴욕
2017 단편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Cre8tives, OCI미술관, 서울
2016 바람이 짓는 집, 신세계갤러리, 인천
2016 OCI미술관 오픈스튜디오,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인천
2015 말하지 않고 말하는 법, 우민아트센터, 청주
2015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2015 블랙홀썬,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수상
2016 대상, ETRO 미술상
2013 금호미술관 영아티스트

레지던시
2019 영은미술관 11기
2017 이천아트플랫폼 8기
2016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6기
2015 Can Serrat Art Residency, Barcelona, Spain
2014–2015 화이트블럭 아트센터 스튜디오 2기
2013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Arts, Montecalstello, Umbria, Italy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금호미술관,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연락처
arongchung@naver.com



Ophelia(Flash–S–1210120), 2012, Mixed media on Iron plate, Panel, 25.8×25.8×7cm

조현익 *Cho Hyunik*

학력
세종대학교 회화 학·석사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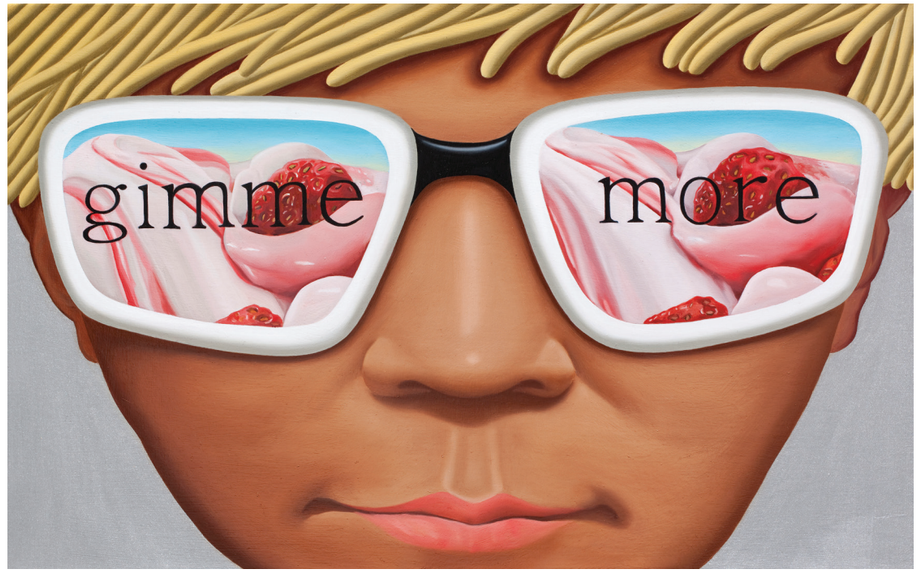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8 육아일기,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8 변모,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
2018 가족사진, 리각미술관, 천안
2018 세계 한민족 미술대축제–우리 집은 어디인가?,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8 밤을 잊은 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수상
2009 본선작가상,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
2005 우수상, 경향미술대전
2005 대상, 삼청미술제
2004 입선, 중앙미술대전

레지던시
2018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7–2018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2015–2017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012 국제유화예술창작기지
2011–2012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자하미술관, 플라워즈 갤러리(런던), 레드게이트 갤러리(베이징)

연락처
www.chohyunik.com
artisthi@hanmail.net



pop kids #46, 2013, Oil on Canvas. 33.3×53cm

최윤정 *Choi Yunjung*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

주요전시
2018 There Being, 갤러리 반디트라소, 서울
2018 코리안 팝아트, 하남문화재단, 하남
2017 미디어 엑스터시,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2017 Do The Right Thing, 글렌데일도서관, 글렌데일
2016 오, 독불장군, 우종미술관, 보성
2015 헬로우! 팝,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4 Into The Pinhole, A.Style, 홍콩
2014 Live and Let Live, 갤러리 클레이, 시드니
2013 Desire, 가일미술관, 가평
2012 Real/Unreal, 위드스페이스 갤러리, 베이징
2012 이것이 대중미술이다,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1 양평군립미술관 개관기획전–마법의 나라, 양평, 양평군립미술관
2010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Ⅲ–Pop Art, 김해 문화의 전당, 김해
2010 최윤정 개인전, 위드스페이스 갤러리, 베이징

레지던시
2011 리인위미 창작스튜디오 베이징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양평군립미술관, 오산미술관

연락처
www.choiyunjung.kr
choiyunjung@hotmail.com

2018.10.20.—10.28.
카페 보스토크 ×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5길 98

2018
연희동 아트페어

: Becoming a Collector



무소속연구소
website yeonhuiartfair.kr
facebook /becomingcollector
instagram @becomingcollector





연희동 아트페어: 연희동 주택가에 선 미술 직거래 장터

기혜경(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연희동 아트페어는 연희동 일대에 터잡은 작가들을 주축으로 그들의 아지트이기도 한 카페 보스토크를 이용해 소소하게 벌이는 작은 규모의 작가 직거래 장터다.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은 'Becoming a Collector'를 내걸었다. 하지만 작년의 연희동 아트페어가 연희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의 29만원 재산설을 바탕으로 작가들의 재기발랄함을 펼쳐보인 난장이었다면, 올해는 좀 더 작가 직거래 장터의 취지를 살려 제목인 'Becoming a Collector'에 집중한 느낌이다.

연희동 아트페어는 '현대미술'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미술작품 콜렉터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사회적·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인정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역시 모색하게 마련인 터라, 이러한 부담과 장벽을 낮추고 극복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아트페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연희동 아트페어는 공예특별전을 마련하고 있다. 공예품은 그 특성상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으면서도 실용성을 겸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적 향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일상용품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공예의 특성은 일반인들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소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 특히 이번 전시에 출품된 공예품들은 여성용 악세서리, 모자, 목도리, 가방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그리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면서 디자인과 형태적인 면에서 독특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함으로써 매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예특별전 섹션의 디스플레이 방식에 있어서도 유니크한 빈티지숍을 방문한 듯한 느낌이 들도록 꾸밈으로써 공예전시와 아트페어의 특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일반인들이 편하게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공예특별전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거리와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였다면, 전시장 전체의 섹션 구분 역시 주택가에 마련된 아트페어로서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전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카페를 한시적으로 아트페어 공간으로 변형하고 있는 연희동 아트페어는 카페 입구에 일시적 가판대를 설치함으로써 이곳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로 변화되었음을 멀리서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가판대를 이용하여 입구로부터 옷이라든가 가벼운 은 세공품, 가죽제품을 배치함으로써 아트페어를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물론 아트페어의 존재를 모르고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기 쉬운 것들을 밖에 배치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록 작가들의 메인 작업으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은 사람들을 아트페어 공간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공간 안배라 할 수 있다. 한편, 워낙 협소한 카페 공간을 이용한 탓에 많은 작업을 놓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소품 위주로 진열한 점 또한 공간이 갖는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면서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연희동 지역에 터잡은 작가들간의 연대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및 유대 강화, 그리고 아트페어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포장마차로 이어지는데, 이는 연희동 아트페어 나름의 특색있는 기획과 운영이라 생각한다.

작가들이 주축이 된 직거래 장터로서의 아트페어가 일반인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그것을 보게하고 콜렉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연희동 아트페어의 경우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작가들이 주축이 된 직거래 장터는 단순히 작품을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작가의 프로모션에도 목적이 있다. 일반인이 미술장터를 통해 콜렉터로 변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미술장터를 통해 작가 또한 미술계에 뿌리내릴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작가 프로모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연희동 아트페어의 경우, 구입한 작품 및 소품의 작가명 외에는 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작가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구비해 놓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작가의 CV와 더불어 작품세계 및 작품 관련 정보를 구비해 놓는다면 작가미술장터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홍보는 작년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적은 규모임에도 내실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 한가운데에 위치한 카페를 이용한다는 연희동 아트페어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려동물과의 연희동 산책을 제안하고 반려동물의 산책을 위한 배변봉투나 간식을 준비한 점은 상당히 재미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보인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의 몸집이 상대적으로 크고, 짖는 소리 또한 커서 반려동물을 무서워하는 입장객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더불어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깃발을 휘날리는 스탠딩 배너를 이용해 행사 장소가 눈에 들어오게 한 점 등은 소소하지만 홍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카페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카페 이용객으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작업에 붉은 점을 붙이게 함으로써, 작가미술장터가 열리는 것을 모르고 온 이용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작품을 눈여겨 보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음은 물론 획득한 붉은 점에 따라 카페 음료 판매금액의 10%까지 작가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들은 비록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소한 후원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이며, 비록 작품이 팔리지 않더라도 많은 투표를 받은 작가들을 고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점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SNS 홍보의 경우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 쪽으로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미지를 다루는 젊은 세대들의 특성이기도 하나 더 나아가 비슷한 유형의 집단만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홍보는 이미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다시 각인시키는 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새롭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스타그램 세대보다는 페이스북 세대가 그나마 구매력을 갖춘 세대임을 감안한다면, 홍보채널의 편중은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연희동 아트페어는 작가들의 작은 직거래 장터이지만, 다른 장터와 달리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카페를 근간으로 함으로써 그 환경적 요인을 십분 활용하며 독자적 색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운영: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아무나 갖고 있지는 않을 법한 독특한 악세서리를 만날 수 있는 곳

기획: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공간 앞 작가 플리마켓 안으로 들어가면서 작가들의 굿즈, 그리고 작품을 배치한 것은 좋았음)

홍보: 이젠 아트마켓도 반려동물 마케팅 (지역주민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플리마켓, 반려동물과 함께 동네 산책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돋보임)

기혜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거쳐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한국근현대미술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시 《20세기 중남미 미술》(2008), 《신호탄》(2009), 《메이드 인 팝랜드: 한중일 삼국의 팝아트》 (2010), 《올해의 작가상 2012》(2012)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을 총괄하고 있다. 박사논문인 「대중매체의 확산과 한국현대미술: 1980–1997」과 저서 『이미지 시대의 매체 vs 미디어』(현실문화, 2018) 등에서 살필 수 있듯, 대중매체시대의 예술의 대응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고찰 및 한국 동시대 미술의 미술사적 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워크웨어, 2018, 린넨, 가변크기

고아라 *Go Ara*

주요전시
2018 인디브랜드페어, SETEC, 서울
2017 연희동 아트페어,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7 '사용상의 주의사항' 무대의상 제작, 고양예술인 페스티벌, 고양
2017 브랜드 Finandfit 런칭, 서울

연락처
finandfit@gmail.com



Landscape, 2018, 종이에 오일파스텔, 38×45.5cm

권소영 *Kwon So Young*

주요전시
2018 숲, Deep Breath, 아티온갤러리, 서울
2018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산수(山水)–현실에서 찾은 이상향, 옥산미술관, 진도
2018 新경교명승첩,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17 밤산책 Night Walk/Walking at Night,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7 Greenery, KDT갤러리, 서울
2017 For:Rest, 아트스페이스H, 서울
2015 풍경, 아트스페이스H, 서울
2014 山水_강원도를 담다, 하슬라미술관, 강릉
2014 The Serenery, 아트스페이스H, 서울
2013 스며든 풍경, 스칼라티움 아트스페이스, 서울
2011 Landscape, 아트스페이스H, 서울

수상
2017, 2014, 2013 겸재정선 내일의 작가상
2017 입선, 안견사랑 전국미술대전
2016 신한 영아티스트

레지던시
2014–2017 하슬라 국제레지던시

연락처
sodeki@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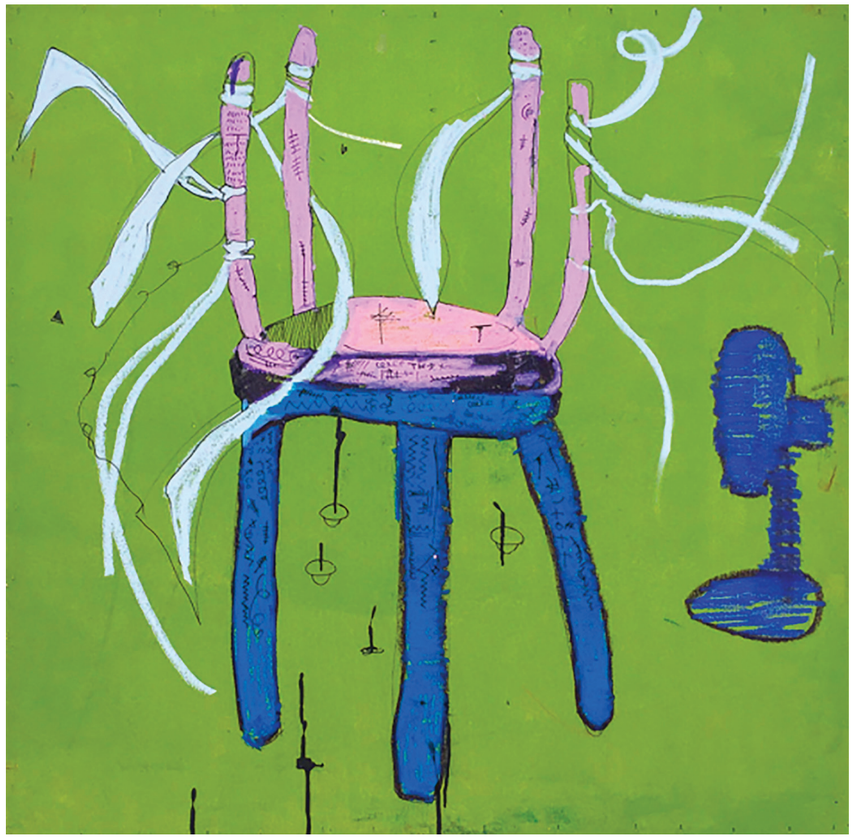
산을 만난 산, 2018, 종이에 목, 97×130cm

김연수 *Kim Yeon Soo*

주요전시
2018 네모가 본 풍경, APT_, 서울
2018 천안, 둥지를 틀다, 단예동 아트센터, 천안
2018 이형사신의 길, 한벽원갤러리, 서울
2018 프레시 아트페어, 성균관갤러리, 서울
2017 연희동 아트페어,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7 미술장터 팝업쇼룸, 청계천, 서울
2016 스쳐지나간 in Seoul,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6 Vorüeberziehen, Burgerhaus, 뮌헨

수상
2016 뮌헨 데뷔탄텐 프라이스

연락처
yred52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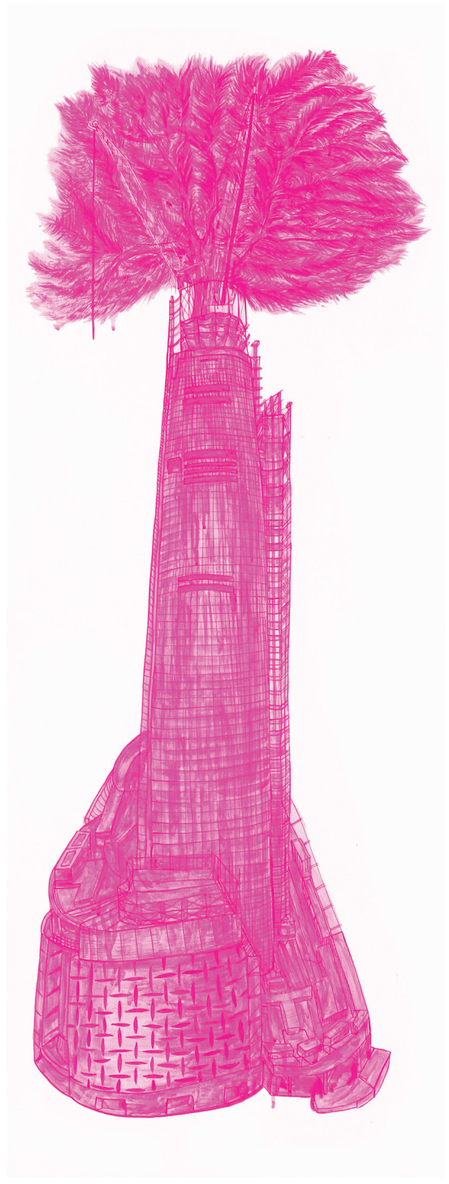
The funny life, 2015, Wood on Oil, 72.7×72.7cm

김용현 *Kim Young Hyun*

주요전시
2018 4thchannel, 스페이스1326, 창원
2018 우사단 video project, 망고서림, 서울
2018 예술 여행이 필요한 시간, 인터글로벌, 서울
2018 일요일에는 비디오, 반짝반짝 사진방, 서울
2017 Eardrum Motel, 양주시립 미술창작스튜디오, 양주
2017 와우산로 식물원, 엘리펀트 아트, 서울
2017 공감: 共感, 창원컨벤션센터, 창원
2016 을지로휘트니스센터, 세운대림상가, 서울
2016 서핑포니아, 코게라지/세컨라운지/싱글핀에일웍스, 양산
2015 즐거운 인생, 스페이스1326, 창원
2013 양면가치, 오래된 집 캔파운데이션, 서울

레지던시
2015 경남예술창작센터
2015 드로잉스페이스살구

연락처
sojuroto@naver.com



롯데월드타워, 2016, 종이 위에 아크릴, 115×30cm



***Form;self*_스스로의**, 2012–2014, Plaster, Eco-flex, Oak, 28×30×70cm

김이박 *Kim Lee Park*

주요전시
2018 미모사–sensitive plant, 위켄드, 서울
2018 경기아카이브–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2018 자연스럽게,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 수원
2018 식물학개론,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
2017 자라는 모습, 갤러리 밈, 서울
2017 흔들리며 서서,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2017 SeMA 예술가 길드 2017–표본 창고,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서울
2017 노래하는 사물–뮤지비션,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7 덕후프로젝트–몰입하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7 숨은 미술관 찾기, 헬로우뮤지엄, 서울
2017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상상공작실, 수원
2016 노심초사, 반쥴 루프탑갤러리, 서울
2016 노마딕 경기 아트페스타–실신 프로젝트: 남양광하, 경기아트플랫폼, 수원
2015 이사하는 정원, 롯데 갤러리, 고양

연락처
arias4004@naver.com

김채린 *Kim Chae Lin*

주요전시
2018 열한가지 조각, 김종영미술관, 서울
2017 신인작가공모전,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의정부
2017 아티스트 쉐어링, 엘리펀트 아트, 서울
2017 MORE &MORE, 신 미술관, 청주
2016 을지로 휘트니스센터, 세운청계상가, 서울
2016 레지던시의 낯섦', 수로요, 고성
2016 stone-edge stone-city, S갤러리, 화성
2016 생각하는 손, 갤러리H, 서울
2015 무소속의 시간들,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5 청계추계체육대회', 세운청계상가, 서울
2014 초인을 기다리며, 성산아트홀, 창원
2014 산발적 동요2, 원앤제이갤러리, 서울

수상
2018–2019 OCI 영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
2016 수로요 도예레지던시
2014 경남창작센터

연락처
vitoveto@gmail.com



Sky, 2017, 아크릴, 가변



Axis_2circle, 2018, Stainless steel, Dichroic film, Bearing, 200×200×350cm

김현지 *Kim Hyun Ji*

주요전시
2017 Breath, VOFOL, 서울
2017 연희동 아트페어,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6 Winter Project, 레스빠스71, 서울
2016 서핑포니아, 코게라지-싱글핀-세컨라운지, 양양
2015 Vostok Art Project,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5 하와이안 키친, 슬런치팩토리, 서울
2015 청계추계체육대회, 세운청계대림상가, 서울
2015 IS, 갤러리 원, 서울
2014 Frolic Art Festival, 유수암원형광장, 제주
2014 일상 속의 감성,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2 Supernatural, 인동갤러리, 원주

연락처
7622198@naver.com

박안식 *Park An Sik*

주요전시
2018 Re-balance,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광명
2017 Kinetic art project strange-machine,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2017 Kinetic art_미술관이 살아 있다, 신세계갤러리 센텀, 부산
2017 공공미술 프로젝트_마주선벽, 한탄임진강, 연천/포천
2016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설봉공원, 이천
2015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 대공원, 울산
2015 원의 경계에서, 메이크샵 아트스페이스, 파주
2013 The Giving Tree, KTX 광명역사, 광명
2012 Happy Missile Project, 스페이스 선+, 서울
2011 Art for nature, Nature for art, 스페이스 선+, 서울

수상
2016 대상, 한국현대조각초대전
2013 금상, 평창비엔날레 국민공모전
2010 대상, 미사리 조각공모전
2009 대상, 대교 전국대학·대학원생 조각대전

연락처
angdrepas@naver.com



코너, 2018, Sand, 15×15cm



풀-*Cryptocaryaposterus(P)*, 2018, 순지에 혼합재료, 42×29cm

박영진 *Park Youn G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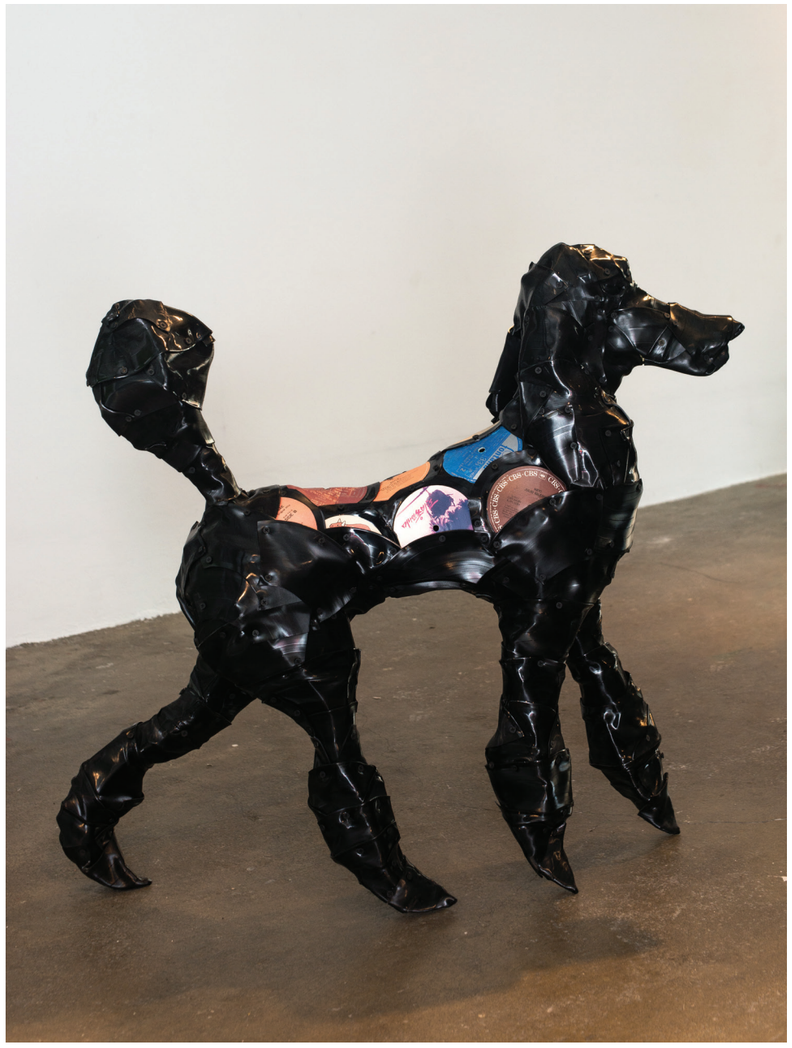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6 Dark Necessities,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5 어디갔다 이제왔어,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4 온기, 문화역서울284, 서울
2014 빈 집 프로젝트 – 프로릭 아트페스티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
2013 판화가 대화하는 법 Multilogue: On Print, BSSM 백순실미술관, 파주
2013 Retro school days, 신세계갤러리, 인천
2013 드로잉, 쓰고 또 쓰다, 아트스페이스 휴+보림갤러리, 서울
2013 트라이앵글 아트 페스티벌, 스페이스K, 광주
2013 서울문화재단 선유도 거리예술축제, 구의취수장
오픈스튜디오, 서울
2012 임의자막, SP갤러리, 서울

연락처
dudwls258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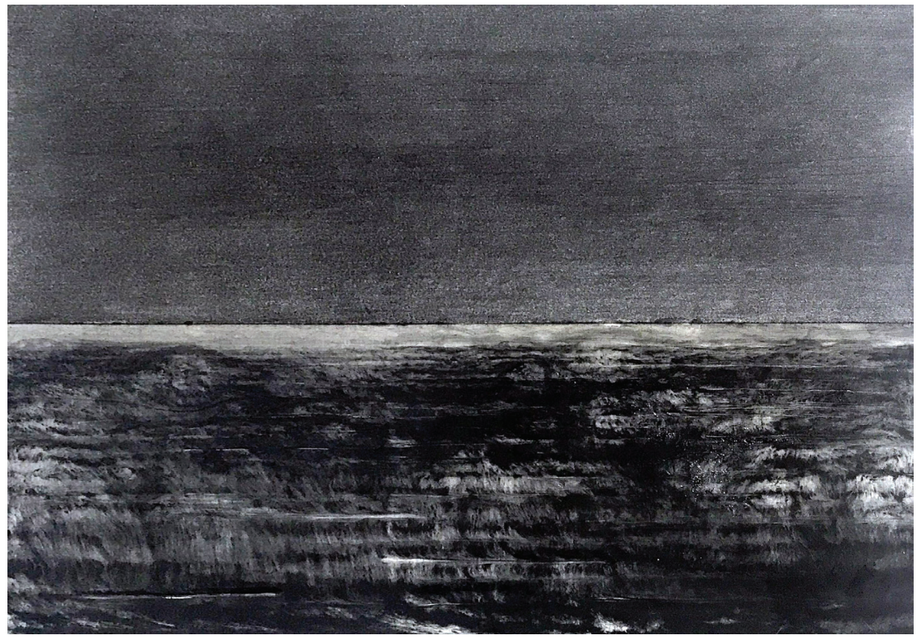
박장호 *Park Jang Ho*

주요전시
2018 초록(草綠), 살롱 드 어매즈, 서울
2017 연희동 아트페어,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7 아트369, 아트플레이스, 서울
2017 반려교감,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7 인사살롱, 갤러리 미술세계, 서울
2016 Non-Human nature,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연락처
spell_p@naver.com



작은푸들, 2017, 레코드판, 철, 80×30×60cm



Erasing#3, 2017, Charcoal on Paper, 41×53cm

엄아롱 *Um A Long*

주요전시
2018 위로의 시간, 성북예술가압장, 서울
2018 물성변이,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8 플라스틱 생물,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17 위로되는 것들,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7 제주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7 공간감: 공간(space)+공감(sympathy), 세종문화회관 야외공간, 서울
2017 화화반려교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6 삶의 재구성, 혁신센터, 서울
2016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 流, 청계천, 서울
2016 가벼운 플라스틱 전시, 재주도 좋아, 제주
2016 거의일치, 가변크기, 서울
2015 Endless Climb 끝나지 않고 오를 수 없는, 아카이브 봄, 서울
2014 숲이 된 사물, 스페이스선+, 서울

수상
2012 장려상, 미사리 야외조각공모전
2011 특선, 미사리 야외조각공모전

연락처
hansunglong@hanmail.net

황호빈 *Huang Hao Bin*

주요전시
2018 300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단저우국제비엔날레, 동파국학원, 단저우
2017 GONGXIGONGXI, 스페이스 공공연희, 서울
2016 SOS: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스페이스XX, 서울
2016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5 낄쳐협,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3 컵속에서, 연변대학교미술관, 옌지
2012 Multiple Exposure, 충북대학교미술관, 청주

레지던시
2014–2015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연락처
artfun.huang@gmail.com

2018.6.9.—6.13.
문화역서울 284
서울시 중구 통일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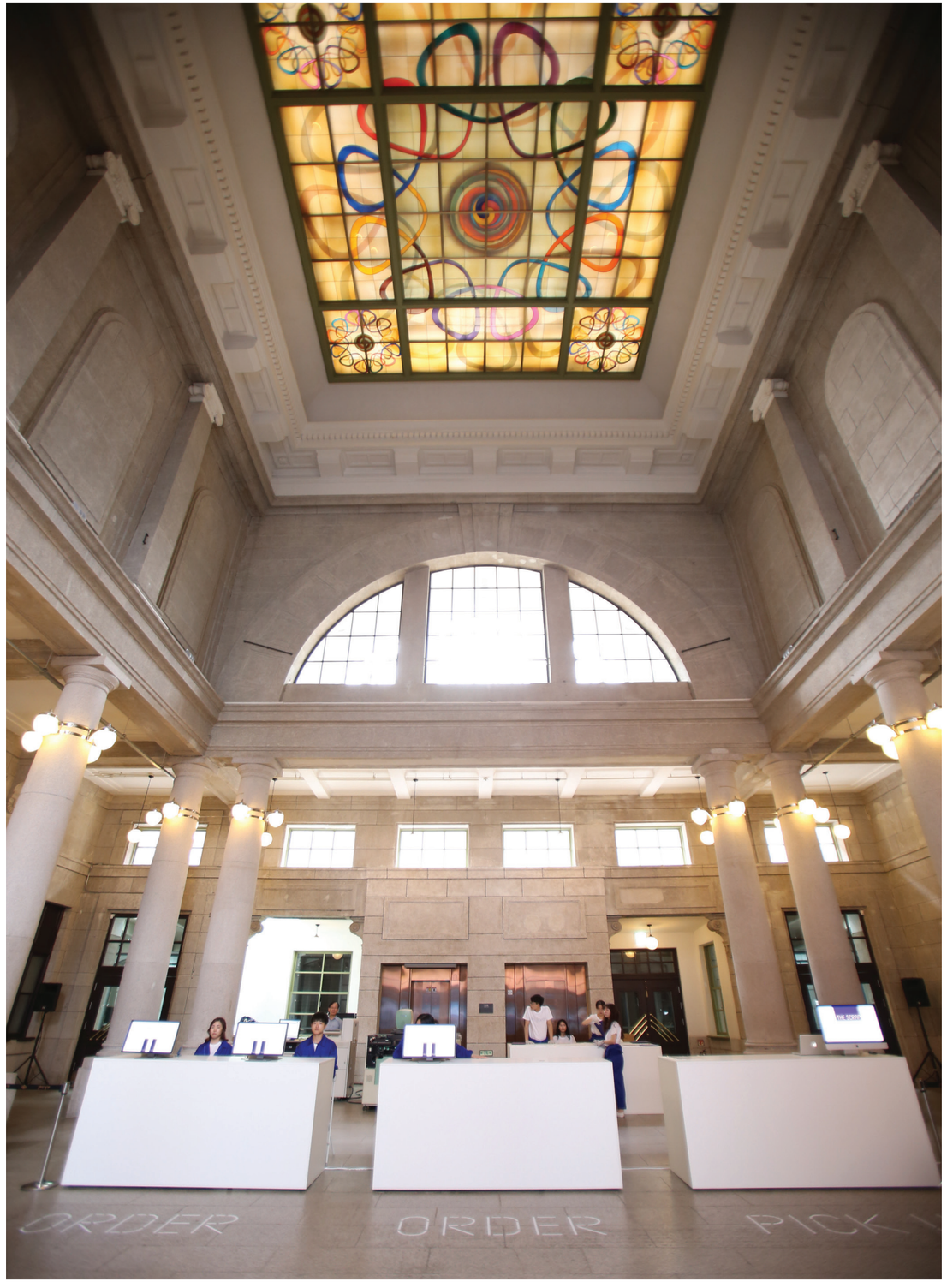
더 스크랩 2018



지금여기
website the-scrap.com
facebook /thescrap.info
instagram @thescrap.info

더 스크랩: 유쾌하고, 가볍고, 세련된 감각의 공유 장터

김미진(홍익대학교 교수)



‘작가미술장터’는 미술품 판매기회가 없는 예술가들에게 직거래 장터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여 2018년에는 전통적인 생산과 거래, 판매 방식에서 탈피한 신선한 기획과 다양한 플랫폼으로 기존 아트페어의 시장잠식 우려와 완전히 다른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며 진화하고 있다.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더 스크랩(이하 스크랩)은 국내외 사진작가 100명의 사진 1,000점을 아무런 정보 없이 전시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총 8,198명의 관객이 다녀갔으며, 9,455점을 판매했다. 이는 2016년 1회 때 1,546명이 방문, 5,315점 판매, 2회 때 2,076명이 방문, 7,495점이 판매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성과가 좋은 편이다.

먼저 문화역서울284가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전시, 공연,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 장소 선택은 매우 탁월하였다. 그리고 지난 2회 동안 축적된 스크랩만의 기획, 홍보, 판매 시스템이 장소와 함께 잘 어우러져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사진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신생공간을 운영하는 젊은 기획자 5명의 참신한 기획과 조직운영이 돋보였다. 이들은 기존 제도권의 판매방식과 다른 통로로 만날 수 있는 아트페어를 고민하며, 마치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쇼룸에서 프린트를 확인하고 각자의 콜렉션을 만든 후 프린트를 수령해 자신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아트페어에 접근한다. 이들의 목적은 동시대의 다양한 작업자들을 만나고 작업자들이 가볍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기증하는 것, 그리고 안정되고 쾌적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람객이 작업을 감상하고 이를 구매하는 경험을 더욱 더 향상시키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그들만의 차별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스크랩은 입구부터 클럽처럼 입장 관객들에게 푸른 팔목띠와 리플렛을 제공한다. 원래 구 서울역사였던 로비 창구에서 5장 혹은 10장의 사진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3만원과 5만원에 살 수 있다. ‘쇼룸’은 1·2층 대합실을 활용한 전시공간으로 작가 100명이 각각 출품한 10장의 사진 이미지 1,000점이 흰색 테이블 위에 놓여 진열되고 있다. A4 사이즈에 동일한 인화방식(C-print)으로 제목이나 작가 정보 없이 번호만 표기되어 관람객은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 구매권에 번호를 적어 로비 ‘스토리지’의 현장 스태프에게 제출하면 몇 대의 프린터를 통해 그 자리에서 인화하고 잠시 후 모니터의 대기 알림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고객은 A4 크기의 사진들과 함께 작가 정보가 들어있는 사진을 받게 되고 또 옆에서 액자를 바로 주문할 수도 있다. (관계자는 액자 판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린트와 포장 이 모든 과정이 한눈에 들어와 마치 거대한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사가는 기분을 경험하는 것처럼 시각적이며 경쾌하고 흥미롭다. 관객들은 작가의 정보 없이 각각의 취향에 따른 큐레이션을 하기에 5–10장의 사진을 고르는 데 몇 번에 걸쳐 꼼꼼하게 보게 된다.

중간 대합실의 아카이브룸에는 이전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자료가 준비되어 그 또한 참고할 수 있었다. 2016년도와 2017년에 참여했던 작가 200여 명(팀)의 작품 총 2,000여 점을 작가별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2016–2017 아카이브 웹사이트도 함께 오픈되어 무기명으로 알 수 없었던 작가·작품들의 정보를 살펴보며 동시대 사진의 스펙트럼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스크랩에는 강홍구, 구본창, 정서영 등 국내 대표 사진작가들에서부터 디자인, 패션, 퍼포먼스, 실험예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했고 이중 몇 작가는 올해도 찾아볼 수 있었다.

부대행사로 6월 12일 오후 7시에 젊은 일본 사진작가들의 사진집을 발간하는 독립출판사 Newfave의 디렉터 코헤이 오야마와 대만의 사진잡지 VOP(Voices of





Photography)의 편집장 웨이-와이 리가 패널로 참가해 동시대의 사진에 대한 각자의 전략을 실천적 형식을 통한 담론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6월 13일 7시에는 5일 동안 모든 관객이 구매한 5·10장의 패키지 구성을 '당신의 스크랩'이란 행사로 스크리닝하며 각각의 큐레이션을 함께 관람하고 사진을 고르는 각자의 방식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몇 년간 지속적인 방식으로 인한 연계성이 있어 홍보는 장소성과 함께 확장되었다. 울트라 마린과 흰색을 주조로 한 홍보 디자인은 붉은 벽돌의 근대 건축물 외벽, 그리고 다소 어수선한 광장에서부터 전시장 스태프의 의상까지 분위기를 함께 돋보이게 하였다. 같은 이미지와 컬러, 디자인으로 통일한 주최측 홈페이지와 기획자들의 SNS는 각종 행사와 작가 정보를 다양하게 담아낸다. 이 행사를 즐기는 관객들의 유튜브, 블로거, 카페 등의 소식이 속속 올라오며 시대를 담아내는 쌍방향 소통의 역할을 즉각적으로 잘 해내고 있었다. 스크랩은 기획, 공간 연출, 제작, 그래픽 디자인, 음악, 프린팅 테크닉 등 다양한 분야 젊은 전문가들, 일사불란한 스태프들과 함께 동시대의 취향과 감각을 공유하며 수준 높게 진행되었다. 작품 판매의 수익은 실적과 상관없이 참여작가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는 분배 구조 역시 실험하고 있다. 판매가 늘면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기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되지만 아직은 그다지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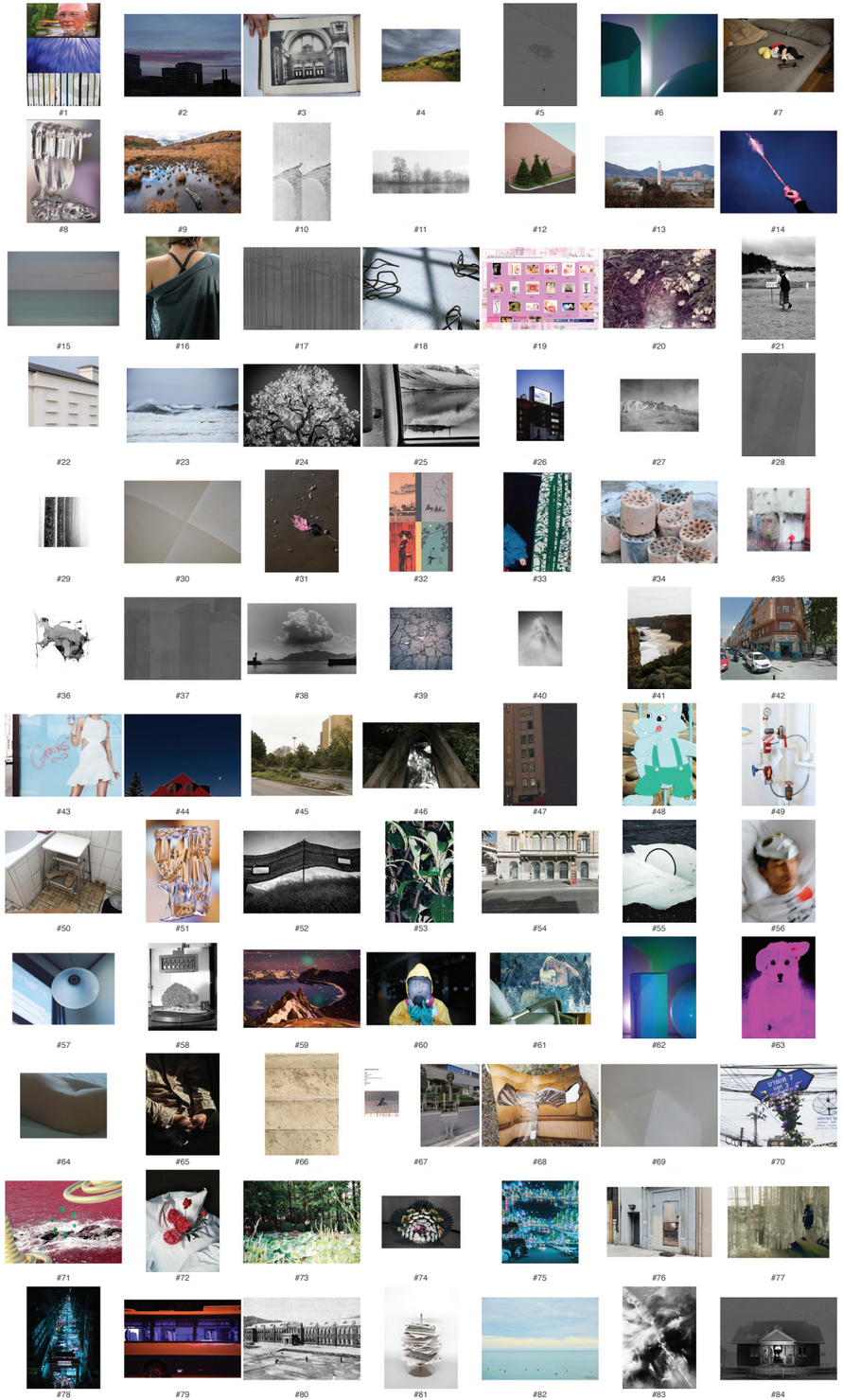
스크랩은 "작업자들과 관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전시 룰을 만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작업자들과 관객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새로운 형태의 호기심을 만들었다. 동일한 크기와 인화 방식으로 생산한 사진을 전시하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관람과 동시에 (에디션이라는 기존의 사진 유통 방식과 다른) 독특한 형태의 구매·전시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스크랩은 자신의 목적을 성실하게 실천한 행사며, 열악한 사진시장의 새로운 대안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획: 신선하고 유쾌한 감각의 동시대성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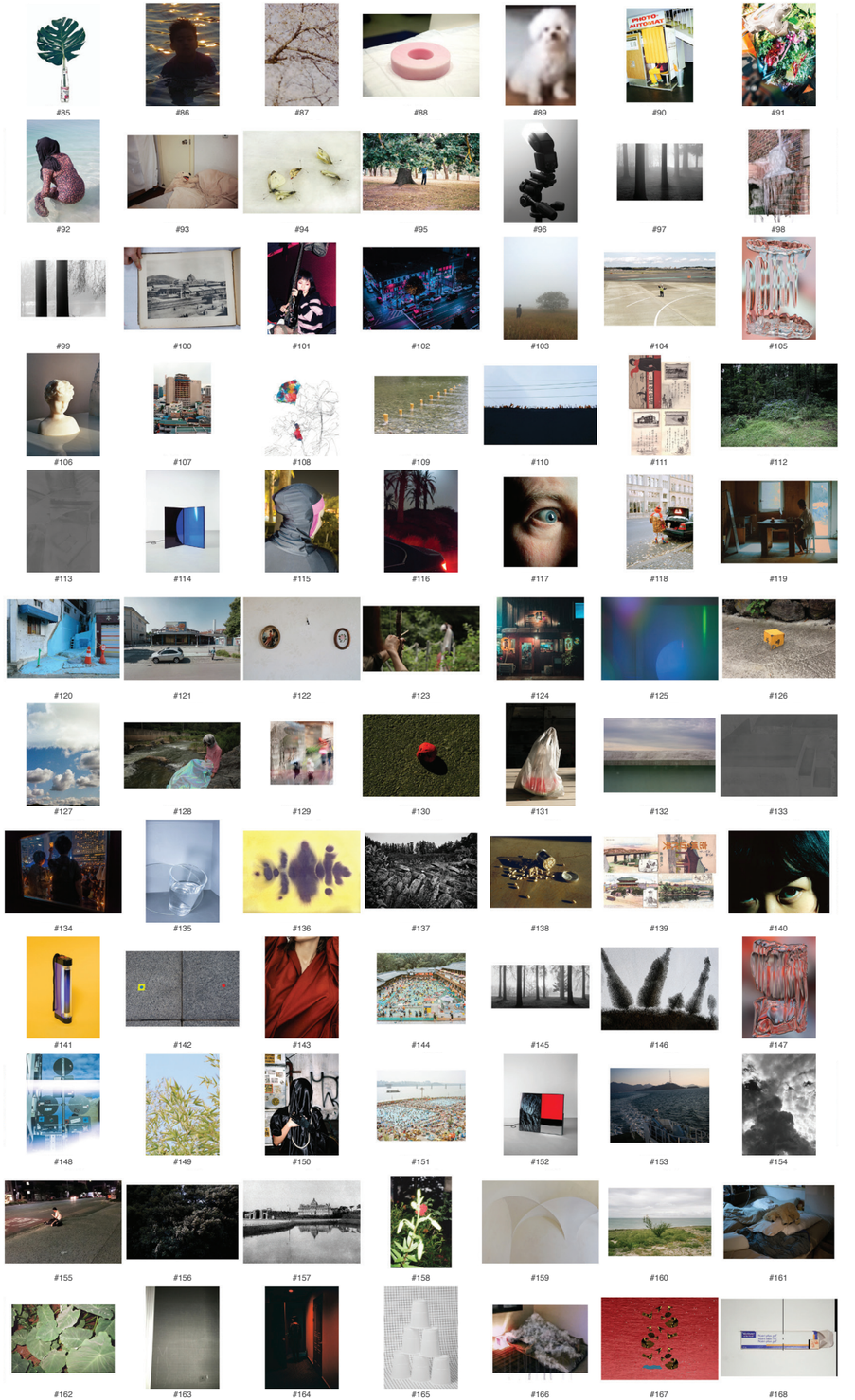
운영: 조직적이며 일사분란함

홍보: 쌍방향으로 우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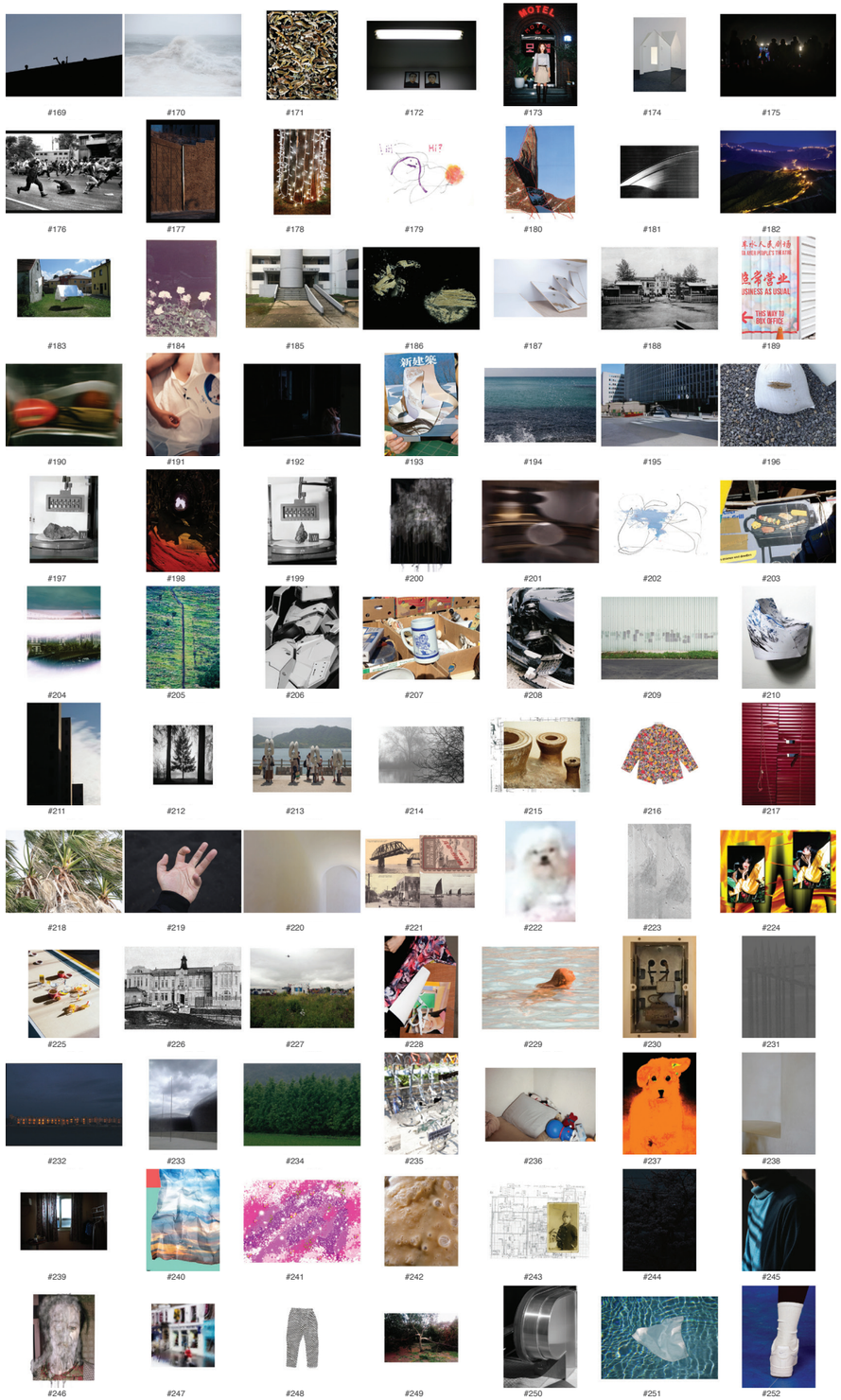
김미진은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느에서 예술학 박사를 거쳐 1997 광주비엔날레 유럽 담당 큐레이터, 영은미술관 부관장, 2007년 인천여성비엔날레 커미셔너, 예술의전당 전시예술감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위원, 국립현대미술관 평가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 전공 및 문화예술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국제동시대미술전의 협업 매커니즘 연구」, 「젊은 작가들의 경향으로 살펴본 오늘의 미술 연구」, 대표적인 기획으로 《U.S.B》(예술의전당, 2009) 등이 있으며, 비평, 전시기획, 국공립기관의 운영자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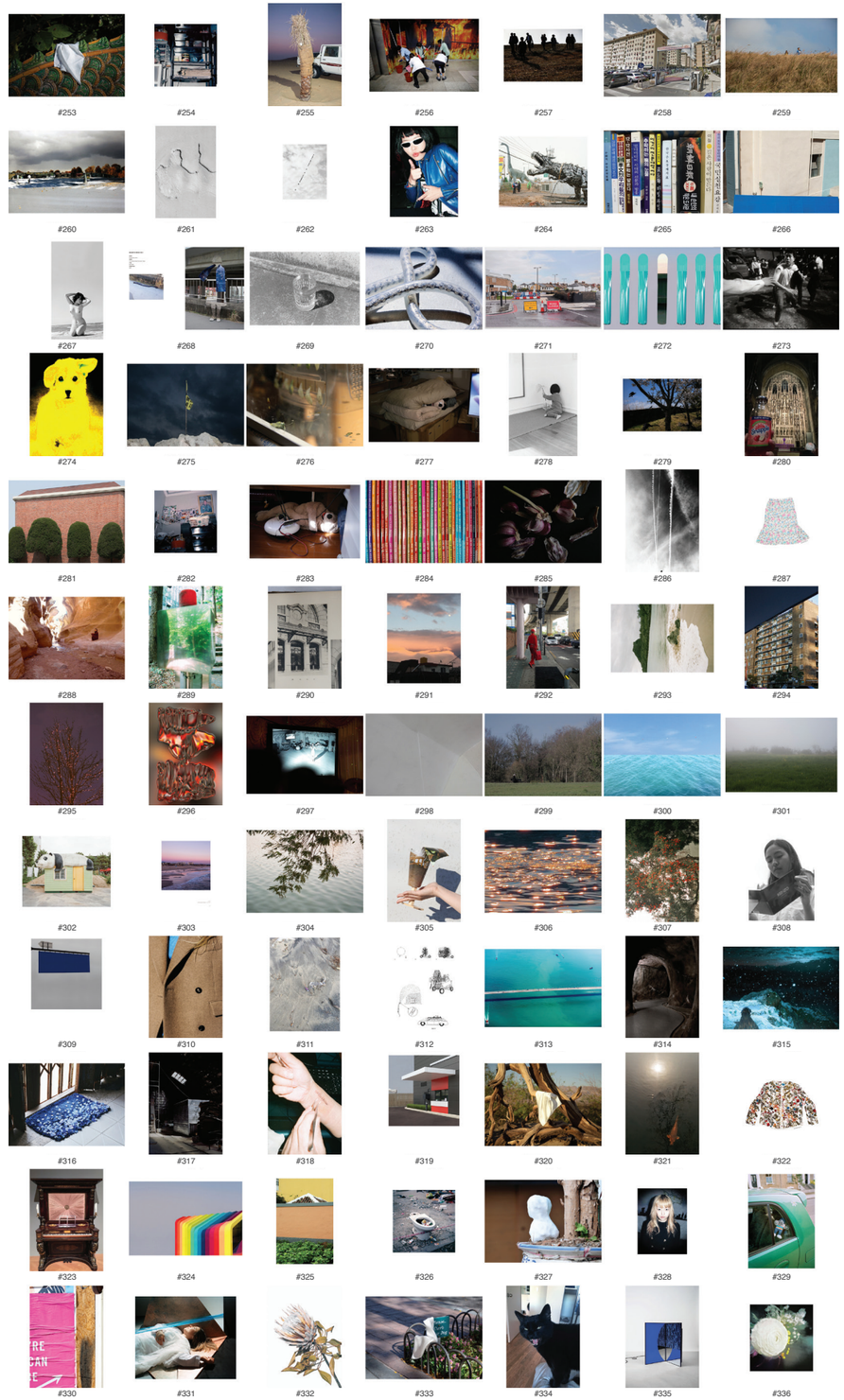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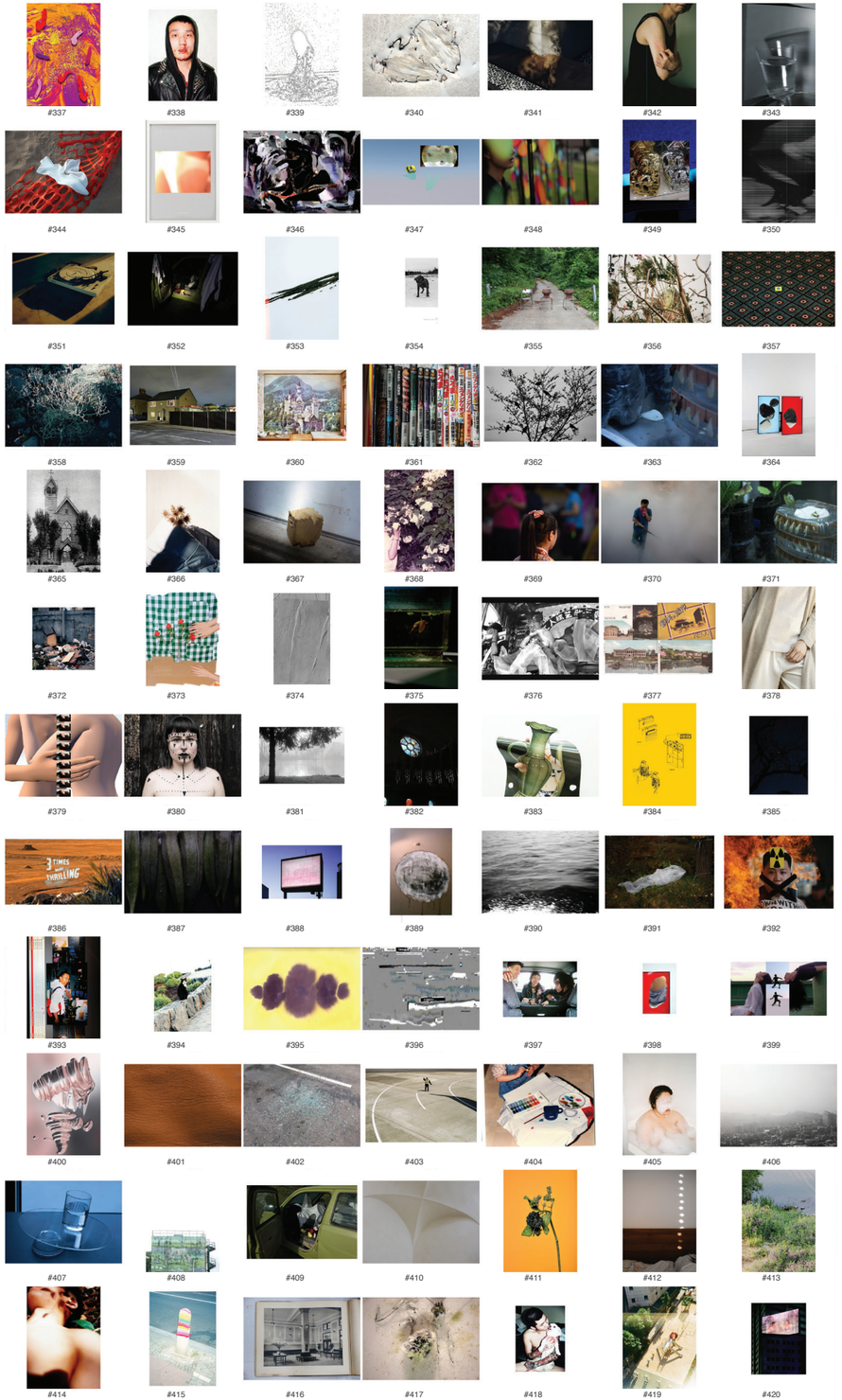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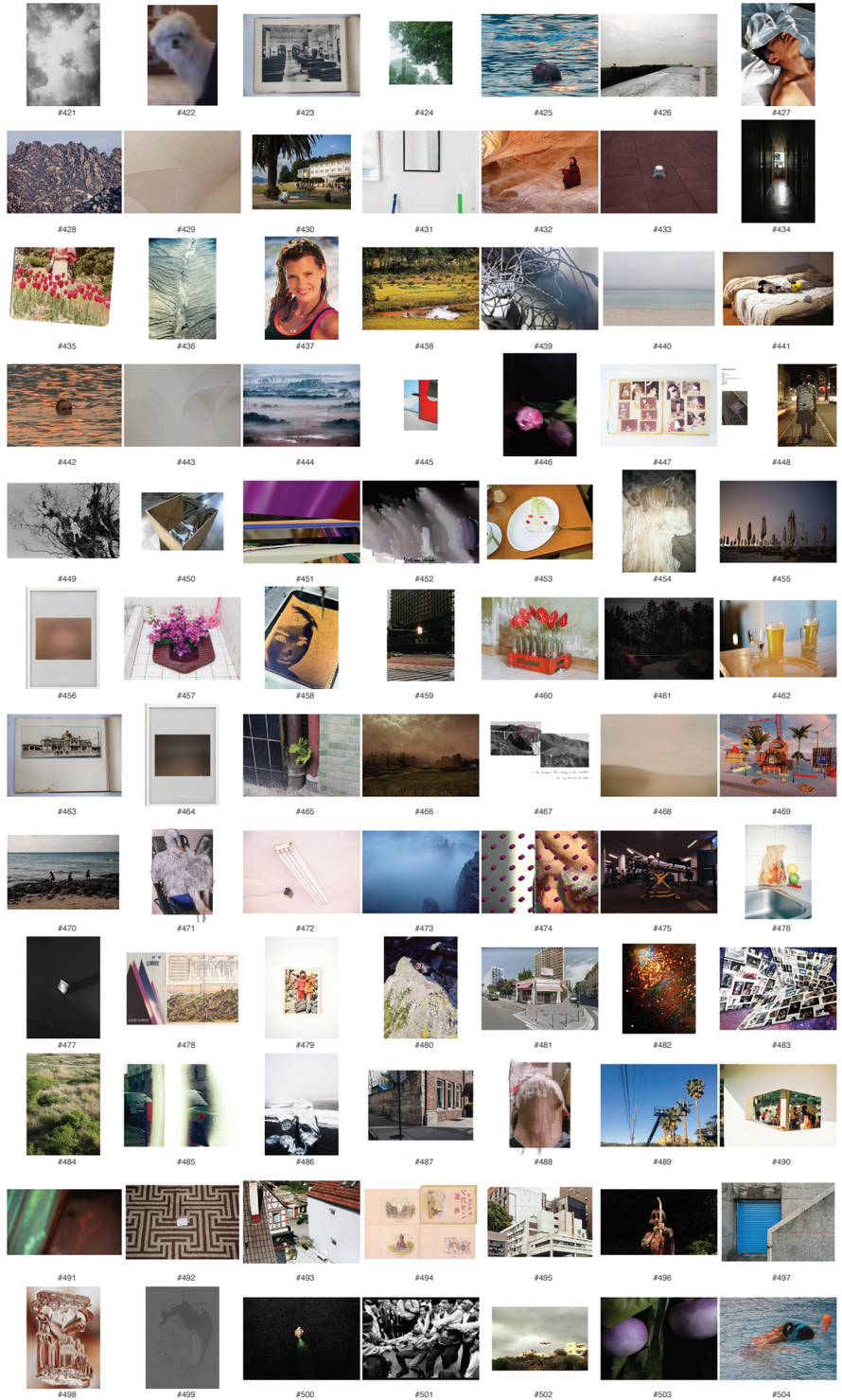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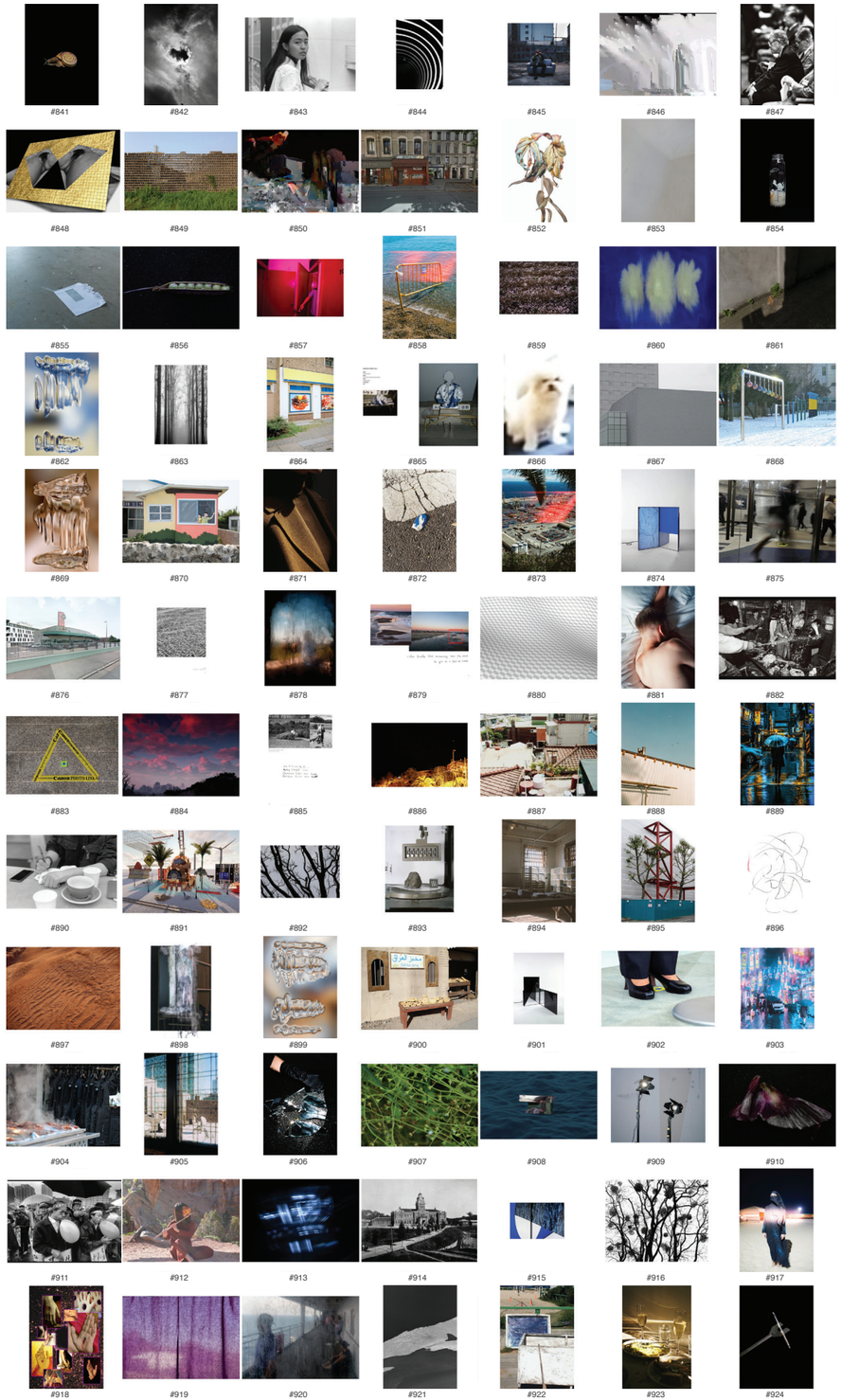
#806 #807 #808 #809 #810 #811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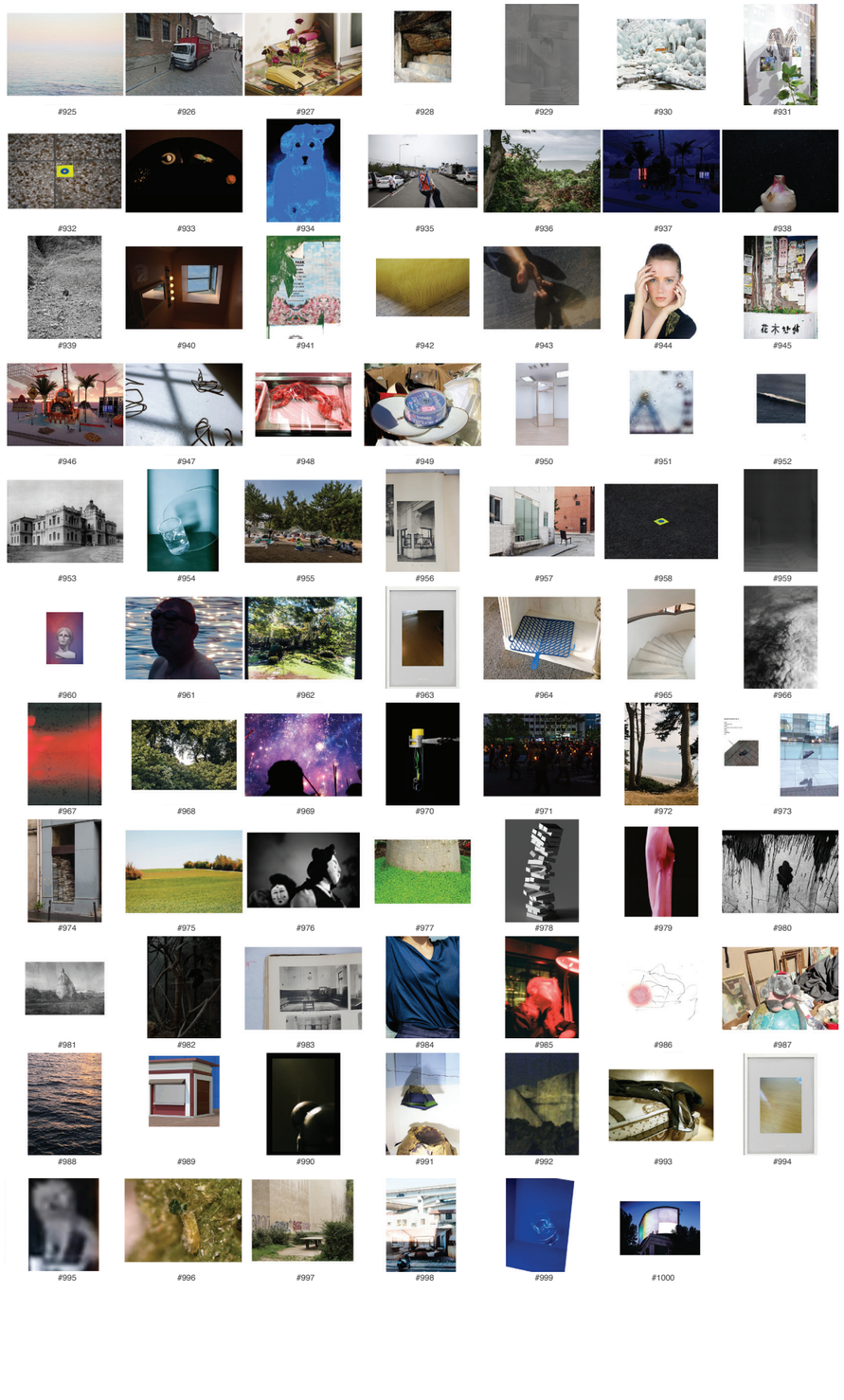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2018.9.6.—9.9.
(구)자양삼계탕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6길 17

2018.9.14.—9.16.
동네인포집
전라남도 순천시 향교길 28

2018.10.19.—10.21.
행화탕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9길 12

HAO:
OK션[옥션]
2018



하오 제주
website haoartist.com
facebook /haoartist
instagram @openstudio.hao





HAO:OK션[옥션]: 제주 자양 삼계탕과 사일런스 옥션의 매력

김은지(홍익대학교 교수)

HAO(하오)의 제주 상륙

흔히 현대미술이 난해하고 어렵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작품 소장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작품 가격 정보나 작품 구매 경로는 많이 낯설다. 이 모두를 해결하는 전략을 다름아닌 'HAO:OK션[옥션] 2018'(이하 하오옥션)이 내세웠다. 미술장터 프로젝트인 이 행사는 올해 9월 초 시작되어 약 10일 동안 총 3개의 국내 지역—제주, 순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유하는 이 미술장터 행사는 제주시의 (구)자양삼계탕(2018.09.06.–09.), 전라남도 순천시의 동네인포집(2018.09.14.–16.)에 이어 서울시 마포구 행화탕(2018.10.19.–21.)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하오옥션의 의도는 예술작품의 폭넓은 대중화와 "일반인들의 부담 없는 예술품 구매 경험"으로 요약되며, 이는 10일간의 일정을 통해 차질없이 실현된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미술장터 행사에는 전체 참여작가의 80% 이상을 지역작가들로 구성했던 점은 지역예술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제주에서 4일간 개최된 하오옥션에는 30여 명의 예술가가 참가했다. 전체 총 65명의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참여했던 것을 감안하면 제주의 미술장터에 약 50%에 해당하는 예술가가 참여한 것이다. 제주 하오옥션에 참여한 30여 명의 작가 중 제주 작가는 25명으로 이들은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따라서 제주와 순천 그리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행사에 참여하게 하여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유도를 시도한 점은 본 행사의 큰 의의라 할 만하다.

사일런스 옥션, 스스로 작품 경매자

특히 눈여겨 볼 점으로는 관람객 스스로가 작품의 경매자가 되어 작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현장 경매의 진행이다. 전시장 벽면에는 30명의 작품들이 30호 내외의 크기로 50여 점이 전시되었다. 회화, 조각, 판화, 드로잉, 오브제 등 다양한 작품들 곁에는 작품정보와 옥션 시작가격이 명시된 '서면응찰지'가 부착되어, 전시장을 관람하면서 혹은 관람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에 대한 구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점은 주최측의 배려이자 숙고된 콘셉트의 한 면으로 여겨졌다. 관람객은 구매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희망낙찰가'를 볼펜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었다. 미술품 경매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미술옥션에서 작품가격을 외치고 서로 소리내어 경쟁하는 장면과는 매우 대비되는 과정이 오버랩되어 흥미로운 과정으로 다가왔다.

소리없는 옥션의 진행인 일명 '사일런스 옥션'은 전시기간 4일 내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구매가격은 관람객들에 의해 조금씩 오르게 되었고, 낙찰가를 적은 이들은 두근거리는 마음과 약간은 긴장된 마음이 교차되는 경험을 하며 작품 옥션의 최종 낙찰일인 전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전문적인 미술옥션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미술작품과 경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되면서 하오옥션에서 마련한 이 기회가 얼마나 의미있는지를 직접 깨닫게 한 점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더욱이 작품구매·결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마지막날, 작가와의 만남 또한 함께 이루어져 작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작가의 창작 철학이 공유될 수 있었다는 부분은 행사의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부담없는 예술품 구매경험을 대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예술가와 대중간 소통 및 의견 교류 또한 예술가들에게 창작활동의 동기를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쉬운 지엽적 홍보

좋은 일은 널리 알려질 수록 의미부여가 배가 된다. 오픈스튜디오 행사, 특히 관람자 모두가 스스로 작품 경매자가 되는 경험을 유도한 사일런스 옥션 등은 미술의 대중화와 구매경로에 대한 이해도모에 있어





참으로 의미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콘셉트로 마련된 의미있는 경험 장소로의 초대가 매우 지엽적인 범위에서 그치고 만 듯해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제주공항에서부터 홍보문이나 안내문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주시 관덕로 부근에서라도 전시와 행사에 대한 안내문구가 적힌 포스터 한 장 마주할 수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애석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의 부재도 큰 아쉬움 중 하나였다.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사상가인 블레즈 파스칼은 “현재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는 수단이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했다. 하오옥션이 올해의 성과와 아쉬운 점들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또 어떤 새로운 발상으로 예술과 대중 그리고 사회를 잇는 의미 가득한 콘셉트의 프로젝트를 내놓을지 기대해 본다.

기획: 예술품의 대중화 위한 경매 및 작가 작업실 탐방 부대 프로그램은 의미있는 것으로 사료됨

운영: 공간구조에 비해 작품이 헌저히 많았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됨

홍보: 오프라인 홍보는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김은지는 베를린예술종합대학교에서 미술사로 학사와 석사 취득 후, 베를린 홈볼트대학교 제3철학대학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전문 연구영역으로는 미디어예술, 19세기 이후 현대미술, 이미지학, 박물관학 분야 등이 있다. 저서로는 『Nam June Paik–Videokunst in Museen; Globalisierung und lokale Rezeption』(베를린 라이머, 2010), 『비디오 조각과 젠가』(한국학술정보, 2011) 등이 있다.



Partner Synapse #1, 2018, 동판에 에칭, 20×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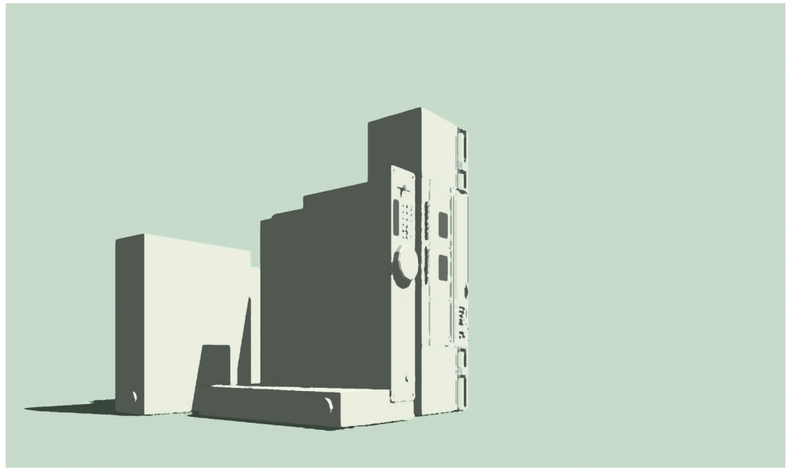
박솔지 *Solart*

학력
중앙대학교 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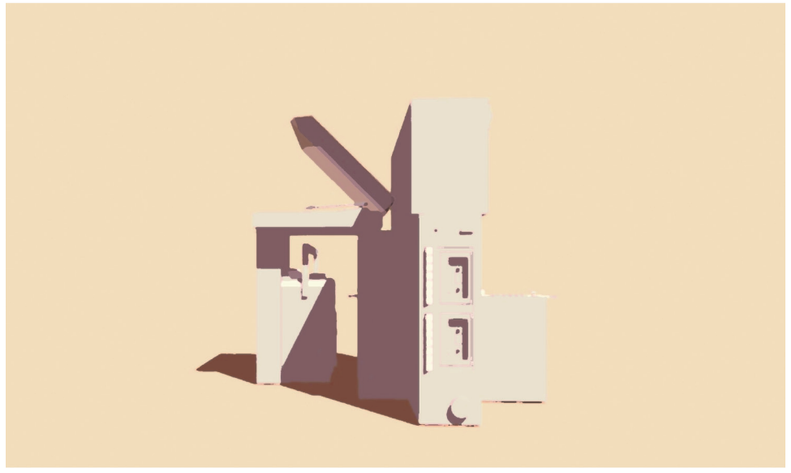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7 아리랑 페스티벌, 광화문, 서울
2017 아티팟 카니발, 서울숲, 서울
2017 공공의 손길 프로젝트_독립운동가 13인, Solart, 일산
2017 아트상품개발_한라산 #1, #2, Marry JEJU 콜라보, 제주
2016 부자연스러운 표현, STUDIO 9, 서울

레지던시
2018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연락처
instagram.com/solji.p
psj2140@daum.net



T.O.Y Composition No.1, 2018, 종이에 인쇄, 29.7×42cm



T.O.Y Composition No.2, 2018, 종이에 인쇄, 29.7×42cm

안세현 *Ahn Se Hyun*

학력
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

주요전시
2018 녹아버린 검정 사각형 Melted Black Square, 갤러리 18번가, 제주
2017 검정 사각형의 여집합, 갤러리 18번가, 제주
2017 3232 Prologue, 갤러리 거인의 정원, 제주
2016 TURN ON YOUR, 갤러리 18번가, 제주
2016 얼굴이나 보자, 갤러리 18번가, 제주

연락처
instagram.com/sehyun_ahn
melted.black.square@gmail.com



가출, 2017, 종이에 수채화, 25×15cm



빨간 단추, 2016, 종이에 수채화, 27×16cm



백합, 2016, 한지에 아크릴, 50×50cm

안소희 *Ahn So Hee*

학력
제주대학교 미술

주요전시
2015 새벽 네 시, 갤러리 노리, 제주
2013 제주 우수 청년작가 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주
2010 낯설거나 혹은 낯익거나,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주

연락처
instagram.com/sohee.ahn.908
sohy8355@naver.com

오세경 *Oh Se Kyung*

학력
세종대학교 회화
세종대학교 동양화 석사

주요전시
2018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2017 회색 온도(무색의 중심),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7 끝없는 밤,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청주
2017 주춤거리는 현실,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2016 회색 온도(무색의 중심), OCI미술관, 서울
2016 GREY-REAL, 아트스페이스 카포, 가나자와
2015 성인병, GALLERY AG, 서울
2015 바람난 미술, 서울시민청, 서울
2014 기꺼이 속는 삶, 갤러리 도스, 서울

수상
2016 OCI미술관 영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
2016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연락처
instagram.com/oh_sekyung
blog.naver.com/achillens
achillens@naver.com



수만개의 달, 2015, 종이에 혼합매체, 30×30cm



달팽이버프, 2015, 종이에 혼합매체, 30×30cm

이어니 *Lee Eoni*

학력
건국대학교 회화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파인아트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찬스, 호반아트리움, 광명
2017 괄라섬 1장, 구 CSS외국인학교, 서울
2015 나누기, 노란대문, 서울,
2015 제로랩&일러스트 5인전, 해방촌 테이크아웃드로잉 ㅊ, 서울
2013 새벽 4시 드로잉, 오우치갤러리, 뉴욕
2013 스윗액션, 갤러리 옴즈, 뉴저지
2013 듀앤어니, 블랙엑스포, 뉴욕
2013 퀼팅드림, 예감 갤러리, 뉴욕
2013 스펙트럼 아트페어, 자비스센터, 뉴욕
2012 새벽 4시 드로잉, 프랫사우스갤러리, 뉴욕

수상
2007 은상, 삼화제지 작가 공모

레지던시
2012 알프니 뉴욕 레지던시

작품소장
Catskill Zendo(뉴욕)

연락처
www.eonilee.com
instagram.com/eoni.drawing
theladyduck@naver.com



Blue Irony, 2017, 캔버스에 유채, 116.5×9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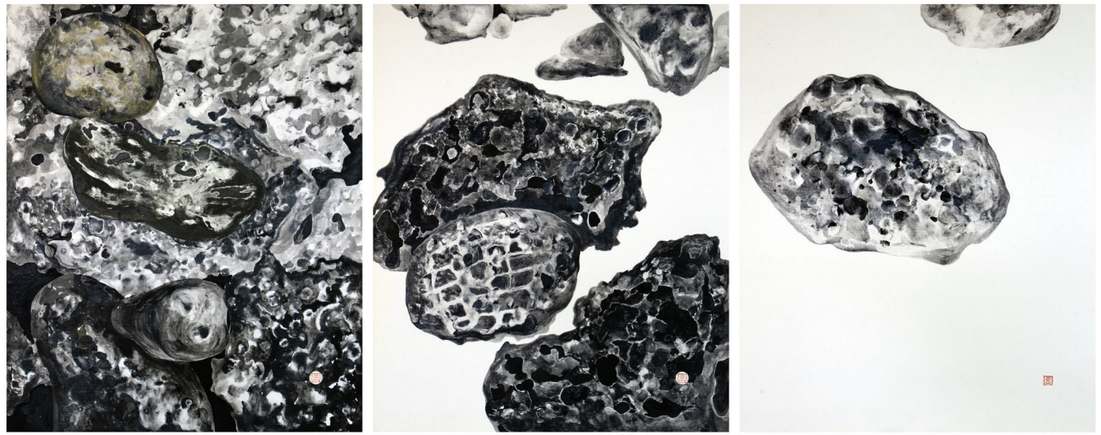
이채(이채현) *Lee Chae*

학력
가천대학교 동양화
홍익대학교 미학 석사수료

주요전시
2018 A/S(After Show): 서교-서문,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7 Blue Lrony, 아트랩 반, 서울
2016 낭만적 덩어리, 땡스북스 더 갤러리, 서울
2011 Twin Cross, 갤러리 라메르, 서울

수상
2015 입상, 광복70년대한민국미술축전

연락처
www.leechae.com
instagram.com/lee__chae
leechae0513@gmail.com



돌색–시간 No.1–3, 2014, 두방지에 혼합재료, 45×114cm



We just met, 2018, 디지털 C프린트, 41×51¾cm

조기섭 *Cho Ki Seob*

학력
성균관대학교 한국화

주요전시
2017 Ping, 갤러리2, 서울
2017 3인전, 갤러리2 중선농원, 제주
2016 정중동 – From afar, 꿈인제주 갤러리, 제주
2015 383상륙전, 오픈스페이스배, 부산/ 대안공간봄, 수원/ 갤러리 두들, 서울/ 아트창고, 제주
2015 물도 꿈을 꾼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5 Aitherena 2015 Art Exhibition, Aitherena gallery, 런던
2014 색과 바람의 시간, 갤러리 이즈, 서울/ 더 스트롱홀드, 제주
2014 정중동–고요속의 움직임, 팩토리 소란, 제주
2014 기억을 넘나드는 바람의 시간, 켄싱턴 제주호텔 갤러리, 제주
2013 그 섬, 이 시간, 곳간: 쉼, 제주
2011 황금이 되고 싶은 말, 연 갤러리, 제주

수상
2018 우수상, 제44회 제주도미술대전

작품소장
정부미술은행, 제주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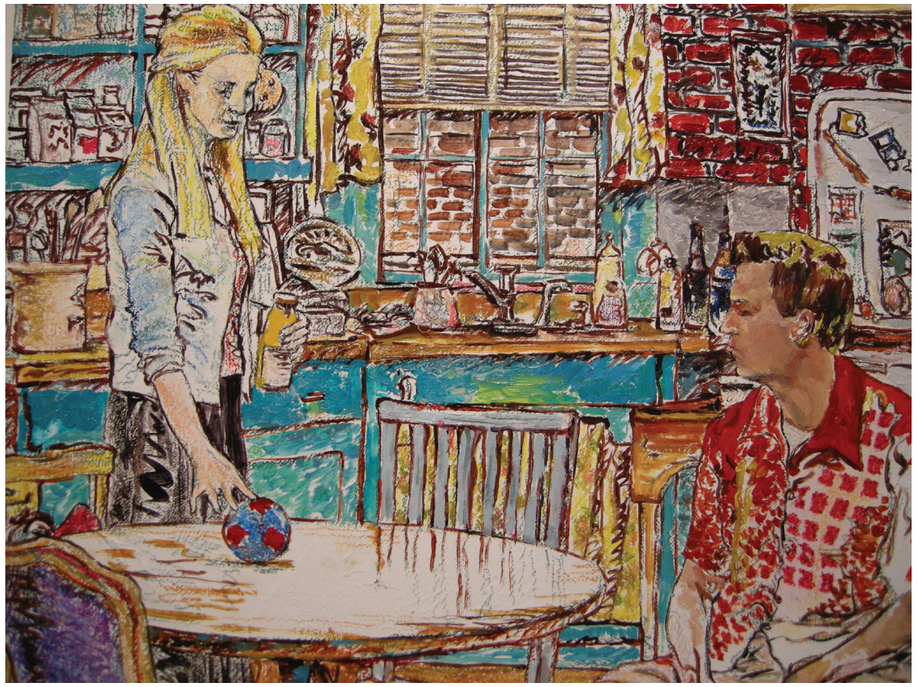
연락처
www.chokiseob.com
instagram.com/cho_ki_seob
mirunamutop@gmail.com

조남홍 *Joe Jo*

학력
파슨스 디자인 스쿨 사진 학사

주요전시
2018 Landscape Interuped, 스페이스D, 서울
2016 232, 232, 뉴욕
2015 작가 기획전, Milk Gallery, 뉴욕
2015 The Artists, Gallery SIA, 뉴욕
2015 I wish I were, EhVonnae Studio, 뉴욕

연락처
instagram.com/musiqjk
datjo.nyc@gmail.com



A ball, 2006, 캔버스 위에 파스텔 아크릴 유화 스티커, 39.9×45.5cm



Flying Flying, 2009, 캔버스 위에 파스텔 아크릴 유화 스티커, 72.7×90.9cm

최지이 *Choi Ji Ii*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 학·석사

주요전시
2018 Counting Stars 별헤는 밤, 영동1번지 갤러리, 순천
2018 A Feast High 잔치,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8 우리집 그림 한 점, 롯데갤러리 일산 외
2018 한중 청년 작가 교류전_7가지 공감, 구 배병우스튜디오, 전남
2018 나들이 on 미술관, 하남문화예술회관, 하남
2018 유리페인팅과 작품전시, Here and There, 성북예술가압장, 서울
2017 Astringency, 드망즈갤러리, 대구
2016 Noriginals, 구미예술회관, 구미
2014 Running to IMAGO, 구미예술회관, 구미
2011 Figures_where there's REAL ME, JH갤러리, 서울
2010 Easygo to Imago, 줌 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2019 가창창작레지던시
2018 순천창작예술촌 2기
2017 대구예술발전소 7기
2017 모하창작스튜디오 아트캠프_버닝위크
2016 스웨덴 ARNA 레지던시

연락처
blog.naver.com/orangehone
orangehone@naver.com



Nipples drawing Hockney, 2018, 캔버스에 유채, 60.6×45.5cm



Jeju, to look #under the moonlight, 2018, 종이에 혼합재료, 21×14.8cm

해요(이행석) *Heyo*

학력
제주대학교 미술

주요전시
2016 Colour Flow, 제주문예회관, 제주
2016 Colour Flow, 아트스페이스 9, 서울
2015 Heyo–The Inspirations, 주안갤러리, 광주
2015 Heyo–The Inspirations, 소울잉크 아트갤러리, 서울
2006 해요,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 제주

연락처
instagram.com/heyo_lee
dlgodtjr2@naver.com

홍시야 *Hong Siya*

학력
경민대학교 시각디자인

주요전시
2018 길에서 묻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제주
2018 식물성, 예술공간 이아, 제주
2018 지표적 상징, JCC 아트센터, 서울/ 예술공간 이아, 제주
2017 제주, 바라보다, 공간동백, 제주
2012 환기 미술관 개관 20주년 아트 프로젝트, 환기미술관, 서울
2010 3rd. Another day, 274g갤러리, 서울
2010 Enchanted, AM Gallery of Comtemporary Art, 브링턴
2009 2nd. 숲의 한숨.듣다, 갤러리 고동, 서울
2008 1st. 한숨의 그릇.담다, 게이트갤러리, 서울
2008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 도시 갤러리–Love heArt Project, 대안공간 충정각, 서울

연락처
hongsiya.com
instagram.com/hong.siya
siya0518@nate.com

2018.10.5.—10.10.
광주 예술의 거리
광주시 동구 예술길 29

미술 퍼레이드
新 개미장터



아트컴퍼니 모이모
website artmo2mo.com
instagram @yj_media_lab





미술 퍼레이드 新 개미장터:
작품 선정의 안목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장터

박영택(경기대학교 교수)

2018년 10월 5일, 광주에서 열리는 기술상점·전시인 ‘미술 퍼레이드 新 개미장터’를 보고 왔다. 그날은 비가 종일 내리고 바람이 거세서 전시를 관람하러 가기까지의 여정이 다소 힘든 하루였다.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린 이 행사는 광주시 동구 예술길 29번지에 있는 건물 지하 1층과 3층에서 열렸는데, 지하 1층에는 여러 작가의 소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3층은 이곳을 실제 자신의 작업실로 쓰는 작가의 오픈 스튜디오를 겸하고 있었다. 마침 이 기간은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시기였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특히 이 장소가 있는 거리가 광주의 일명 ‘예술의 거리’인 관계로 매우 적절한 위치·공간에서 열리고 있다는 인상이었다. 이 거리에는 작가들의 작업실, 화방, 화랑 그리고 골동품 가게들이 인접해 있다. 물론 이전에 비해 그 활력이 다소 꺾인지는 꽤나 오래되었다. 그래도 이 거리의 특성을 잘 살리면 그 부흥이라 부를 만한 모색은 가능할 것도 같다. 어쨌든 인적자원들이 있고 그림을 하고자 하는 욕망들고 있고 그것을 매개로 일을 도모하려는 의욕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기에 그렇다. 따라서 이곳은 좀더 의미 있는 콘텐츠 개발(사실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그것을 연계하려는 이들의 기획력, 아이디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잘 맞물릴 필요가 있어 보였다.

오후 시간대, 오픈 당일에 찾아간 관계로 행사 직전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지하 1층은 기술상점의 장인데 젊은 작가들의 평면, 입체, 사진작업이 대거 소개되는 장소였다. 이 행사의 정확한 이름은 ‘미술 퍼레이드 新 개미장터’(이하 신개미장터)이다. 이 행사를 기획한 측은 기획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대미술은 장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예술과 과학, 기술, 놀이 등이 서로 결합하여 외연을 확장하는 추세다. 이에 미술 퍼레이드 新 개미장터를 통해 최신 현대미술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신진작가 및 실험적 작품을 대중 앞에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 미술작품의 생산·소비 선순환 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광주 ‘예술의 거리’라는 장소를 예술적으로 재조명해보고 미술 퍼레이드 新 개미장터를 통해 미술창작과 소비의 본산지이자 신규 작가 및 작품을 소개하는 무대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본래 이곳에서 1990년대 고미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고미술품과 골동품을 판매했던 이력, 역사와 문화를 환기하려는 의도에서 ‘신개미장터’라 명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행사에는 50명의 작가가 140여 작품을 선보였다. 아울러 판매액 전액은 작가들에게 돌려주며 작가의 창작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공연(3층에서 열리는 행사는 마치 클럽 분위기를 조성해 놨다. 자유롭게 작가의 작업실을 둘러보고 음악도 듣고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그러나 다소 산만하고 작가의 작업이 볼게 없었다), 미니 옥션, 일일예술학교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참여작가들은 주로 전남대, 조선대 출신의 작가를 주축으로 그 외 지역·학교 출신 작가들을 일부 섭외했다. 장르도 다양한 편이다. 작가 선정이나 작품의 선정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기획하는 측에서 임의로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나름의 안목, 기준 또는 장터라는 특성에 맞는(비교적 그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선별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작가의 인선은 핵심적인 요소인데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렇게 주목하거나 신경을 썼다는 인상은 없다. 물건이 좋아야 팔릴텐데(물론 이런 기준도 무척 애매하지만) 수준이 대부분 떨어지는 작품들을 갖다 놓고 좋은 판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고 매우 문제적이기도 하다. 어떤 작품이 잘 팔린다고 하는 정답 같은 것이 있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작품의 질, 성실한 공정, 완벽한 마무리, 완성도 높은 지점, 그리고 흥미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기존의 관습적인 것들과는 조금은 다른 이질적인 감각의 발현 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지점이





모든 마켓의 핵심이다. 물론 적당한 가격대, 크기를 지닌 것들로 제한해서 찾아야 하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가진 안목이 높은 기획자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기획(자)을 통해 이 행사를 만들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출품된 작품들은 효과적인 디스플레이가 너무 아쉬웠다. 벽면에 나란히 배열하는 선이 대부분이었다. 제한된 장소(지하 1층은 좁지는 않지만 전시장으로서 쾌적하고 넓은 편은 아니며 더욱이 전시하기에는 좋은 곳이 아니었다.)인지라 디스플레이에 전략을 갖고 공간을 조율하기가 만만치는 않았겠지만. 작품에 따라 그룹화를 하거나 매체별로 효과적인 보여주기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찾기가 힘들어서 아쉽다는 얘기다. 판매를 고려한다면 그에 걸맞는 디스플레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른바 'DP'도 마케팅 전략 속에서 전개해야 한다.

이 전시·행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이고 이는 어려운 창작여건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젊은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미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획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 선정, 작품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작가들 역시 나름의 매력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야 하며 그것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지도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행사를 기획하는 측에는 단지 작가를 선정하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작품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 의무, 또 그런 수준의 작품을 생산해내는 작가들을 더욱 엄선해서 선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단지 의도가 좋은 행사를 치르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이 신개미장터에 출품된 상당수의 작품은 아무리 소품이고 가격이 싸게 나왔다 해도 돈을 주고 살 정도의 수준인지 매우 의문이었다. 그렇다면 기획자와 작가 모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장에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은 구매자들에게 강력히 어필에서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만큼 작품 하나하나가 매력적이고 탄탄한 조형감각으로 매만져져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젊은 작가들이기에 현재 작품의 수준이 다소 미흡하기도 하고 어설픈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되기 어렵다.

우선 기획하는 측에서 미술시장, 신개미장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작가 선정에서 엄격한 심사, 선별과정을 거쳐야 했다. 가능한 작가 작업실을 방문해서 적합한 작품을 고르거나 또는 작품 이미지를 통해 선별할 수 있어야 했다. 작업실에 가서 다양한 작업들을 찾다 보면 마켓에 내놓고 싶은 작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드로잉이나 소품 또는 작가가 우연치 않게 만들어 낸 여러 흔적들을 보다 보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흥미롭고 참신해서 시장에 선보이고 싶은 소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작가의 작업실에서 그가 만들고 그려낸 모든 것들은 찬찬히 살피면서 그 안에서 흥미로운 것을 골라내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단조로운 평면작업, 뻔한 장르·기법이 아니라 참신하고 재미있는 시각 이미지를 작가의 작업실 방문을 통해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다. 좀 더 기획자의 안목, 미술장터라는 특성에 맞는 선별과 배치의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작가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작업을 성의있게, 치밀하게 다듬고 완성도를 높여서 상품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작업에 대한 고민, 방법론, 매체, 전시연출 등을 주도면밀하게 고려해서 전시장, 장터에 내놓으려는 완벽함과 자기관리가 거의 부재한 것이 아쉽다. 장터를 꾸며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장터를 장터답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가, 과연 그런 내용을 지닌 작품들을 팔겠다고 하고 있는지를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개미장터에 출품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매우 아쉬운 수준이었다.

기획: 의도는 좋으나 전시 수준이 아쉬움

운영: 디스플레이 전략이 부재함

홍보: 나름 열심히 짜인 홍보전략

박영택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뉴욕 퀸스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연수 후,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아시아프 전시총감독,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심사위원, KIAF 운영위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자문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평가위원, 아트페어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Man, 2017, acrylic on canvas, 72×53cm

강동호 *Kang Dong Ho*

학력
조선대학교 미술교육·판화미디어

주요전시
2018 카페갤러리 초대 기획전, 카페갤러리, 광주
2017 화서지몽, 이정아갤러리, 서울
2017 백일몽, 갤러리S, 광주
2017 레지던시 작가 3인전,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2016 Urban Nomad, 이정아갤러리, 서울
2016 SUV혼다 콜라보전, 혼다자동차전시관, 대구
2016 Pop to the Future, 주안갤러리, 광주
2015 IMAGINE, 갤러리S, 광주
2015 스누피 65주년 기념전시, 에비뉴엘아트홀, 서울
2014 저작걸이, 예술의 전당, 서울
2014 IMAGINE, 갤러리 이레, 파주
2014 Charity Bazaar, 스페이스K, 과천

수상
2010 코리아아트콘테스트 판화부문 수상
2005 조선대학교 백학미술상

연락처
x25mas@hanmail.net



Flamingo, 2015, acrylic on canvas, 60.6×50cm

고마음 *Ko Ma Eum*

학력
조선대학교 서양화
조선대학교 서양화 석사수료

주요전시
2017 숨은그림찾기전, 주안갤러리, 광주
2017 이달의 청년작가, 함평군립미술관, 함평
2017 탐미탐색,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
2017 봄: 마중전, 한평갤러리, 광주
2016 사유의 공간, 장덕도서관, 광주
2016 일상+공간, 소촌아트팩토리, 광주
2016 Bluewave 파란을 일으키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6 카가합동전, 515갤러리, 광주
2016 The Salon, 살롱드서리풀 갤러리, 서울
2016 Live Painting, 주안갤러리, 광주

연락처
lovedhddl@naver.com



Perfect World 1, 2017, Digital print.Diasec, 100×70cm

김명우 *Kim Myoungwoo*

학력
조선대학교 판화미디어
중앙대학교 예술공학 석사졸업
국민대학교 입체미술 재학

주요전시
2018 무등에 드영 피어나다, 드영미술관, 광주
2017 노마진, 롯데갤러리, 광주
2017 KOSMA 한국영상학회 국제교류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7 아트광주 청년작가전,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2017 청년의 서, 광주시립 사진전시관, 광주
2017 호남의 현역작가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6 일상+공간, 소촌아트팩토리, 광주
2016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광주
2016 미디어 스토리,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5 R U Like, Tanahindi Gallery, 마카사르
2015 현재완료 스펙트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광주

연락처
justmyfantasy@hanmail.net



골목탐험 ***Explore the alleyway***, 2012, 디지털 프린트, 36.5×46.5cm

김승택 *Kim Seung Taek*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우리 동네 겨울 이야기, 롯데갤러리, 광주
2017 릴레이 개인전, 아트폴리곤, 광주
2017 발길 가는대로 거닐다, KSD갤러리, 서울
2017 드로잉 라이프, 구리아트홀, 구리
2017 ACC 창작공간네트워크, ACC 문화창조원 복합2관, 광주
2016 Records, 도 아트컴퍼니, 서울
2016 아트로드77, 헤이리 커뮤니티하우스, 파주
2016 캔아트 셀렉션, 스페이스 캔, 서울
2015 심상지도, 스칼라티움 아트스페이스, 서울
2015 Seoul in Seoul, 서울시청, 서울
2015 예술가의 시선–첫 번째 이야기:도시, 메이크샵 아트스페이스, 파주
2015 닻의 아카이브, 보안여관, 서울

수상
2007 입선, HP Turn On Award

레지던시
2017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2013 경기창작센터 기획스튜디오
2012 경기문화재단 국제교류협력사업 뉴칼레도니아 해외 레지던시
2012 경기창작센터

연락처
suntagu@naver.com



그림자 산수–욕지도 #1, 2018, Pigment print, 40×60cm



bad goldy, 2018, acrylic on canvas, 72×72cm

김영태 *Kim Young Tae*

학력
전남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그림자 산수, 전라남도 옥과미술관, 곡성
2018 풍경사이, 광주시립 사진전시관, 광주
2017 제주비엔날레: 투어리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6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6 중국 국제사진 아트페스티벌, 허난아트센터, 정저우
2015 시간의 그림자, FNAC갤러리, 프랑스
2015 Art Hamptons Art Fair, 뉴욕
2015 남도미술 200년_탄생과 열려진 지평,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수상
2013 하정웅 청년작가상
2001 신세계미술상

레지던시
2015 대동문화재단 아시아문화예술인 레지던시
2015 예술골목 계림창작촌 레지던시
2010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2009 대동문화재단 아시아문화예술인 레지던시

작품소장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신세계백화점, 국립현대미술관, 전라남도도청

연락처
somkim21@hanmail.net

류금상 *GOLD1*

학력
조선이공대학교 디자인

주요전시
2017 그래피티 스토리지, 담빛예술창고, 담양
2017 BAD BOY,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스 지음, 광주
2016 UNIQUE, 무등갤러리, 광주
2016 POP to the Future, 주안미술관, 광주
2016 인간+자연, 린 갤러리, 여수
2016 비보이 그랑프리 그래피티 라이브 페인팅, 전주
2016 선으로 말하는 세상, 백민미술관, 보성
2016 라이브 페인팅, 주안미술관, 광주

연락처
rgs822@naver.com



***Dream-gaze into the distance* 꿈-먼 곳을 응시하다**, 2016, Canvas on Acrylic, 41×31.8cm

박정일 *Park Jeong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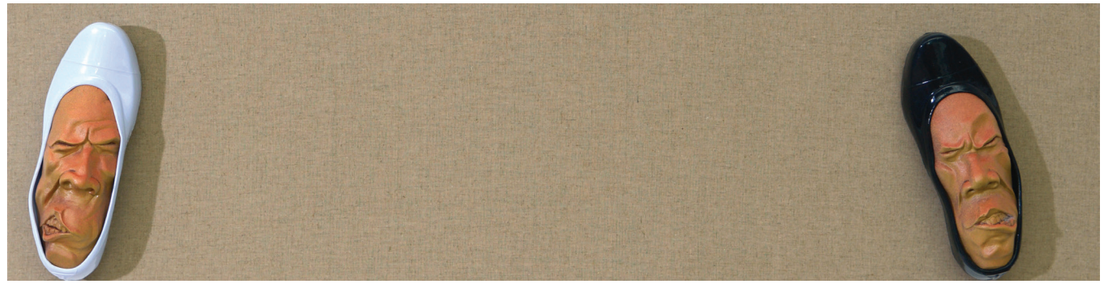
학력
조선대학교 순수미술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다므기, 광주시립 하정웅미술관, 광주
2018 화양연화(花樣年華), 조선대학교미술관, 광주
2017 마음속에 그리다, 리채갤러리/순간갤러리, 광주
2016 꿈(Dream)–마음속에 그리다, 라본갤러리/한평갤러리/갤러리엠파씨, 광주
2015 꿈(Dream)–마음속에 그리다, 두 번째 이야기,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광주
2014 꿈(Dream)–마음속에 그리다, DS갤러리/장덕도서관/광주수완병원, 광주
2008 DREAM·MESSAGE, 일곡갤러리, 광주
2005 DREAM·MESSAGE, 메트로갤러리, 광주

레지던시
2018 소촌아트팩토리 레지던시

작품소장
광주시립미술관

연락처
jungilpa0920@naver.com



Rubber shoes-tug of war, 2014, 혼합재료, 30×100cm

백상옥 *Baek Sang Ok*

학력
조선대학교 미술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한전 KDN갤러리 개관전, 한전 KDN갤러리, 나주
2017 노마진(Noma+jean), 롯데갤러리, 광주
2017 남도미술은행 임대전시, 동학혁명박물관, 장흥
2017 갤러리 미담 초대전, 갤러리 미담, 안양
2017 영암월출미술인회 전시, G&J갤러리, 서울
2016 아듀! 2016 송별특별전, 우제길미술관, 광주
2009–2014 Human in the society, 금호갤러리/지미갤러리/갤러리D, 광주

레지던시
2017 전남 소소미술관 레지던시

작품소장
광주시립미술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미술관

연락처
20004841@naver.com



관심, 2018, woodcut, 60×60cm

손연우 *Son Yeon Woo*

학력
조선대학교 현대조형미디어

주요전시
2018 純粹失調 순수실조), 리채갤러리, 광주
2017 노마진(Noma+jean), 롯데갤러리, 광주
2015 빛으로 만나는 예쁜 세상,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광주
2013 한중 연합 기획_길 위의 여정, 갤러리 생각상자, 광주
2013 Korean Painting & Print, 에꼴드팡세, 광주
2013 The 44th Yokosuka Peace Exhibition of Art, 요코스카

수상
2013 The 44th Yokosuka Peace Exhibition of Art 수상
2013 특선, 광주광역시미술대전 판화부문
2013 입선,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영상부문
2012 입선, 광주광역시미술대전 판화부문

연락처
92-11@naver.com



별이 빛나는 밤, 2017, 골판지, 유채 45×53cm

양나희 *Yang Nahee*

학력
호남대학교 미술
전남대학교 미술 석사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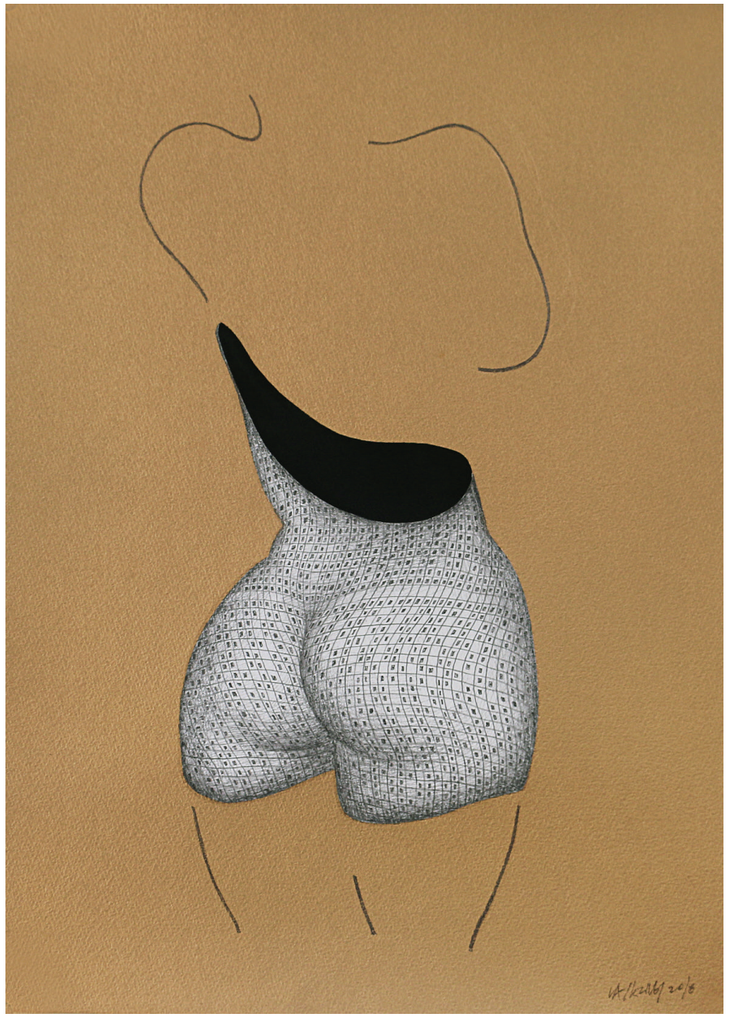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8 바람이 분다, 씨떼데자르, 파리
2018 반짝반짝 고물상, 기당미술관, 제주
2017 아시아의 도시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7 서울국제아트쇼, 라메르갤러리, 서울
2017 아시아프, DDP, 서울
2016 한국&대만 현대미술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6 Asia Contemporary Art Show HK, 콘라드호텔, 홍콩
2016 상하이아트페어, 상하이

수상
2018 선정작가상, 남도문화재단 청년작가공모전
2016 대상, 지노갤러리 공모전
2016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2012 대상, 남농미술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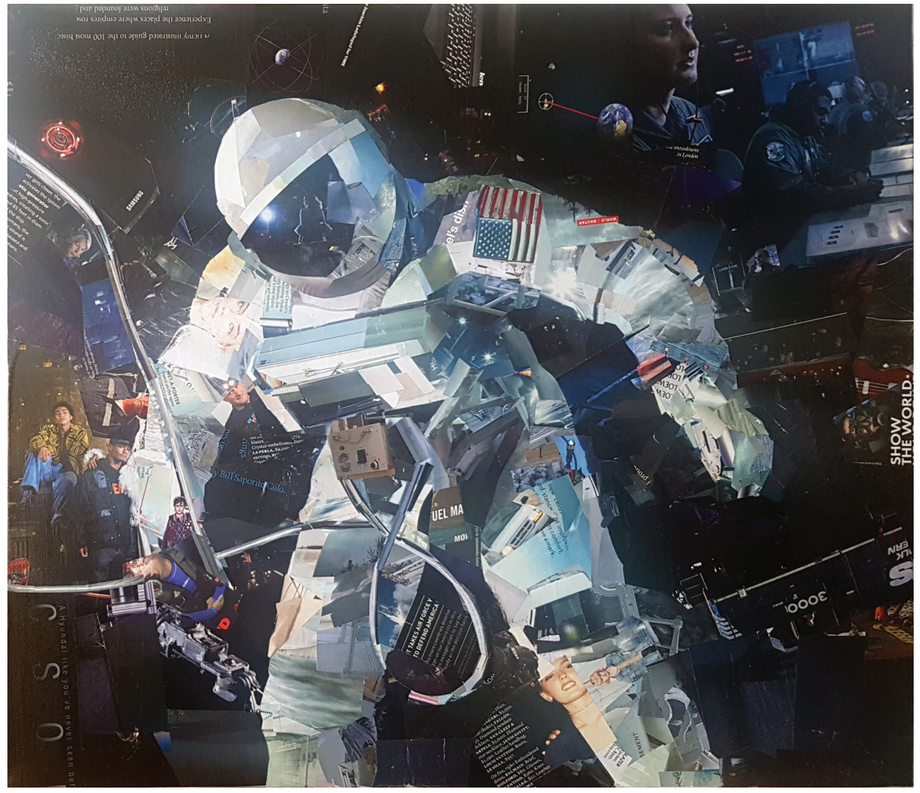
레지던시
2017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2016 윤아르떼 상하이 레지던시
2015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작품소장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이노비즈센터, 국립현대미술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연락처
yangna2320@hanmail.net



New City–Torso 26, 2018, Mixed media on paper, 43×31cm



Pioneer, 2018, Collageon canvas, 80×117cm

엄기준 *Um Ki June*

학력
조선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관계.도시 Relational City, 유우갤러리, 베이징
2018 북경질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7 New City Build,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7 Hi Art Young artist Festival, 롱미술관, 상하이
2017 8000°C, C+ space, 베이징
2017 친구, 안녕?,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베이징
2017 TONG, 여수국제박람회. 여수
2017 Interesting, 이디엔갤러리, 베이징
2017 환상의 세계 곧 현실의 세계, 천 갤러리, 베이징
2015 Drift Island, 지노갤러리, 광주
2015 플라스틱 유랑섬,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2014 If and Somewhere, 로터스갤러리, 광주
2013 Love Earth Diary of Sea,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광주

수상
2015 신진작가상, 광주신세계미술제
2014 대상,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양화부문
2012 대상, 무등미술대전 양화부문

연락처
vatking@naver.com

최요안 *Choe Yo An*

학력
전남대학교 서양화
전남대학교 서양화 석사수료

주요전시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회화는 무얼 먹고 사나요, 산수미술관, 광주
2017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여수엑스포전시장, 여수
2016 순천만 국제환경미술제,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
2015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빛2015,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4 민주·인권·평화–오월의 파랑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3 더는 맛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신세계갤러리, 광주

수상
2010 대상, 전라남도미술대전
2009 최우수상, 남농미술대전
2009 대상, 순천미술대전
2007 대동미술상
2005 최우수상, 전국온고을미술대전

레지던시
2010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2기
2009 광주시립미술관 팔각정창작스튜디오 6기

연락처
instargram.com/choe_yoan

2018.11.2.—11.11.
행화탕 외 1곳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9길 12

2018.11.16.—11.25.
서대문여관 외 2곳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3

블라인드 포스터전 2018 & 서대문여관 아트페어



(주)세븐픽쳐스
website 7pictures.co.kr
facebook /seodaemooninn
instagram @7pictures__





블라인드 포스터전 & 서대문여관아트페어: 뜨거운 열기를 함축한 스튜디오 연출과 새로운 작품 판매 가능성을 보여주다

박영택(경기대학교 교수)

11월 21일 수요일 12시에 서대문여관에서 열리고 있는 서대문여관아트페어와 블라인드 포스터전을 관람했다. 이 전시는 주민들의 기억을 담은 서대문여관, 아현동의 행화탕, 그리고 여관 앞 돈의문 2층 세 채에서 열렸다. 동시에 작은 전시인《33.3 큐브》가 함께 했다.

서대문여관아트페어는 작가 두 명(권민우, 정치구)이 서대문여관 공간을 보던 중 스스로 호텔이 아닌 '관급' 작가라며 "서대문여관이라는 공간과 우리의 처지가 닮았"다는 농담을 나눈 것에서 시작된 기획이라고 한다. 주최측은 여관의 여러 작은 방·공간에서 나름 '비상'을 꿈꾸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독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작가들과 함께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작가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 운영, 진행해 기존 아트페어와 차이가 있으며 작은 여관방 하나를 자신의 작업실로 내보이는 듯한 일종의 오픈 스튜디오를 콘셉트로 했다.

그러니까 서대문여관아트페어는 여관의 작은 방을 하나씩 분배해서 이를 자신의 작업실로 내보이는 일종의 오픈 스튜디오였다. (행화탕에서의 전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소 어설프고 생경하지만 비교적 의욕이 넘치고 자의식이 강한 젊은 작가들이 참가해 자신의 작업실을 힘껏 차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설프고 과잉된 감정이 흥건하며 재료를 다루는 기본적인 소양이 무척 부족한 작업들이었다. 젊은 작가들이기에 당연한 것 같지만 향후 프로작가가 되고자 한다면 이는 지금부터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다. 좀 더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아트페어 주최측에서 어떤 기준으로 작가를 선별하고 있는지, 작업의 질에 대한 논의와 모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트페어이기에 작가들의 작품이 판매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작품의 완성도, 질 등이 비교적 확고한 작업·작가들을 엄선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기준에 무척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여관의 각 방들을 작가별 스튜디오로 만든 아이디어는 흥미로운 편인데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시와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전략이 아쉬웠다. 이는 물론 개별 부스, 방을 책임져야 하는 작가들의 몫이긴 하겠지만 최소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튜디오 꾸밈에 있어서의 전략이 있어야 했다. 다소 산만하고 난잡하다.

주최측은 기존의 페어와 대비되기보다는 서대문여관아트페어 자체를 '포맷화'시켜 더 많은 지역과 무대에서 작가들이 조명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서대문여관아트페어'는 '성수동 구두공장 아트페어'가 될 수도, '리버풀 보리창고 아트페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의 기억이 담긴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페어로 자리잡으려 하며, 참여하는 작가들을 할당된 공간 내에 자유롭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이들의 방향은 그 공간들에 담론과 이야기를 매끄럽게 엮고 담아 관람객에게 하나의 큰 전시로 들려주는 것이다. 그곳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이 또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음 전시를 조금 더 큰 다른 지역의 기억이 담긴 공간(예를 들어 '성수 자동차공장 아트페어' 같은)으로 실험하고 몇 해 안에 해외의 유관기관이나 예술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해나가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는 행화탕(아현동 목욕탕), S팩토리(성수동 자동차공장) 등 기억이 담긴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들과 긴밀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또 이미 세간의 인정을 받은 작가들과 실력은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적절하게 섞어 동행하고자 한다고도 한다. 이들은 향후 자신의 키워드, 자신이 찾고 있는 것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서로 연결하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어가려 하며, 그 안에서 전시가 만들어지고 프로젝트가 생기면 다음 전시에 더 성장한 작가들과 함께하려는 것이다.

블라인드 포스터전의 경우는 '타이포그라피





분야에서 스승과 제자의 격차가 큰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포스터는 어떤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이후 뱅크시가 길거리에서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의 작품을 60달러에 판매했던 사례를 떠올려 100여 명의 작가들이 얼굴을 가린 채 진행하는 블라인드 포스터전을 기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포스터전은 비교적 흥미로웠다. 작업들이 썩 매력적이거나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아이디어가 재미있고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장치도 좋았다. 포스터가 아트상품 혹은 작업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작가명과 작품가격이 명시되지 않는 온라인 포스터 전시·장터라는 점, 오로지 포스터만으로 선입견 없이 전시를 감상하도록 한 점은 좋았다. 미공개 작품이며 참여하는 작품 모두 지정된 크기와 재질로 제작되어 모든 포스터의 가격이 동일(7,000원)하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100명이나 참여한 것도 대단한 규모이고 관객들이 각각 마음에 드는 포스터 번호를 체크해서 포스터를 구입하도록 한 것도 좋은 발상이다. 작가들이 작업한 이번 포스터의 주제는 '자아'였는데 나로서는 특별히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작가들이 좀 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테마를 선택해서 작업하도록 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다.

서대문여관아트페어와 블라인드 포스터전은 분명 젊은 작가들의 열기와 의욕, 그리고 분방한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아트페어였다. 작품들이 미숙하고 난잡하며 스튜디오 설치, 작품의 제시 등에서 두서없게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모종의 뜨거움은 희망적이었다. 주최측에서 앞서 거론한 아쉬움을 좀 더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며 작가인선과 전시장 설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상대적으로 블라인드 포스터전은 훨씬 가능성이 커보였다. 손쉽게, 저렴하게 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으며 관람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즐거운 체험을 안겨준 것도 좋은 전략이었다고 본다. 그래도 역시 작품의 질이 아쉬웠다. 좀 더 좋은 작품을 들고 나와야 전시·아트페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관객·콜렉터의 동원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라도 더욱 작품의 질, 완성도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아현동 목욕탕 행화탕에서 진행했던 첫번째 블라인드 포스터전에서는 3일간 2,000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방문했다고 한다. 올해는 두 전시를 함께 진행했는데 80명의 미술작가들의 작업실을 보여준 서대문여관아트페어와 이름을 가린 100여 명의 디자이너의 포스터 전시·장터였던 블라인드 포스터전이 그것이다. 이 두 전시는 고유의 포맷을 유지하여 진행하되 두 장르(미술과 디자인—시각예술)의 혼합·변주로, 참여자와 관람객 모두 즐길 수 있고 의미있는 실험을 시도하는 시각예술 축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향후 이들의 목표, 희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기를 바란다.

기획: 신진작가들의 활기찬 스튜디오 연출 및 저렴한 포스터전시, 관람객의 흥미로운 참여를 유도한 기획은 의미 있다

운영: 각 방마다 설치된 작업실 연출을 좀 더 흥미롭고 밀도있게 했어야 하며 작품의 질이 대부분 아쉽다

홍보: 홍보는 무난했으나 결국 판매는 힘든 영역이라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박영택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뉴욕 퀸스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연수 후,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아시아프 전시총감독,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심사위원, KIAF 운영위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자문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평가위원, 아트페어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울림2, 2018, 혼합재료, 가변설치



바이시클맨2, 2018, 혼합재료, 60×55×16



Monologue Landscapes, 2017,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93.9×259cm

권민우 *Gwon Minu*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

주요전시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서대문여관, 서울
2018 유니온아트페어, S-Factory, 서울
2018 공사중 미완성의 완성전, 구루지, 서울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서대문여관, 서울
2018 플레이스 캠프 제주 Art-236, 플레이스캠프, 제주
2017 The Bicycle Man, 인문예술공간 순화동천, 서울
2017 인간관계(A human relationship), 선광미술관, 인천
2017 인천국제아트페어, 인천문예회관, 인천
2016 One for all, Gallery artbn, 서울
2015 송도 그린컬처 페스티벌, 송도센트럴파크, 인천

연락처
returnto1@naver.com

박지수 *Park jisu*

학력
건국대학교 회화
건국대학교 회화 석사수료

주요전시
2019 Retrace with drawing_Back to Basic, 갤러리 엘르, 서울
2019 For Your Turn, 갤러리 엘르, 서울
2018 Empty Landscapes, 류미재 아트파크, 양평
2018 혼자 가는 먼 집, 갤러리 도스, 서울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서대문여관, 서울
2018 매우 사적인 풍경, 아터테인 스테이지, 서울
2018 생동하다, 봄, 봄파머스가든 갤러리, 양평
2017 바람이 분다,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15 청년작가 단체 기획전, 톨레랑스 갤러리, 대구
2015 Let's bloom, 한가람 아트갤러리, 서울
2015 새벽현상, 갤러리 연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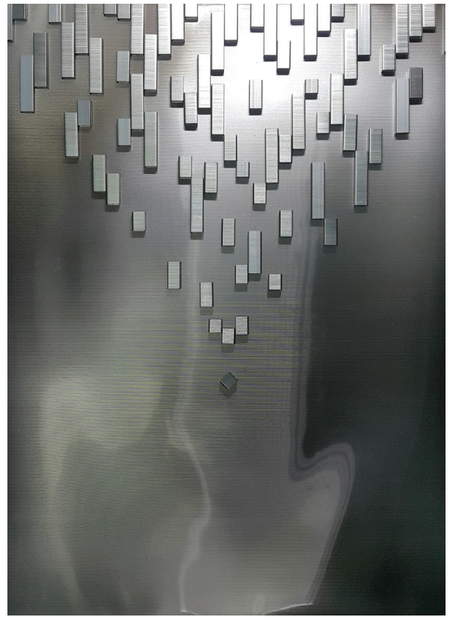
수상
2019 우수상, 뉴 디스코스 선정작가
2018 장관상, 외교부 주최 청년작가 한국화공모전

작품소장
외교부, 우란문화재단

연락처
instagram.com/pjisu_art
ppjisue0812@gmail.com



Who Cares, 2016, 유리슬럼핑, 설치



Rest, 2018, Mixed media, 76×52cm



Finally, 2018, Mixed media, 74×55cm

손희민 *Son Huimin*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서대문여관, 서울
2018 The Life Art Fair, 스튜디오 별채, 서울
2014 세 개의 풍경_탈출과 변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수상
2014 입선, 정림학생건축상

연락처
sonnnim.tumblr.com
heemin.art@gmail.com

신소라 *Shin So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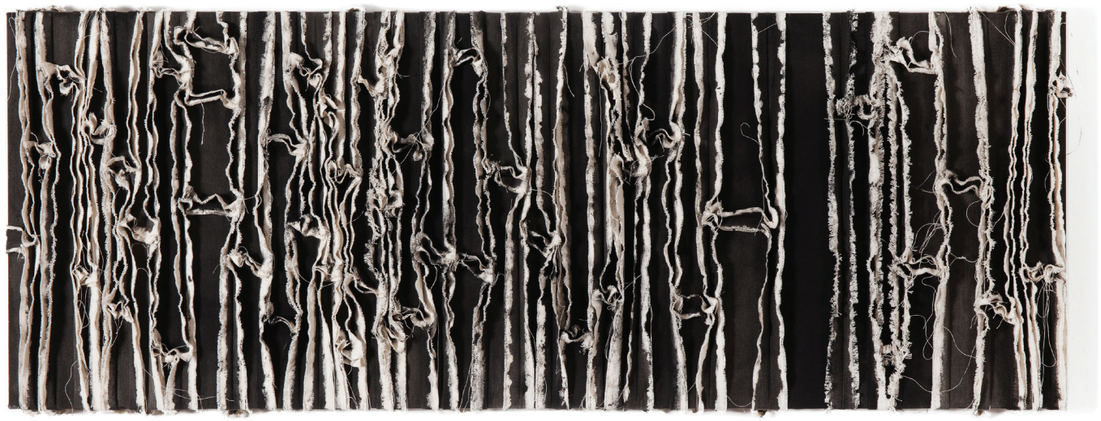
학력
건국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

주요전시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서대문여관, 서울
2018 버질아메리카전, 인사아트프라자, 서울
2018 DMZ 아트&디자인 국제초대전, 오두산통일전망대 기획전시실, 파주
2018 씨올회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8 JEJU INSIDE-LIGHT, 플레이스캠프, 제주
2017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 콘래드호텔, 홍콩
2017 KPAM 대한민국미술제,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7 아름다운 우리섬 독도,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서울
2017 서울국제아트쇼, 라메르갤러리, 서울

수상
2018 동상, 아트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ART-236
2017 평론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비구상부문
2017 특선,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2017 특선,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
2015–2016 대상,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

작품소장
우란문화재단, 인사문화연구원

연락처
littledavinci@nate.com



Rope, 2016, 재단한 캔버스에 아크릴 , 60×162.2cm



나열된 조각들, 2016, 재단한 캔버스, 혼합재료, 45×90cm



Save as–Collection no.1, 2013, Oil on Canvas, 30.3×193.01cm

이민경 *Lee Mingyeong*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패션디자인
홍익대학교 회화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서대문여관, 서울
2015 성남청년작가: 블루 in 성남, 성남아트센터 반달갤러리, 성남
2011 The Blank, 키미아트, 서울
2011 예술이 찾은 수도원 전, 양화진갤러리, 서울
2011 Art to Design,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0 장흥아트마켓 쨈, 장흥아트파크, 장흥
2009–2010 아트서울,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9 ASYAAF, 옛 기무사, 서울
2006 PAG(Potential Artist Group) 은닉된 에네르기, 경향갤러리, 서울

작품소장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연락처
19coma@hanmail.net

이빛나 *Lee Bitna*

학력
국민대학교 회화
홍익대학교 회화 석사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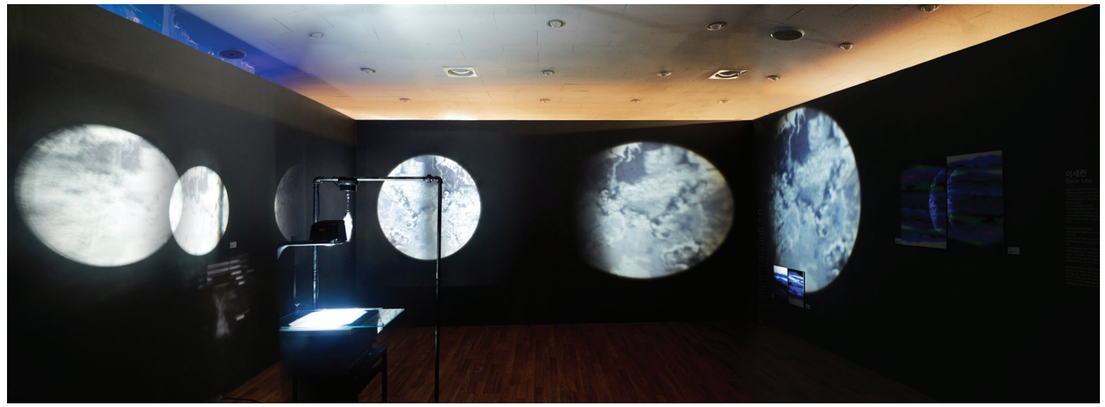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8 Pick me, Pick me up, 예술반점 길림성, 인천/팔레드서울, 서울
2018 바로그전시, 인천아트플랫폼 칠통마당, 인천
2018 공사중, 구루지, 서울
2018 도시이면,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2018 SEAMLESS, 스페이스 캔, 서울
2018 안국약품 12인 신진작가 심사전, 갤러리AG, 서울
2018 욕망과 대리만족의 상관관계, 캔파운데이션, 서울
2018 Hong Kong Chriestie's Special Preview, 스페이스XX, 서울
2017 Save as 'Save as, 갤러리 탐, 서울
2017 제주비엔날레 조경프로젝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수상
2015 입선,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국제공모전

레지던시
2018 마리몬드 캔파운데이션

작품소장
갤러리 탐

연락처
welcomebitna1@hanmail.net



달의조각, 2017, Map, Mirror, Overhead projector, Motor, 가변설치



달의조각, 2017, Map, Mirror, Overhead projector, Motor, 가변설치

이세린 *Lee Serin*

학력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 블라인드포스터전, 행화탕, 서울
2018 부평영아티스트 4기 선정작가전,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인천
2018 비움.나눔 페스티벌,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광주
2018 공사중, 구루지, 서울
2018 공존_매체의 확장, 유리섬박물관, 안산
2018 After-image, 갤러리 다함, 안산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서대문여관, 서울
2018 ART236 아트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플레이스캠프, 제주
2017 빛의 시간, 시간의 색, 색의 온도, 팔레 드 서울, 서울
2017 오로라존, 광명시민회관전시실, 광명

수상
2018 동상, ART236 플레이스캠프 제주 아트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레지던시
2017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창작스튜디오

연락처
serinjjang@hanmail.net



Stone, 2018, Mixed media, 167×120×75cm

이태수 *Lee Taesu*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 학·석사

주요전시
2018 세운, 예술가의 실험실, 스페이스 바421, 서울
2018 이태수 개인전, 갤러리 구피, 서울
2018 김선혁·이태수 2인전, 블랙스톤갤러리, 이천
2018 프레임을 넘어서, 지혜의 숲, 파주
2018 국제조각 심포지엄 특별전, 이천아트홀 아트갤러리, 이천
2018 십전십미(十全十美) 한중현대조각 교류전, 항저우
2018 Secret salon, 갤러리 원, 서울
2018 개관기념전, 갤러리 구피, 서울
2017 Vanishing poin, 스페이스 선+, 서울
2017 메멘토 모리, 쿤스트원, 서울
2017 Art N Work_Culture & Art Project, SJ 쿤스트할레, 서울
2017 모던보이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예술통 남학당, 서울
2017 기, 물질과 생명, 중랑아트센터, 서울

수상
2018 대상, 국제조각 페스타

레지던시
2019 장흥조각아뜰리에

작품소장
LH 대구 신서지구/ 대전 노은3지구/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세종시 정부청사, 전주무형유산원, ㈜부영주택 남양주/춘천

연락처
oiehat@naver.com



유방랜드, 2018, 복합, 가변크기



Restoration-Kosmoceras, 2016, 한지에 먹, 47×38×14cm



잃어버린 고리 ***Missing Link–deep sea organism***, 2017, 산호사, 레진, 가변설치

임정서 *Lim Jeongseo*

학력
오클랜드 공과대학교 그래픽디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멀티미디어영상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유방랜드, 유방속으로, 기획·연출
2018 공존, 인디아트홀 공, 서울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 블라인드포스터, 서대문여관, 서울
2018 APOR House_새는 빛, 곡식창고, 세종
2017–2018 생체실험실, 기획·연출
2017 발전적 관계, 인디아트홀 공, 서울
2016 절대 영화 재생기, 기획·연출
2016 태어나다, 살다, 죽다 그리고 사이, 갤러리175, 서울
2016 리사이클 아트, 춘천마임축제, 춘천
2014–2015 Thirty, A Moving Image Exhibition, Nag Taonga Sound & Vision, 웰링턴
2014–2015 The Film Archive's View Finder, Auckland Central Library, 오클랜드
2014 Home Stories, KAPU, 린츠

수상
2018 신진여성문화인상, 여성신문
2014 블루리본상, 충무로단편영화제

연락처
www.jungsuhsuelim.com
hisuehowru@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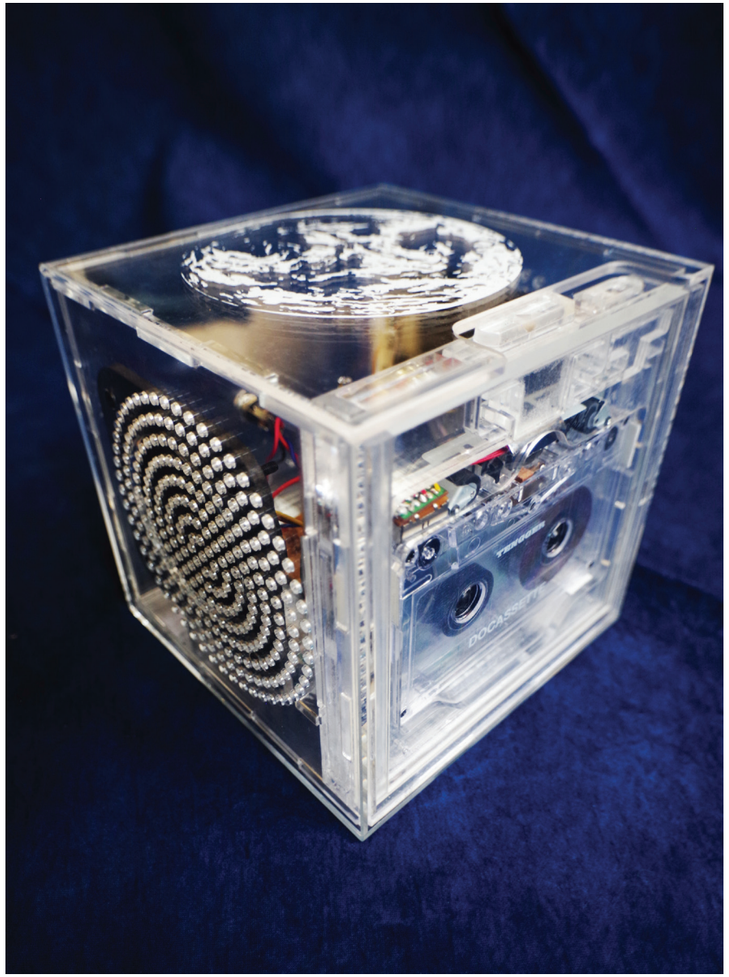
정상수 *Jeong Sangsu*

학력
동아대학교 조각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5,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행화탕/서대문여관, 서울
2018 예술을 품다, 예끼마을갤러리, 안동
2018 포항국제 아트페스티벌_5.4 포항의 빛, 포항문화예술회관, 포항
2017 H2O_물 위의 블랙스완, 서울혁신파크, 서울
2017 나의 초상, 문신미술관, 서울
2017 진화, 우연한 변화의 시작, 문신미술관, 서울
2016 되살아난 기억, 사이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6 적정예술은 즐겁다, KIST KI빌딩, 대전
2016 만보객의 서울유랑,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
2015 국제아트비엔날레_FRESH WINDS, 가르두르
2015 잃어버린 고리_심해 생명체 II, 팔레 드 서울, 서울
2015 잃어버린 고리_심해 생명체 I, 스페이스 선+, 서울

수상
2016 최우수상, 아트팹랩 챌린지 키덜트 랜드원

연락처
jeongsangsoo.com
discoveryjss@gmail.com



DOCASSETTE, 2017, 아크릴 레이저 커팅 입체 조형, 카세트플레이어, 카세트테잎, 실크스크린, Tape music studio recording, Field recording sound art, 13.6×13.6×13.6cm

텐거 *Teng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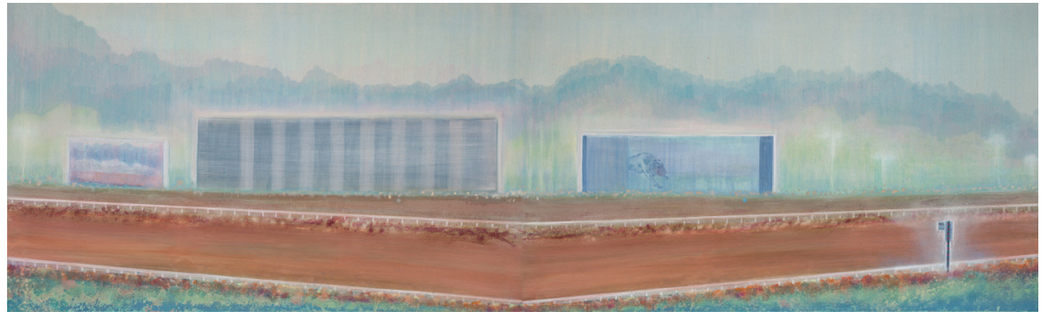
학력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주요전시
2018 Pilgrim Progress, Kneet Gallery, 서울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서대문여관, 서울
2017 Docassette Exhibition_Slow Slow Quick Quick, 세운상가, 서울
2016 비둘기 오디오 비디오 페스티벌_음악과 순례, 세운상가, 서울
2016 Other Worlds Festival_Tenggerland, 블랙풀
2016 WSK Festival_Spiritual Travellers, 마닐라
2015 Minishiko, Yogiga gallery, 서울
2015 Kumakogen Project, ArtCOP21, 파리
2014 빛관음, 문화역서울284, 서울
2014 복관음, Salt Art Gallery, 광주
2014 함창감음, 함창 예고을 마을미술프로젝트, 상주
2011 Natureplex, Gaite Lyrique Opening Festival, 파리
2010–2011 Natureplex, TamtamART, 베를린/ 간드락소극장, 제주

수상
2009 젊은 예술가상, 홍대 앞 예술상

레지던시
2010 AGIT
2008 Beijing Shangyuan Art Museum Artist in Residency

연락처
tengger.net
txnxgxr@gmail.com



Race Ground, 2016, Oil on Canvas,,97×324.4cm



Hound Racing, 2016, Oil on Canvas, 40×240cm

표영은 *Pyo Young Eun*

학력
단국대학교 서양화
홍익대학교 회화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Pecha Cucha Link up Project3, 행화탕, 서울
2018 서대문여관아트페어, 서대문여관, 서울
2018 산책자, 수색지구_재개발 6구역, 서울
2016 GIAF 아시아청년미술대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6 서울모던아트쇼,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16 내가 보는 공간, UHM갤러리, 서울
2015 LTE 전, 갤러리 툰, 춘천
2015 GPS_Fine Start,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09 중앙미술대전, 한가람 미술관, 서울

연락처
youngeun_pyo@naver.com

2018.10.11.—10.14.
코엑스 어반 파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2018.10.18.—10.21. / 10.25—10.28.
광주 GD폴리
광주시 동구 제봉로82번길 26

집기류(輯技類)



플리마코 협동조합
website flrymarco.com
facebook /flrymarco
instagram @flrymarco





집기류(輯技類):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백기영(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올해로 네 번째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필자는 수도권 중심의 작가미술장터만 보아왔던 터라, 이번 집기류(輯技類, 모을 집·재주 기·무리 류/Zip-kki-lieu, 이하 집기류)의 작가미술장터가 어떨지 매우 궁금했다. 광주의 청년단체 플리마코 협동조합이 기획한 작가미술장터 집기류의 1차 행사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 어반 파크에서 열렸는데, 비교적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엑스 인근을 지나는 많은 관람객들이 작가들의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광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플리마코 협동조합이 광주의 지역작가들, 그리고 서울에서 초대한 작가들과 함께 작가미술장터를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이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미술장터가 수도권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미술유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한 취지를 따른 것이다. 집기류의 미술장터 이외에도 최근에 이와 유사한 예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장터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예술가들도 이미 자신이 개발한 상품들을 여러 다른 장터에서 판매한 경험이 있었다. 서울 지역 참여자들은 체계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이를 발전시켜 나갈 전략을 가지고 마켓에 임하고 있었다. 플리마코 협동조합은 이를 의식했는지, 전체 미술장터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전체 부스를 통일성 있게 디자인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서로 즐겁게 마켓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아무래도 서울지역 참여자들과 광주에서 올라온 참여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는데, 마켓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중앙 무대에서는 정기적으로 기획된 공연이 진행되었고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는 참여작가 대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광주 지역 참여자들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소품 작업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거나 전통적인 갤러리 및 아트페어와 같은 미술시장을 목표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았고, 이번 작가미술장터에는 대중 취향의 그림들과 저가 미술작품을 들고 나와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전체 부스를 채우고 있는 각 참여자들의 예술작품 혹은 캐릭터 상품, 일러스트 작품들이 각 참여자들이 살고 있는 작은 우주처럼 독립되어 있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친절하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퍼포먼스이자 역할극처럼 보였다. 3일 동안 벌어지는 작가미술장터가 하나의 퍼포먼스와 같은 과정극으로 잘 설계될 필요가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단지 퍼포먼스를 판매한다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작가미술장터에 등장한 퍼폼 등의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가미술장터에는 판매행위와 매개행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각 부스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판매행위에 몰입하는 판매자인 동시에 전체 미술장터라는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이기도 했다.

이 작가미술장터를 축제처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공연이었다. 이 공연 무대 주변으로 푸드트럭이 여러 대 자리하고 있었는데, 저녁시간에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공연과 부스 참여자들이 서로 호응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은 아쉬웠다.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또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두 차례에 걸쳐서 집기류의 광주 프로그램이 광주비엔날레 GD폴리 인근에서 펼쳐졌다. 광주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었지만 서울에 비해 참여자들이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함께했던 참여자들 없이 광주의 참여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참여작품들도 다양하지 않았다. 서울 장터에도 참여했던 참여자와 인터뷰를 나누어보니 이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주말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은 이와 같은 벼룩시장 행사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국고로 작가미술장터를 지원하는
이유는 주말 벼룩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장터의 활성화에 있을 터인데, 길거리로 나온
미술장터가 광주시민들에게는 아직 좀 생소해 보였다.

서울의 작가미술장터가 다양한 예술가들이
연계해 다양한 공간에서 주제·기획을 가지고 진화해 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집기류의 미술장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술가들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했다.
미술생산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 그리고 이들이
미술을 매개하는 방식, 또 매개행위가 판매로 이어지는
유통의 순환구조를 진단하는 통찰력있는 기획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 예술가들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이들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공간과 과정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 미술장터는 저가 미술품의 길거리 판매를
위한 지원사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기획: 회화, 일러스트, 시각디자인
등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청년예술가들의 작가미술장터로,
기존의 플리마켓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부족했다**

**운영: 전체적인 운영이 안정적이었고
참여작가들을 위해 편안한 부스와 부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홍보: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다보니 서울 행사에는 코엑스에
오는 관람객들이 주를 이루었다.
광주 내에서는 지역적 성격상
작가미술장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했다**

백기영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독일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영상미디어를 전공했다. (사)미술인회의
사무처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다원예술 소위원을 거쳐
의재창작스튜디오 및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의 디렉터를 역임했다.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 그리고 북부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환경과 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다.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계림동재개발 *blue*, 2018, Acrylic on Canvas, 91×116.8cm



꽃은 피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1, 2016, Acrylic on Canvas, 53×45cm

강선호 *Kang Seonho*

학력
전남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순환(cycle), 한평갤러리, 광주
2018 서창을 그리다, 목담미술관, 광주
2016 블룸_美, 한국미용박물관, 광주
2014 비선형(nonlinear), 경복문화원, 광주
2010 예술가 성촌에 둥지틀다,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2010 광주비엔날레: 만인보-Overplus 프로젝트, 광주

연락처
blog.naver.com/drowsingboy
drowsingboy@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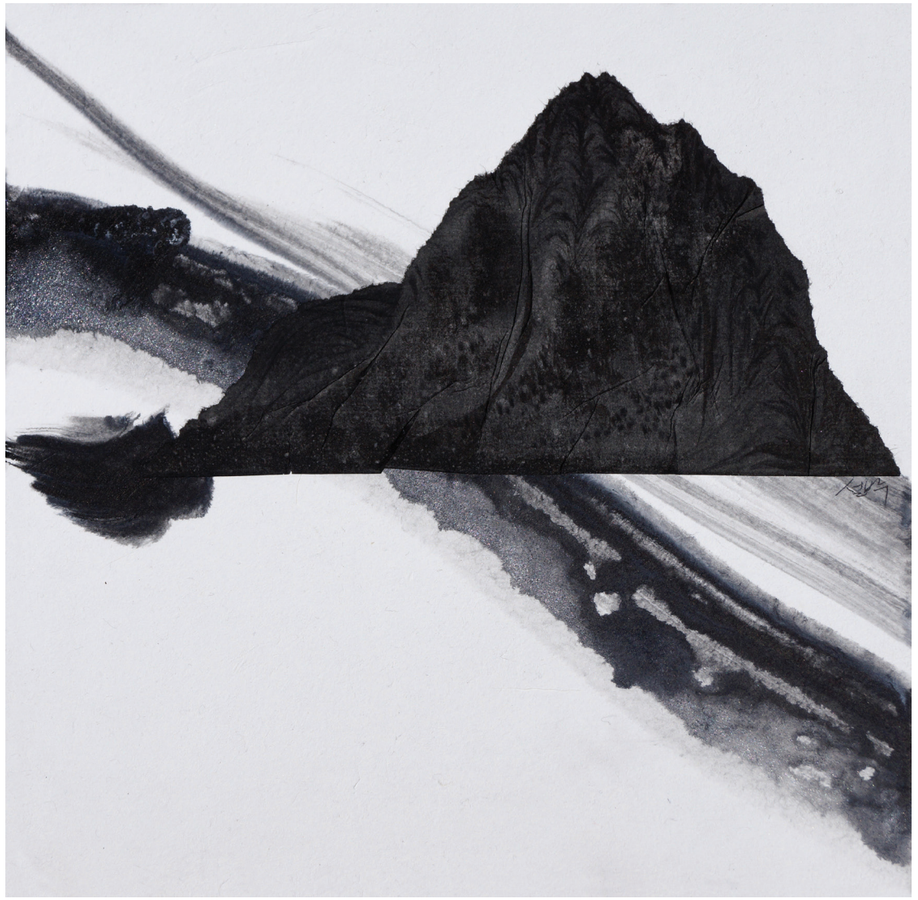
노여운 *Noh Yeoun*

학력
전남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우리 동네 겨울 이야기, 롯데갤러리, 광주
2018 시작은 시작입니다, 산수미술관, 광주
2017 눈속임과 은유 사이에서, 목담미술관, 광주
2015-2017 아시아프 , 문화역서울284/DDP, 서울
2017 시간+관계=우리, 다산미술관, 화순
2017 머무르다, 백희갤러리, 전주
2016 꽃은 피어난 것만으로 충분하다, 갤러리 리채, 광주
2016 쉼, 쉬어가다,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6 담빛 미래를 열다, 담빛예술창고, 담양
2016 여섯개의 시선 CUBE,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
2014 흘러가다, 로터스갤러리, 광주
2013 남겨지다, 그리다갤러리, 서울

수상
2014 신진작가상, 광주신세계미술제
2014 어등미술상, 어등미술제
2009 대상, 무등미술대전

연락처
fox1647@hanmail.net



부유하는 섬, 2018, 화선지에 먹 콜라주, 20×20cm

박설 *Park Sul*

학력
전남대학교 한국화

주요전시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2018 흑백의 시간, 소다미술관, 화성
2017 호남의 현역 작가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7 The 1st Shanghai International Paper Art Exhibition, Fengxian Library, 상하이|2016 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 광주
2016 수묵미학, 한원미술관, 서울
2016 청년미술프로젝트 YAP'16, EXCO, 대구
2016 북경질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5 Summer Love,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수상
2016 동상, 상하이국제인쇄주간 특별전
2012 영은미술관 영아티스트

레지던시
2015–2016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2010 대동창작스튜디오

작품소장
광주시립미술관, 영은미술관, 화봉책박물관, KhonKaen University(태국)

연락처
instagram.com/sul_park_artwork
snowsp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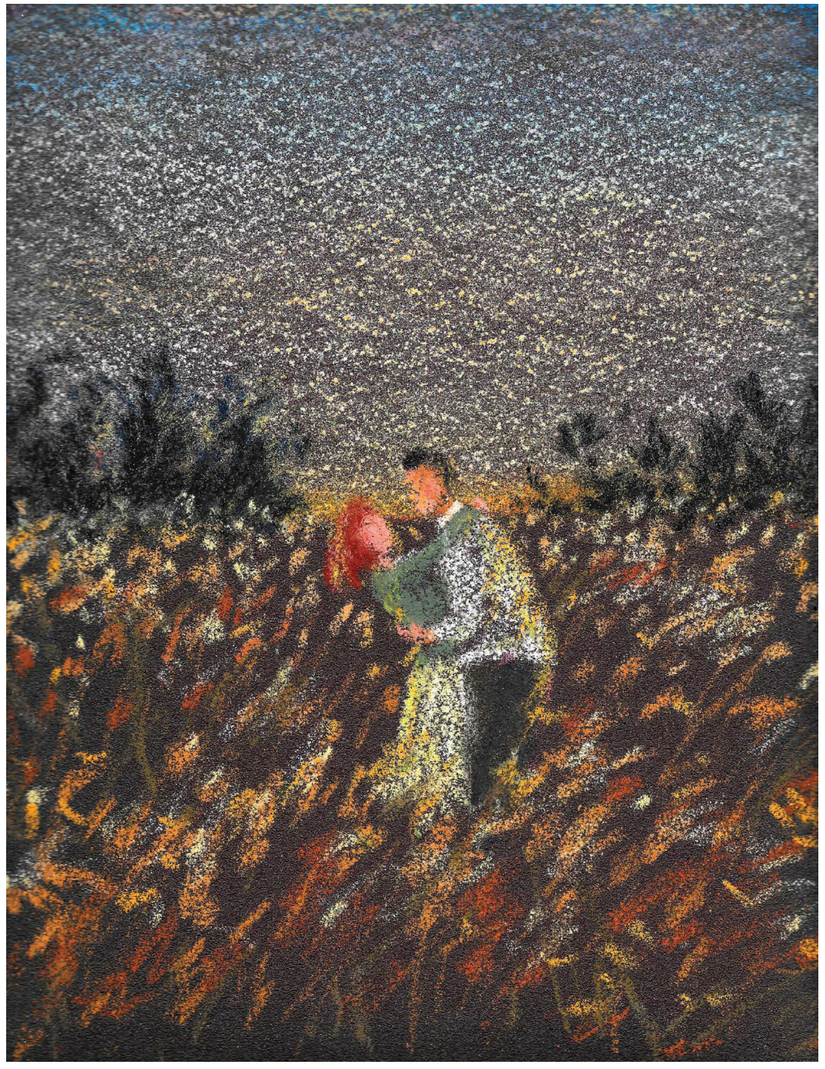
오후3시, 2018, Acrylic on Canvas, 45.5×60.6cm

박지은 *Park Jieun*

학력
전남대학교 한국화

주요전시
2018 Upcycling Art Showroom,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8 동명의 동면, 카페 보노, 광주
2016–2017 시나브로전, 은암미술관, 광주
2016 나를 디자인하다, D갤러리, 광주

연락처
wiiiisdomgrace@gmail.com



희미해진 추억, 2018, Oil pastel on Sandpaper, 29.7×21cm

박현지 *Park Hyeonji*

주요전시
2018 사이, 일호갤러리, 서울
2018 신진작가공모 ON, 인사아트프라자, 서울
2018 꿈과 마주치다, 일호갤러리, 서울
2017 Rooting for u, 인사아트프라자, 서울
2017 젊은 시각전, 갤러리 너트, 서울
2017 아시아프, DDP, 서울
2016 신진작가전,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
2016 우린 지금까지 뭘했나, 부산은행갤러리, 부산
2016 뉴프런티어전, 임 아트갤러리, 가평
2016 피어라 꽃 청춘,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

연락처
instagram.com/_damda__
amda7789@naver.com



스물세번째 밤, 2015, 지본 수묵담채, 45×53cm

서다민 *Seo Damin*

학력
조선대학교 한국화

주요전시
2018 Vincent D. Block 동명의 동면, 까페 보노, 광주
2018 마이너리티 프로젝트 기획 융합, 은암미술관, 광주
2018 갬 승–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 못하던 사람들, 공상온도, 서울
2018 첫 느낌, 설렘, 갤러리 도, 화순
2018 달빛걸음, 달빛야행, 광주
2017 열정놀음, 조선대학교미술관, 광주
2016 시작을 그리다, 청춘 스토리 갤러리D, 광주
2016 보존수복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DS갤러리, 광주
2016 윤두서와 함께 떠나는 여행, 다산미술관, 화순
2016 5116, 도남갤러리, 광주

수상
2015–2016 입선, 광주무등미술대전
2015–2016 입선/창작상, 수묵으로 인간, 자연, 세상 그리기대회
2014–2015 입선, 광주광역시미술대전
2015 입선, 행주미술·공예·디자인대전
2014–2015 입선,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2012 입선, 전국선샤인사생대전
2012 특선, 무등미술대전
2012, 2016 특선, 전국여수바다사생대회

연락처
instagram.com/damin_greengrim
010seo@naver.com



그의 풍경, 2018, Oil paster on Paper, 27×19.5cm



심심한날, 2017, Acrylic on Canvas, 72.7×53cm

서세원 *Seo Sewon*

학력
상명대학교 의류디자인

주요전시
2018 애도, 아티온갤러리, 서울
2018 Blue, 이리까페, 서울
2018 사이(between), 갤러리카페 틈, 서울
2018 김동준 전성재 콰야 3인전, 오브(of), 서울
2018 그림, 같지않은 그림, 신단비이석 예술갤러리, 서울
2018 PIECE X PEACE, 갤러리 빈치, 서울
2018 마주하다, 소다미술관, 화성
2017 Ordinary–보통의 기록, P4SQUARE, 서울
2017 Shining Moment–OHL Presentation, Fifty Fifty 갤러리, 서울
2017 수제비디오가게, 서울미술관, 서울
2017 Nightmare Drawing, 57갤러리, 서울
2017 일상의 단면–Welcome to my Home, 소다미술관, 화성
2017 두가지 시선–戰, Ulkin Showroom, 서울

연락처
blog.naver.com/scottwon1
scottwon1@naver.com

안소현 *Ahn Sohyun*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멀티미디어영상

주요전시
2018 휴식의 숨, 갤러리 LIFE, 서울/ 로쉬아트홀, 성남
2018 안온한 시간들,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2018 Affordable art fair, 메트로폴리탄파빌리온, 뉴욕
2018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Paradaise, K현대미술관, 서울
2018 환상동화, 이영미술관, 용인
2018 아티스트리안 개관전, 아티스트리안, 서울
2018 아트모라 오픈콜 참여전, 아트모라, 서울
2017 휴식의 숨, 갤러리 시:작, 서울
2017 이면의 서정, GS타워_더 스트릿 갤러리/ 갤러리 LIFE/ 인사아트프라자, 서울
2017 서정적 시간, 탐앤탐스블랙, 서울
2016 Light of the space, Sibling갤러리, 서울

수상
2016, 2018 GIAF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청년작가
2017 우수상, 인사아트프라자 뉴아티스트 콘테스트

작품소장
GS EPS, 탐앤탐스

연락처
www.sohyunart.com
instagram.com/ssohart
somebodysoul@naver.com



여행가방, 2017, Mix media, Inkjet print, 42×29.7cm



Let That Shit Go, 2018, Digital painting, Free size

유예림 *Yoo Yerim*

학력
경성대학교 연극영화

주요전시
2018 일상정원, 표준커피 카페, 서울
2018 일러스트레이션페어, 코엑스, 서울
2016 서울아트북페어 언리미티드 에디션_외유내강,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5 노-프레임, 플레이스 플라스크, 서울
2015 오늘도 걷는다, 어라운드 빌리지, 보은

연락처
www.grafolio.com/rabeen00
rabeen00@naver.com

이아람 *Lee Aram*

학력
동국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디자인 페스타, 도쿄
2017–2018 일러스트레이션페어, 코엑스, 서울
2018 비스트로 서울 <불닭강정> 캐릭터 개발 및 패키지 디자인
2018 LG G7 포토콜라주 앱 일러스트레이션 개발
2017 프랜차이즈 펍 <뉴욕야시장> 자유의 여신상 캐릭터 디자인
2017 목동 현대백화점 라이브 페인팅

연락처
blog.naver.com/mynameis_agami
agami89@naver.com



Road Trip, 2017, Digital print/Canvas, 59.4×84.1cm

정보은 *Jung Voeun*

학력
조선대학교 디자인공학

주요전시
2018 SK포터블 SOS 애니메이션 제작
2017 광주파트너스퀘어 아뜰리에 작가전, 스트럭트, 광주
2017 광주여성영화제 포스터 디자인
2017 삼성 80주년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제작
2017 영화매거진 프리즘 화양연화 단체전
2015 이루펀트 이사하는 날 official MV제작

수상
2014 은상, 패스파인더 어워드 모션그래픽 부문

레지던시
2018 광주 청년예술인지원센터
2018 광주 네이버파트너스퀘어

연락처
blog.naver.com/voeun_
voeun.j@gmail.com



탐욕–꿀빠는호랑이, 2018, Acrylic on Canvas, 116.8×91cm

조주희 *Cho Juhee*

학력
조선대학교 한국화

주요전시
2018 호락미락(虎樂美樂), 유·스퀘어복합문화관 금호갤러리, 광주
2018 2인전, 전남도청갤러리, 목포
2018 영아트페스티벌, 소촌아트팩토리, 광주
2018 31회 선묵회 정기전–비움, 백학미술관, 광주
2018 무술년 세화,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8 서른 네해 꿈의 여정, 백학미술관, 광주
2017 부산미술대전,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17 청년작가전 길을 묻다, 북구청갤러리, 광주
2017 조주희 초대전, 갤러리 처음, 광주
2016 SCAF(Seoul Collector Artist Festival), 롯데호텔, 서울

연락처
wgdw1534@naver.com

2018.12.7.—12.30.
아트플레이스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89

ART369



(주)아트플레이스
website artplace.co.kr
facebook /artplace.co.kr
instagram @artplace.co.kr





ART369: 미술 해방촌의 새로운 모색

백기영(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남산 아래 첫 번째 마을로 불리는 해방촌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후 미군정청이 접수하였다. 미군의 손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해방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해방촌오거리에서 신흥시장으로 내려가는 모퉁이에 2011년 미술공간으로 오픈한 아트플레이스에서 2018년 작가미술장터 ART369(이하 아트369)가 열렸다.

대부분의 작가미술장터가 5–10일 정도에 그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미술장터는 21일 동안 열리는 전시에 가깝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전시를 위해서 12명의 미술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다. 추천위원으로는 권미성(화랑협회 이사·갤러리조선 대표), 김노암(아트스페이스 휴 대표), 김석모(포항시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 김성호(미술평론가), 박순영(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민병직(독립큐레이터), 반이정(미술평론가), 서진석(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이진명(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홍경한(전 강원국제비엔날레 총감독) 등이 신진작가들을 추천했다. 일반적인 아트페어는 여러 화랑들에게 부스를 주고 이 제한된 공간에 참여작가들을 초대하는데, 이 미술장터는 3·6·9라는 숫자로 나뉜 섹션에 각각 30만원, 60만원, 90만원이라는 제한된 판매가격으로 작가들의 작업을 배치하였다. 갤러리들은 전속작가나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작가를 선발해서 자신들만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쓴다. 이 미술장터는 갤러리에 소속된 작가들이 아니고 이제 미술시장을 모색하는 신진작가들과 중견작가들을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미술계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전시된 작가들을 상업 갤러리와 연결시키기 위한 플랫폼에 가깝다.

미술계의 새로운 해방구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공간들은 1990년대 후반 서울의 여러 곳에서 생겨났다. 인사동의 갤러리들도 문을 닫고 떠나는 IMF 시절에 작가들에게 대관료도 받지 않고 공간을 지원하고자 한 이런 공간들이 생겨나 지금까지 우리 미술계의 건강한 토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최근에는 국공립창작공간이나 사설 레지던시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나서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과거에 비하면 매우 풍족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기금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직접적인 창작환경이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났지만, 이들의 작품을 유통하고 소비하는 상업 갤러리나 아트페어의 매출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작가미술장터가 대표적으로 젊은 작가들의 작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겨났다. 우리나라 미술유통구조는 메이저 갤러리들이 주축이 된 아트페어와 블루칩 작가를 위주로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술옥션으로 나뉘어 있어서 신생 갤러리나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다루는 아트페어들은 이 사이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기존의 아트페어나 화랑이 변화하는 동시대 미술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미술시장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신진작가들을 미술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갤러리스트들 또한 부재하다. 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 신진작가들을 시장에 프로모션하기에는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갤러리가 안아야하는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시장 실태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규모는 3,964억 정도이며 이중 건축물 미술장식 일부를 포함한 화랑의 작품 판매가 2,158억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78억원 규모의 경매회사가 있고 아트페어를 통해서 판매된 작품은 736억원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국공립미술관은 총 57개로 201억원의 작품을 사들였다. (이중 미술은행 및 정부 소장품을 포함한 93억원이 국립현대미술관의 비중이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 국공립미술관에서 사들이는 소장품 등 공공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 등 사립미술관에서





구매하는 규모보다 월등히 높다. 게다가 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2.19조원이 거래된 전세계 미술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매우 작다. 아트바젤과 UBS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미술시장의 80% 이상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이 나눠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술시장은 아직 유럽권 국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총 거래액수는 줄었고 작품수는 늘어서 중저가의 작품 구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90년대 후반 비엔날레, 대안공간의 등장과 함께 급속하게 세계화된 우리나라 동시대 미술은 공공영역과 시장에서 크게 경향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비엔날레나 미술관에서 주목하는 작가가 미술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서구 미술계의 현상과 매우 다른 것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대중의 미술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데, 미술품 구매자층의 미술이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지점에서 동시대 미술은 급진적인 실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전시가 같은 상황이겠지만, 미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동시대 미술의 매개를 위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아트369는 이러한 미술시장의 구조를 반영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3·6존의 작가들은 30만원 이하, 6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하고 9존의 중견작가들은 블라인드 옥션에 참여혜택을 주는데, 이 수익금은 신진작가들의 전시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3·6존에 참여했던 신진작가들 중 2명은 이후 다른 상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전시는 12명의 추천 큐레이터들과 함께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과 작가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주는 방식을 지원한다.

아트369는 신진작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하나는 전시를 구성하기 전에 선정된 12명의 전시기획자, 평론가들의 인력풀이다. 이들은 전시기간 중에 작가들의 작업에 대해서 비평적인 관점을 가진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 갤러리나 콜렉터와의 연결이다. 전시기간 중에 홍소미 대표는 미술경영아카데미 김윤섭 소장의 도움을 받아서 주요 갤러리스트와 콜렉터들을 초청하여 출품작가들 중 다음해에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싶은 작가를 연결해 주는데, 이 전시비용은 9존에 출품한 중견작가들의 작품 판매금액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은 청년작가들이 자칫하면 상업적인 유혹에 이끌려 판매가 되는 작업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스럽게 상업 갤러리와 대안공간, 국공립미술관 창작공간 출신의 작가들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전략이다. 작가를 추천했던 12명의 추천자들은 이들 중 두 명의 작가가 다시 내년에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고 어떻게 미술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후견인으로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기획: 참여작가의 작품이 참신하고 이를 30·60·90만원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ART369로 기획하였다. 외부에서 작가 선정위원 10인이 작가선정에 참여하였는데, 여러 외부 기획자들의 참여가 오히려 특색 있는 미술장터를 유지하는덴 어려움을 주었다

운영: 해방촌 아트플레이스 공간을 사용하여 다소 비좁고 후미진 곳에 위치했고, 평일에는 전시공간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홍보: 작가미술장터는 전시행사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가 필요한데, 전시기간(21일)이 너무 길어서 판매에 집중할 수 없었다

백기영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독일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영상미디어를 전공했다. (사)미술인회의
사무처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다원예술 소위원을 거쳐
의재창작스튜디오 및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의 디렉터를 역임했다.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 그리고 북부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환경과 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다.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어제의 소설 1, 2017, Archival pigment print, 42×63cm



이경자할머니를 위하여, 2012, Archival pigment print, 42×60cm

김민주초원 *Ghim Minzouchowon*

학력
계원예술대학교 사진예술

주요전시
2018 사탕이 녹는 시간, 레인보우큐브 갤러리, 서울
2018 Seamless, 스페이스 캔, 서울
2016 곽푸른하늘×김민주초원 어제의 소설전, 회의실, 서울
2016 모든 견고한 것들은 대기 속으로 녹아 사라지고, 레인보우큐브, 서울
2014 불가능한 작전, 미심쩍은 일들, 사진공간 배다리, 인천
2014 19개의 방, 더 텍사스 프로젝트, 서울
2014 Our monster 개관전, 대안공간 our monster, 서울
2013 Kings, 대안공간 이포, 서울
2012 루키포토페스티벌,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0 Childhood Area, 갤러리 덕, 서울
2010 라즈베리필드 soy×cho, 소울그라운드, 서울
2008 영 아티스트 소품, 코엑스 아쿠아 갤러리, 서울

수상
2018 대구사진비엔날레 포트폴리오리뷰 우수작

레지던시
2018 마리몬드하우스×캔파운데이션

연락처
www.littlehardbread.com
littlehardbread@gmail.com



Pressed-2, 2018, Mixed media on Bisque, 30×30cm

김지예 *Kim Jiye*

학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 석사수료

주요전시
2018 누웠던 자리, 갤러리조선, 서울
2017 Saint Cherry, 갤러리2, 서울
2017 멘토멘티, 한원미술관, 서울
2016 살찌는 전시, 공간291, 서울
2016 Skin to Skin, 반지하, 서울
2016 First Aid Kit, 갤러리 밈, 서울
2016 껍질 사이로, 공간가변크기, 서울
2014 DV-VA, 아카이브 봄, 서울

연락처
jiye1202@gmail.com



Phenomenon_09_03, 2007, Oil on Canvas, 25.5×25.5cm



Where are you from_02, 2018, Oil on Canvas, 45.5×65cm

김창영 *Kim Changyoung*

학력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Where are you from, 아터테인, 서울
2017 회화, 평면에 담긴 세상, 어울림미술관, 고양
2017 파고전, 교하아트센터, 파주
2015–2016 파고전, 고양아람누리 갤러리 누리, 일산
2015 김창영 개인전, 토포하우스, 서울
2015 그 어떤 것도 닮지 않은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2014 그 어떤 것도 닮지 않은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갤러리 신교, 서울
2013 Invitational Art Exhibition, Jersey City Hall, 저지시티, 뉴저지
2013 Silent Auction of Art, Waterfall Gallery & Mansion, 뉴욕
2012 Art & Lifestyle, waterfall Gallery & Mansion, 뉴욕
2012 Dumbo Art Festival, 뉴욕
2012 The Land of Rising Sun, LMMHC, 뉴욕
2011 Now in Color: Changyoung Kim, Gallery COOHAUS, 뉴욕
2008 Into the Illusion-Dumbo Art Festival, 111 Front Street Galleries #265, 뉴욕
2007 Phenomenon-Thesis Show, Pratt Institute South Gallery, 뉴욕

연락처
animalkim@gmail.com



생각하는 사람, 2018, Oil on Canvas, 53×45.5cm

박정용 *Park Jungyong*

학력
목원대학교 미술교육

주요전시
2018 너와 함께, 안국약품갤러리AG, 서울
2017 ROMANCE, 골드창작스튜디오, 군포
2017 자연을 담다, 한스갤러리 아트세빈기획, 서울
2016 자연동행, 갤러리 미르, 대구
2016 감정의 형상, 모리스갤러리, 대전
2015 인상적 풍경,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수상
2014 브리즈 프라이즈 수상
2014 최우수상, 경기미술대전 서양화부문

연락처
pjy17pjy17@naver.com



주체름게8_***Autonomously8***, 2018, Copper, 21×45×55cm



Mushroom cloud 5, 2017, Graphite on Paper, 56×38cm

박천욱 *Park Cheonwook*

학력
홍익대학교 조소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서울문화재단 선정작가 쇼케이스전, 탈영역우정국, 서울
2017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이트콜렉션, 서울
2017 착화점,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6 말하는 사물들, 스페이스K, 대구
2016 문래의 언어, 정다방프로젝트, 서울
2016 구사구용,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5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_닫힌 공간 넘어, 태화강 대공원, 울산
2015 난지아트쇼_생강의 모양, 난지갤러리, 서울
2015 SeMA 살롱,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4 투모로우, DDP, 서울
2014 친절_( )초의 믿음,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2013 믿음없이, 갤러리조선, 서울
2013 라운드 업,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2 스프링업 프로젝트 part1_Rainbow Direction, 스페이스 캔, 서울

레지던시
2015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9기
2013 금천예술공장 4기

연락처
www.cheonwook.com
pcw100062@naver.com

성유삼 *Sung Yusam*

학력
홍익대학교 학사
롱아일랜드 리우 포스트 석사

주요전시
2018 구부러진 신전, 오뉴월 이주헌, 서울
2018 드로잉, DSA 갤러리, 더니든, 뉴질랜드
2018 날씨의 맛,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7 켜(끼)다, Space One, 서울
2017 보고10다, SeMA 창고, 서울
2016 페스티벌284 영웅본색, 문화역서울284, 서울
2016 Collapse, 합정지구, 서울
2016 난지아트쇼 I, III, VII, 난지 전시장, 서울
2015 Luminous Coordinates, Hutchins Gallery, 롱아일랜드
2015 Weaving Time, Gallery Korea, 뉴욕
2014 Works-in-Progress, Sculpture Space, 유티카

수상
2014 AHL Foundation Contemporary Visual Art Award
2012 AHL Foundation MFA Scholarship Grant Award

레지던시
2018 DSA Residency
2016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14 Sculpture Space
2013 IAEP Artist-In-Residence

연락처
yusam2008@gmail.com



Connecting link5.31, 2017, Pigment ink on Paper, 44×72cm



Connecting link1002, 2017, Thread on Paper, 55×45.5cm

송미리내 *Song Milinae*

학력
협성대학교 회화
홍익대학교 회화 석사과정

주요전시
2018 매듭, 이음의 불편한 진실, 마포문화원, 서울
2018 예술의 시대 시대의 예술,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8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대학로 이음센터/롯데 아트갤러리, 서울
2018 봄맞이 기획 초대전, 갤러리A, 성남
2017 CONNECTED2, 대안공간 눈, 수원
2017 GPS,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7 팝업 기획 초대전, 갤러리A, 성남
2017 보위, 무대륙, 서울
2017 보위, 유진화랑, 부산
2016 초대 개인전, 문화상회 다담, 수원
2015 CONNECTED, 아트스페이스 노, 서울

연락처
songmilinae@gmail.com



A Pandora's box, 2018, Metal processing, 가변설치 variable dimension

육효진 *Yook Hyojin*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쪽방프로젝트 _a slice room project, 시대여관갤러리, 서울
2018 부평영아티스트 4기 선정작가전, 부평아트센터, 인천
2018 전시는 핑계다, KDT갤러리, 서울
2018 YAP_봄나물: 아름다울娜 물건物, 갤러리 마롱, 서울
2018 Young Artist Power, 아트스페이스H, 서울
2018 YAP_연말선물전, 일호갤러리, 서울
2017 Pidgin 피진, 요기가갤러리, 서울

연락처
yookhyojin.com
may124365@gmail.com



토르소-사선, 2018, 레진,우레탄페인트, 22.5×11.8×15.5cm

토르소-삼각형, 2018, 레진,우레탄페인트, 32.3×7.5×10cm



벽화, 2015, 벽돌위에 드로잉, 16×16×16cm

이정배 *Lee Jeongbae*

학력
홍익대학교 동양화 학·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 박사수료

주요전시
2018 각진 직선, 피비갤러리, 서울
2016 잠식, 피비갤러리, 서울
2016 New visual culture, 청년미술프로젝트, EXCO, 대구
2016 The Muse, Kim HyangAn-Timeless, 환기미술관, 서울
2015 이미-항상,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서울
2015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2015 환경미술제_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2014 화가: 사의 찬미, 한원미술관, 서울
2013 Beyond Korean Painting,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수상
2011 우수상, 중앙미술대전

레지던시
2013 New york Art OMI International Art Residency
Program
2012 캔파운데이션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라리오콜렉션, 중앙일보, 캔파운데이션, 환기미술관

연락처
www.jeongbae.com
questionx@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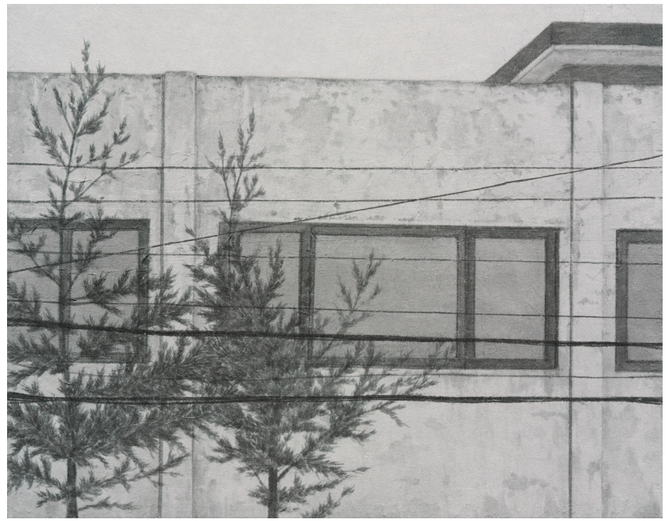
이정형 *Lee Chunghyung*

학력
홍익대학교 도예유리
홍익대학교 조소 석사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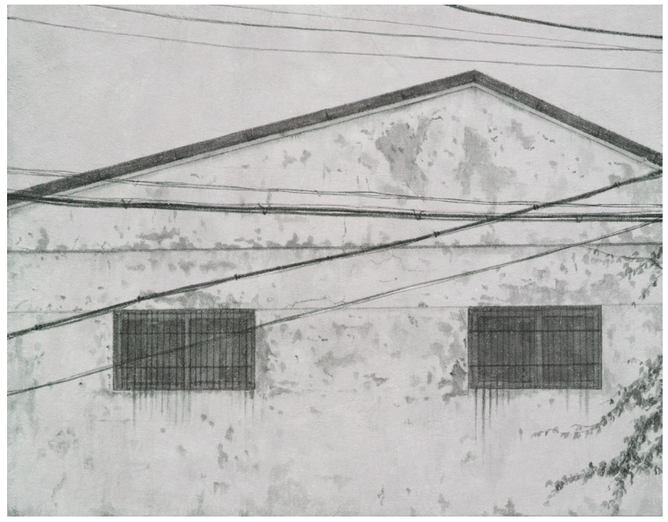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8 젊음의 심연_순응과 탈주사이, 창원조각비엔날레, 창원
2018 악의사전_강원국제비엔날레, 녹색체험센터, 강릉
2018 Summer love , 송은아트센터, 서울
2017 혁명은 tv에서 방송되지 않는다, 사운드 이펙트, 서울
2017 인간×기계 시스템 ,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 광주
2017 목하진행중,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2017 Light Construction, 갤러리 기체, 서울
2017 Project acts, CR콜렉티브, 서울
2017 송은 수장고 전, 송은 수장고, 서울
2017 보고싶다, SeMA창고, 서울
2016 오늘의 현장 , 송은 아트큐브, 서울
2016 블라인드데이트, 윌링엔딜링, 서울
2016 코리아 투모로우, 성곡미술관, 서울
2016 밤의 호랑이들, SeMA창고, 서울
2015 Fine works, 윌링엔딜링, 서울

레지던시
2016 SeMA 난지창작스튜디오

연락처
chungoweets@gmail.com



벽, 2018, 한지에 먹, 27.1×34.6cm



벽, 2018, 한지에 먹, 27.1×34.6cm

이채영 *Lee Chae Young*

주요전시
2018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2018 Go thoungh_and then, 자하미술관, 서울
2018 보통의 시선, 시안미술관, 영천
2018 제철비경: 위대한 순간의 기록,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8 유유산수-화화-서울을 노닐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8 SeMA 신소장품_하늘 땅 사람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8 신소장품 2017,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Dim day, 자하미술관, 서울
2017 감각기억, 일현미술관, 양양
2017 제4회 종근당 예술지상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7 광주 화루 10인의 작가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7 사소한 발견, 우민아트센터, 청주

수상
2016 대상.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2015 금상, 에트로 미술대상
2014 포스코미술관 The Great Artist
2010 입선, 파이낸셜뉴스 미술공모전
2009 신한갤러리 영아티스트

레지던시
2016 경기창작센터

작품소장
가나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에트로, 인천문화재단, 종근당, 포스코미술관

연락처
nii1224@nate.com



Landscape seen from a moving perspective. yellow 18-02, 2018, Ink on Korean paper, 90×90cm

조종성 *Jo Jongsung*

학력
동아대학교 회화
한성대학교 회화 석사수료

주요전시
2018 Eastern Islands, 스페이스mm, 서울
2017 풍류남도 ART 프로젝트_수묵남도, 행촌미술관, 해남
2016 조종성 개인전, SH art project, 도쿄
2016 Paper, 조현화랑, 부산
2015 운외운 몽외몽 雲外雲 夢外夢, 세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5 무빙아트프로젝트, 시안, 공 아트스페이스, 서울/서안미술관, 서안
2014 숨겨진 시점, 풍경을 거닐다, 조현화랑, 부산
2014 상자 안의 고양이, 갤러리 버튼, 서울
2014 음풍농월 사군자, 풍류에 물들다,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이천
2014 AMprojekt-Kunstwerkstätten, AMprojekt, 베를린
2014 매화를 기다리며, 이유진갤러리, 서울
2008 개입에 대하여, 금호미술관, 서울
2006 숨겨진 화가의 시점을 찾아서,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서울
2004 아웃도어: 경계 넘나들기, 미술사, 대구

수상
2007 금호미술관 영아티스트

연락처
jojongsung77@gmail.com

2018.10.18.—10.28.
전주 객리단길 돈키호테 외 5곳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레방아3길 3-25

2018년 아트레지던시 미술장터

‘Art Market Stamp-tour in Jeonju’



휘목미술관
website hmarttown.com
facebook /hwimok16
instagram @7pictures__





아트레지던시 미술장터: 추억을 큐레이팅 하다

변종필(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관장)

“큐레이팅은 20%의 심미안과 상상력, 80%의 행정력과 팀워크, 경영능력으로 이루어진다.”(니콜라스 세로타, 전 테이트 미술관장)

2018년 아트레지던시 미술장터 ‘Art Market Stamp-tour in Jeonju’(이하 아트마켓 스탬프투어)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전주한옥마을 내 갤러리 카페, 미술관 6곳을 중심으로 젊은 작가들의 미술품을 판매한다는 기획의도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기획의도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업에선 이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힘입어 그동안 침체기에 있었던 지역 미술시장의 미술품 유통에도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희망찬 포부가 느껴진다.

아트마켓 스탬프투어는 콘셉트나 부대 프로그램, 작가, 작품구성 등 나름의 콘텐츠 차별화에 성공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주한옥마을 내 미술품 유통의 장소를 지역 관광업소와 협업해 마련한 부분이다. 돈키호테, 교동미술관, 아그배, 공간봄, 삼양다방, 추억박물관 등으로 구성한 미술품 판매 장소엔 지역문화의 특성을 간직한 공간을 선택하여 관광객의 참여를 높이려고 한 의도가 깔려있다. 특히 처음 계획과 달리 교동미술관의 참여를 이끌어 미술품 유통의 활성화에 기대치를 높인 부분은 기획자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로 돋보인다. 이런 전반적인 기획이 궁극적으로 미술품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이 현장에서의 첫 인상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작가는 55명(계획 단계에서는 53명), 출품된 작품은 188점(아트상품 제외)이었다. 구성면에서 보면 지역 작가보다 타지역 작가의 참여비중이 높고, 작품은 소품 위주다. 기획자는 지역 작가의 참여율이 저조한 요인으로 홍보 부족보다는, 지역 작가들이 전문 전시공간이 아닌 대안공간에서 전시하는 것을 꺼린 이유를 꼽았다. 실제 지역 작가들은 이같은 형식의 전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여겼다. 결과적으로 지역 상권과의 협업으로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미술장터 사업에 대한 지역 작가들의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작가의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셈이 되었다. 다만, 이 부분은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본다.

출품작은 평면과 입체 분야에서 작품 소재, 표현기법, 크기 등이 다양했다. 젊은 작가의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작품의 수준(완성도, 표현력, 내용 등)에서는 작가간 편차가 컸다. 기획 단계에서 작품을 선정하기보다는 온전히 작가의 성향에 전적으로 맡겨둔 부분이 작가간 편차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미술장터에 참여한 전시공간 6곳은 두 블록 내에서 관람이 가능한 동선에 위치하여 관람객의 이동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관광객을 전시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심한 노력이 느껴졌다. 다만, 전시공간간 이동시 흥미를 유발하며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아트마켓 스탬프투어 사업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공간의 구성과 연출이었다. 정작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 판매 대상 작품의 전시가 본래 장소의 특성에 묻히면서 시선을 끌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삼양다방, 추억박물관의 경우 기존 장소를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는데 전시작품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삼양다방은 전주한옥마을의 오랜 명소(최초의 다방)라는 유명세에 맞게 사람이 붐볐다. 다방 입구에는 전시 리플렛과 사업 홍보물을 비치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작품연출에 있어서는 전시 환경과 어울리는 적절함이나 세련됨을 얻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기보다는 비어있는 공간에 작품을 배치한 수준이었다. 추억박물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의 인기 박물관을 전시 장소로 선택한 것은 탁월했지만, 오랜 추억의 오브제가 빼곡히 진열된 박물관 전시물 사이에서 출품작들이 돋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왕에 2층의 모자박물관까지 연계한 디스플레이였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전시공간인 아그배는 갤러리 카페로 전시작품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전체 크기와 조명, 벽면 등에서 앞선 두 공간보다 전시 환경이 좋았다.





작품 디스플레이도 비교적 무난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심거리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어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유동인구가 적은 편이었다. 사실 관람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전시 관람객을 전시공간에 일정시간 머물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시작품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은 전시의 성과는 물론 미술품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전시기획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전시공간 중 가장 흥미로운 곳은 돈키호테라는 공간이다. 이곳 역시 카페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했는데 6곳의 공간 중 특히 미술품 유통의 가능성을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위치상 한옥마을의 중심에서 한참 떨어져 도보로 이동하기는 힘든 곳이었고, 전시 디스플레이면에서 공간의 특성을 극대화한 참신함이 부족했다. 하지만 향후 전시공간으로 지속할 수 있는 협업을 이끌어 낸다면 이 지역의 새로운 대안공간으로 주목받을 만한 곳이다. 실제 전시 오픈일에 다양한 프로그램(특히 퍼포먼스)을 마련해 참여작가와 관람객의 만족도, 호응도를 이끌어낸 점은 이 사업의 확장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카페 경영자가 사업 이후에도 협업으로 미술전시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궁극적으로 참신한 전시, 전업작가들의 미술품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의 활성화를 기대할만 하다.

사람이 붐비는 곳은 미술품 수집의 잠정적 콜렉터층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한 미술품 판매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행동에는 요인이 따른다. 특정한 장소에 사람이 붐비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별화된 장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관람객의 흐름이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의제제기를 통해 관람층의 판도를 바꾸는 큐레이팅이 필요하다.

큐레이팅은 창조성이 핵심이다. 큐레이팅의 성패는 전시작품의 수준, 디스플레이, 판매 및 홍보전략 등 전반에 걸쳐 새로움, 신선함에 크게 좌우된다. 이점에서 볼 때 아트마켓 스탬프투어에는 출품작 선정에서부터 판매 방향, 전시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한층 구체적이고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홍보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 큐레이터는 전시작품 외에도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이 사업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실시간 전달하는 홍보·마케팅으로 행사기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작품을 소개하고 콜렉터층과 연결하는 매개를 꼭 마련해야 한다.

한국미술계는 이른바 미술관, 비엔날레로 양분되는 전시방식과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미술시장이라는 세 가지 기재로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 미술시장은 미술관과 비엔날레에 견주어 작가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점에서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은 "미술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작가들의 판로개척 지원과 일반 국민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미술을 즐기며 미술품을 소장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지원사업 취지를 살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변동은 작가의 존재방식에 변화를 준다. 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물론 작가를 존재하게 하는 방식, 이른바 생존의 방식을 모색하게 만든다. 이에 전시기회를 얻지 못한 국내 95%에 이르는 작가에게 전시기회를 주고, 동시에 미술품 판매기회까지 부여해 줄 수 있을 때 미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대중적 문화향유의 저변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관건은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가능하게 해줄 기획력과 그에 따른 경영능력에 있다.

현대미술은 새로운 방식과 내용을 앞세운 큐레이팅으로 전시의 승패가 좌우된다. 큐레이터는 미리 생각하고 앞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최근 미술계에서 큐레이팅은 심미안이나 상상력보다 행정력과 팀워크, 경영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에서 아트마켓 스탬프투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한층 세밀한 계획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행정력, 경영능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모쪼록 오랜 준비와 열정적인 자세로 운영 전반에 참여한 기획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10월 27일 토요일 교동미술관에서 열린 네트워크 파티행사는 이 사업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벤트였다. 이벤트를 통해 작품 카드결제 11건, 현금결제 16건의 성과를 냈다. 미술작품이 전시된 6곳을 관람한 하루 방문객 2,750여 명(행사기간 전체 방문객 8,000여 명)에 견주어 높은 판매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참신한 기획의 뒷받침과 1일 이벤트의 확대를 통해 미술품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 지역 관광업소와 협업으로 마련한 기획이 돋보였지만, 작가와 작품의 구성은 편차가 컸다

운영: 장소적 특성이 있는 곳을 선택해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한 노력이 신선했다

홍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문화의 특성과 어울린 홍보전략이 눈에 띄지만, 상대적으로 온라인상의 홍보·마케팅은 아쉽다

변종필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관장이며 미술평론가다.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 현장실사위원(2006-2017), 2018 강원비엔날레 운영위원, 2016 여수국제 아트페스티벌 전시작가 선정위원, 한국미술평론가 협회 전시분과위원장, 한국박물관·미술관 창체사업단 운영(한국과학창의재단) 책임연구원(2012)으로 일했고, 춘천문화재단 레지던스 입주작가 심사 및 비평워크숍(2014/2016)에 참여했다.



NY–Central Park, 2017, 장지에 채색, 30×43cm



Golden Expression–15, 2018, Oil on Canvas, 30×30㎝

강병섭 *Kang Byeong Seop*

주요전시
2018 탐앤탐스 개인전, 탐앤탐스블랙 이태원점, 서울
2018 YAP #4 hashtag exhibit, 갤러리 다온, 서울
2018 YAP–봄나물, 갤러리 마롱, 서울
2018 YAP첫展, 아트스페이스H, 서울
2018 HELLO!ARTya, 계원예술대학교미술관, KUMA
2018 청춘시대, 갤러리 일호, 서울
2018 PUBLIC GALLERY, 도프커피, 서울
2017 The Same Place, Another Space, 아트스페이스H, 서울
2017 YAP 연말선물전, 갤러리 일호, 서울
2017 Art N Work_Culture & Art Project X, SJ쿤스트할레, 서울
2017 요나루키 트렁크쇼,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2017 네 작가 이야기, 리서울갤러리, 서울
2017 아시아프, DDP, 서울
2017 신운필전3, 파비욘드갤러리, 서울
2017 위풍닭닭, 에코락갤러리, 서울
2017 강병섭 초대전, 갤러리C, 대전
2016 같은 곳 또 다른 공간_강병섭 개인전, 보다아트센터, 대전
2016 This would also pass away_강병섭 개인전, SIA NY, 뉴욕
2015 휴머니즘적 인물화의 상징적 표현_병섭 개인전, 가회동60, 서울

연락처
youref@naver.com

김계완 *Kim Gye Wan*

주요전시
2017 냉정과 열정 사이, 그림갤러리, 창원
2017 제62회 창작미술협회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6 Golden Expression, 금오공대 갤러리, 구미
2016 제4회 당림문화예술제I–김계완·김윤경 초대전, 당림미술관, 아산
2016 Kintex Spoon Art Show, 킨텍스, 일산
2015 Golden Expression, 영은미술관, 광주
2015 작품열람, 공평갤러리, 서울
2014 현대미술경향읽기, 아미미술관, 당진
2013 감정의 변화에 주목하다,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2013 The Face, 당림미술관, 아산
2012 Expression, 쿤스트 독 갤러리, 서울
2011 9월을 훔치다, 보다아트센터, 서울
2010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빛 2010,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수상
2003 우수상, 세계평화미술대전

레지던시
2015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9기
2012 이랜드스페이스 3기

연락처
nawkk@hanmail.net



Short-sighted, 2017, 적색한지에 혼합재료, 53×45.5cm



Apple2, 2018, 장지에 채색, 27.3×27.3cm

김판묵 *Kim Pan Muk*

주요전시
2018 사이, 교동미술관, 전주
2017 LIKE, 교동아트스튜디오, 전주
2015 침묵의 시선, 갤러리TOAST, 서울
2013 갤러리 숨 초대 개인전, 갤러리 숨, 전주
2012 우진청년작가초대전, 우진문화공간, 전주

수상
2016 입선, 서리풀 Art for Art
2010, 2012 특선, 전라북도미술대전
2010 최우수상, 대한민국한국화대전
2010 장려상, 관악현대미술대전
2010 입선, 경향미술대전
2007 최우수상, 진중창작미술대전

작품소장
전북도립미술관

연락처
ppanmook@naver.com



빛이 없는 별#9, 2018, 캔버스에 혼합재료와 자개, 53×45.5cm

김형주 *Kim Hyeong Ju*

주요전시
2018 Art: Ultra Violet, 문화비축기지, 서울
2017 Project Zebra 2017, 대안공간 눈, 수원
2017 House art fair 2017, ArtTrip, 서울
2017 지음, 갤러리 이목, 서울
2017 아티스트 카탈로그 레조네 오픈기념전 Part3, 에코락갤러리, 서울
2017 청춘걸다-그리고, 봄, 광동제약 가산천년정원, 서울
2017 이인이색, 갤러리카페 라베란다, 서울
2017 Harmony in The black, 보드레안다미로, 서울
2016 고래의 꿈, 갤러리카페 더페이지, 서울
2016 The Great Beginning, 에코락갤러리, 서울
2016 코리아 컬처디자이너 어워즈, WCO, 서울
2016 The Beginning part 10, 에코락갤러리, 서울

연락처
rlagudwn0222@naver.com



개이득, 2018, Wood, 60×35×45cm

빅터조 *Victor Cho*

학력
강원대학교 미술
성신여자대학교 공공미술 석사과정

주요전시
2017 애비로두(愛悲怒斗), 장은선갤러리, 서울/ 갤러리 아르숲, 춘천
2016 이것은 그림이 아니다, 아트스페이스H, 서울
2015 코스프레, 갤러리 이즈, 서울/ 갤러리 아르숲, 춘천
2014 멍, 인사아트센터, 서울

레지던시
2010–2014 춘천시문화재단 1,3,4기

연락처
josocho@naver.com



Butterfly flying2, 2014, Mixed media on Canvas, 27.3×27.3cm



Clouds3, 2015, Mixed media on Canvas, 60.7×60.7cm

영케이 *Young.K*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Amor Fati-Love Your Fate, which is in fact Your life, 경계에핀꽃갤러리, 안산/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2018 선조세공의 빛, Galerie TrES, 낭트
2015 CLOUDS, 유중아트센터 1갤러리, 서울
2015 샌버나디노 바람에 날리다_깃발전 Blowing Flags in San Bernardino, 샌버나디노 아트밸리
2014 개관초대전, EK Art Gallery, 서울
2013 개관초대전, GN Gallery, 용인
2013 CLOUD series, 선 갤러리, 서울
2012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조화, 선 갤러리, 서울
2012 한일 드로잉교류전, Irohani Gallery, 오사카
2011 한국미술의 빛, 시립M54-Dreispitzhalle, 바젤
2011 한국예술의 얼과 멋, 괴테문화원, 프랑크푸르트

작품소장
미술과 비평, Clazzio(일본), Gallery Aille, Gallery EK Art

연락처
young.k@daum.net



Relations2, 2009, Acrylic Gouache on Canvas, 22×29cm

손원영 *Son Won Yeong*

학력
중앙대학교 회화 석·박사졸업
홍익대학교 회화 박사졸업

주요전시
2018 지표적 상징, JCC아트센터, 서울
2017 Art Moon_소원을 말해봐,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 수원
2016 사이_In Between, 자인제노갤러리, 서울
2016 아시아프, DDP, 서울
2014 Singapore Apart Art fair, Parkroyal in Pickering hotel, 싱가폴
2014 Between Landscape, 그림손갤러리, 서울
2013 Between, 옆집갤러리, 서울
2012 Relations, PaMa gallery, 도쿄
2004 Relations–drawing puzzle, 송은갤러리, 서울

수상
1998 특선, 제24회 서울현대미술제
1996 특선, 제4회 매일미술대전

연락처
swy0730@gmail.com



Blue fog, 2018, Oil on Canvas, 24.2×33.3cm

이종갑 *Lee Jong Gap*

학력
대구예술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자연-기억속의 풍경, 봄 갤러리, 대구
2016 자연-기억속의 풍경, 갤러리GNI, 대구
2014 자연-기억속의 풍경, 이상숙갤러리, 대구
2012 자연-기억속의 풍경, 서울미술관, 서울
2012 자연-기억속의 풍경, 대구백화점, 대구
2010 자연-기억속의 풍경, 예술의 전당, 서울
2010 자연-기억속의 풍경, 무학갤러리, 대구

수상
2008 우수상, 신라미술대전
2001–2006 특선4회, 대구미술대전

연락처
jonggap3@naver.com



계절 시리즈, 2016, Acrylic on Canvas, 27.3×22cm

장연수 *Jang Yeon Su*

학력
원광대학교 서양화
동국대학교 미술교육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6 전전전(電轉展), 일호갤러리, 서울/ 해안통갤러리, 여수
2016 Better Sweet–색과 계절, 7pictures, 서울
2016 색공간(色空間), 아트스페이스 팝, 서울
2016 어포더블, DDP, 서울
2016 이도공간, 일호갤러리, 서울
2015 색(色)으로본 세상, 탐앤탐스 탐스커버리 청담점, 서울>
2015 NEW YORK. SPACE WOMB post card, 뉴욕

레지던시
2010–2014 춘천시문화재단 1,3,4기

작품소장
세종시청, 대구 박병원

연락처
wkddustn78@naver.com



봄의 향연1, 2011, 장지에 채색, 20×20cm

최미남 *Choi Mi Nam*

학력
원광대학교 한국화
동국대학교 교육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KAFA국제아트페어, 킨텍스, 고양
2018 ART WORK, 시카고미술관, 미국
2018 부안 아트페스타, 부안예술회관, 부안
2017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정기전,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17 최미남_더 나비 초대전, 장수미술관, 장수
2013 탐라지몽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
2011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테라피, 삼진미술관, 창원
2011 나비! 봄의 향연, 이리스 갤러리, 고양
2010 최미남 개인전, 갤러리 이즈, 서울
2010 함평나비대축제, 함평갤러리, 함평

연락처
cmn0717@hanmail.net

2018.9.28.—10.7.
S팩토리 D동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유니온아트페어 2018

‘Let’s Make Together’



극동예술연합 Eastern Art Union
facebook /unionartfair
instagram @unionartfair





유니온아트페어: 예술가의 연대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연대를 향해

심소미(독립큐레이터)

유니온아트페어가 2016년을 시작으로 어느새 3회째에 접어들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해 온 작가미술장터 중 규모와 매출, 관객수까지 성과를 꾸준히 내왔기에, 미술계 안팎으로 이목을 사로잡아 온 행사다.

올해의 유니온아트페어는 'Let's Make Together'라는 주제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성수동에 위치한 S팩토리에서 열렸다. 1980년대 지어진 3,000평 규모의 자동차정비공장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리뉴얼된 곳으로, 유니온아트페어는 이 공간의 D동을 행사장으로 활용하였다. 참여작가가 134명, 출품작업은 969점으로 작년과 유사한 규모이나, 전시공간이 커진 만큼 대형 설치작업을 유연하게 배치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매해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유니온아트페어에 관심을 두는 작가들 뿐만 아니라 이에 협력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미술계 일원, 협력업체, 기업,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최두수 감독을 주축으로 한 극동예술연합 작가들의 꾸준한 연대가 바탕이 된다. 회를 거듭하면서 자발적 연대의 조직체가 확장하고 타 협력체와의 관계 속에서 일으켜진 것이다.

유니온아트페어의 확장은 한국 미술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위기를 인식한 작가들이 본 행사에 힘을 더하고 협업의 구조를 넓혀온 것에서 비롯한다. 2016년에 'Welcome to Studio'(복합문화공간 네모)로 시작하여, 2017년 'ART+plus X'(인사1길)에서는 작가들의 자기조직적 기획과 참여가 중심이 되었다. 이 연장선에서 기획된 올해의 'Let's Make Together'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작가들의 연대에 더하여 관객의 참여까지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매해 열리는 아트페어에서 주제가 왜 필요할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예술가 스스로 기획의 주체인 작가미술장터의 경우에는 기성 아트페어와 차별화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유니온아트페어 외 스크랩, 퍼폼 등 3년차에 접어든 행사의 경우에는 연례행사가 되지 않기 위한 새로운 주제와 실험들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니온아트페어가 시도한 관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은 한국미술계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된다.

작가미술장터는 기존의 미술시장에서 시도되지 않은 대안적인 영역을 예술가 스스로 도모하고, 이의 가능성을 확산시키는 데 의의를 둔다. 이는 아트페어의 주체인 작가들의 조직체, 새로운 작가들의 발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객층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 미술상품의 세계에 진입할 수 없는 수많은 예술가의 작업이 대안적 장을 통해 유통되려면, 이를 즐기고 향유하는 대안적 소비자 또한 필요하다. 다른 말로는 잠재적 콜렉터로 즉 새로운 관객층의 참여이다. 여타의 작가미술장터들 또한 저가의 작품을 제안함으로써 대중적인 콜렉터군을 발굴하고자 하지만, 이를 판매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일회적 행사로 끝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일회적 이벤트는 잠깐의 스펙터클과 이윤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예술생태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예술가들이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미술시장은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작가, 갤러리(혹은 대안플랫폼), 콜렉터(혹은 관객)가 상호적으로 교류하는 데서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미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어디를 가나 관객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니온아트페어가 시도한 '관객과 함께하는 축제'는 단순히 작품 소장자를 불러 모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이 축제에는 동시대 미술시장에 대한 작가들의 문제의식과 발언을 참여자(콜렉터, 소비자, 관객)와 더불어 교류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다. 궁극적으로 작품을 사고 판매하는 경험을 넘어 서로간 의미 있는 대화로 교류하고 지지하는 문화적 장의 마련과 관계된다.

유니온아트페어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작가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다. 그 결과 열흘간 1만 3,000여





명의 관객이 아트페어를 찾았다. 전시장 1층에서는 전시, 퍼포먼스, 브랜드존, 카페가 마련되고 2층에는 유니온 키드코너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들을 겨냥한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여러 프로그램이 눈에 돋보이는 반면, 134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본 전시에 있어서는 기성 저가형 아트페어의 형식적 조건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보인다. 다수의 소품 작업을 벽면에 배열하는 방식에서 작품 사이의 변별력과 차별성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 공간 곳곳을 활용한 설치작업이 군집화된 배열 방식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소품과 대형 작업의 형식적 조건 이상의 맥락보다는 시각적 유희가 눈에 띈 편이다. 군집 사이에서도 동시대 미술현장의 흐름, 작업간의 관계성과 맥락, 그리고 개별 작업의 독자성에 접근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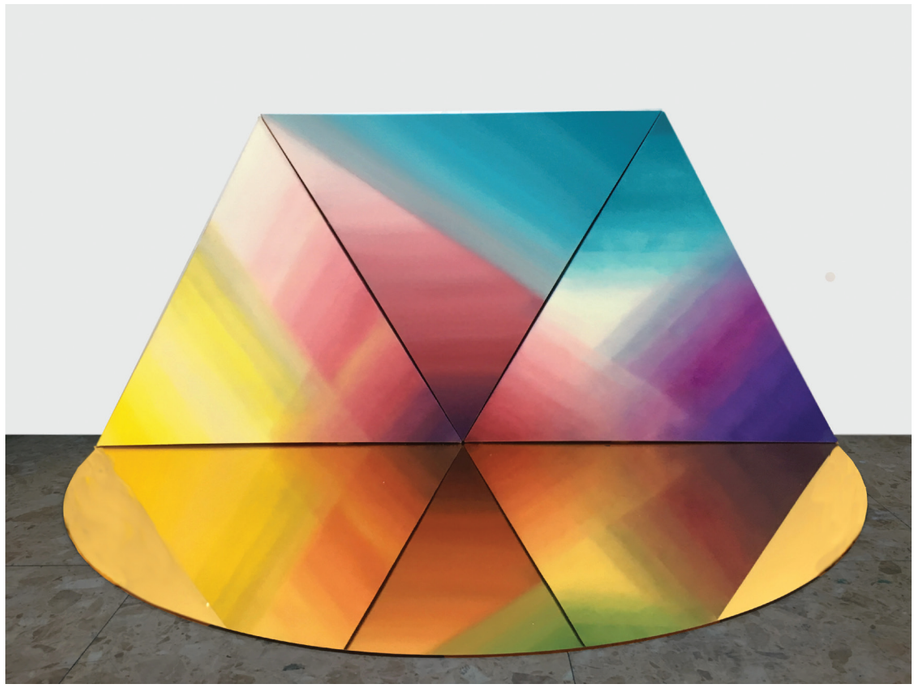
축제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 되었으나 이러한 시도를 예술현장과 관련해 논의하고 점검할 공론의 자리가 없었던 것도 다소 아쉬웠다. 축제와 대안적 실험을 함께 교차시키며 예술과 사회의 연대를 모색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숙제라 하겠다. 관객성과 실험성을 모두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의 유니온아트페어는 상당히 장기적인 포부를 드러낸다. 작가미술장터를 모두가 함께 하는 미술축제로 제안함으로써, 미술시장에 대한 인식을 여러 방향으로 열어둔 것이다. 아트페어를 축제로 경험한 관객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러한 만남이 향후 예술생태계를 개선할 연대의 힘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

기획: 예술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는 프로그램이 다채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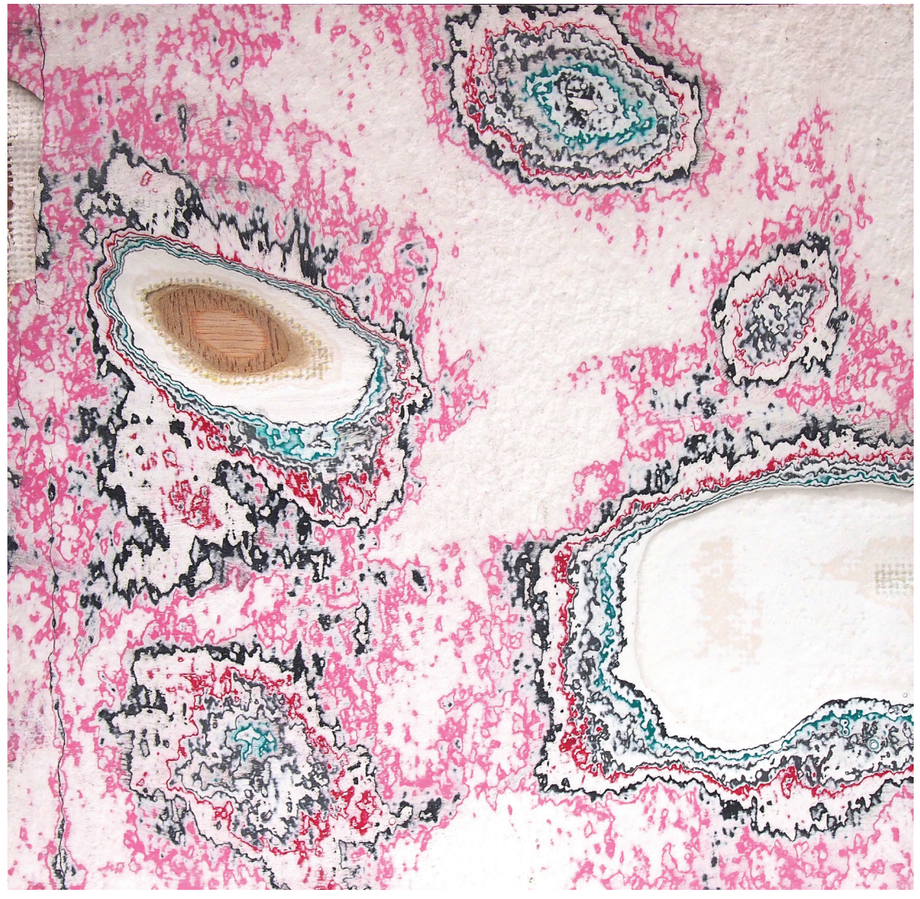
운영: 집단성 안에서 개별성을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것은 아쉬움

홍보: 사전예매와 홍보, SNS를 통한 작가와 관객의 공세까지!

심소미는 건축공학과 예술학을 공부하고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도시와 예술의 역학 관계를 탐구해 오고 있다. 《환상벨트》(돈의문박물관마을, 2018), 《건축에 반하여》(SeMA 창고, 2018), 《오더/디스오더》(탈영역우정국, 2017), 《2017 공공하는 예술 아카이브전시》(따복하우스, 2017), 《마이크로시티랩》(인디아트홀 공, 2016), 《모바일홈 프로젝트》(송원아트센터, 2014)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2018년 제11회 이동석 전시기획상을 받았다.



Part of Forest, 2018, Oil on Canvas, 60×60×60×3cm



살갗 아래의 해변 A–09, 2017,그라인더로 갈아낸 갤러리 벽, 21.5×22.5cm

고진이 *Koh Jinyi*

학력
건국대학교 현대미술

주요전시
2018 Stay, on the path, 갤러리 탐 역삼, 서울
2018 Beyond the Border, 빈티지204, 서울
2017 Color in space, 소노아트, 서울
2017 Rebooting, 대안공간 눈, 수원
2017 글로벌 아트 콜라보 엑스포, 코엑스, 서울
2016 Tay, on color, 갤러리 탐 이태원, 서울
2016 기억의 향, 힐리언스 선마을×대웅제약, 홍천
2016 Color, Inner Space, 갤러리 시작, 서울

수상
2018 동상, ART236
2016 입선, 미술세계 천하제일미술대전

연락처
rhwlsdl12@naver.com

김도희 *Kim Dohee*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

주요전시
2018 128미디어 아카이브전, 아트스페이스128, 대전
2017 허뿌리, 진화랑, 서울
2017 신여성 도착하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2017 정원놀이, 블루메미술관, 파주
2017 개와소를위한우정, 수유너머, 서울
2017 하부양생, 미인도 미아리 하부공간, 서울
2016 고색국제미술전, 고색뉴지엄, 수원
2012 만월의 환영, 대안공간 플레이스 막, 서울
2011 이상한 가역반응, 갤러리 이즈, 서울
2011 죽은 나무에 물주기, 인사미술공간, 서울
2006 미친나무, 김진혜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2018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2018 TOCAS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연락처
4doheart@naver.com



Modular, 2018, Oil on Canvas, 27.3×22cm



Dodo magic eraser, 2017, Gouache on Canvas, 35.5×48.2cm

김만순 *Kim Mansoon*

학력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학사

주요전시
2018 Cat Allergies, 갤러리 메이, 서울
2017 Open Air, 아이다호, 서울
2017 At The Rave, 아트247, 서울
2017 냉소적 긍적, 갤러리 메이, 서울
2016 Inner_Vision, 샘터갤러리, 서울
2016 Abstract Mind, 시카미술관, 김포
2016 A Whole New World, 세움 아트스페이스, 서울
2015 Monoscape–Seeing with the mind's eye, 언오피셜 프리뷰 갤러리, 서울
2015 Color on Canvas: Series 1,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파주
2015 NY 11205 10010, 샘터갤러리, 서울
2014 Painting Strategies to be Failed, 언오피셜 프리뷰 갤러리, 서울

연락처
Mikimart@gmail.com

김선우 *Kim Sunwoo*

학력
동국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Homo viaDodo, 필 갤러리, 서울
2018 Expedition, 수호갤러리, 서울
2018 생명의 노래, 수호갤러리, 분당
2018 예술, 여행이 필요한 시간, 인영갤러리, 서울
2017 도도, 두 도시 이야기, 팔레드서울, 서울
2017 Hide n seek, 갤러리 포월스, 서울
2017 Jungle of NewYork, Gallery291, 서울
2017 수호 사랑 나눔전, 성남아트센터, 분당
2017 –잇다, 상계예술마당(아트숨비), 서울
2017 ART MARKET 55, SPACE55, 서울
2017 을지로, 라이트웨이, DDP, 서울

수상
2018 우수상, 영아티스트 콘테스트
2018 브리즈 프라이즈, 에이컴퍼니
2018 우수 선정작가상 동상, ART 236
2018 입선, 서울디지털대학교 미술상
2016 최우수상, 아트팹랩챌린지 키덜트랜드
2016 젊은나래 청년작가상

레지던시
2017 3331 아트 도쿄 치요다 레지던시
2017 뉴욕 아트모라 갤러리 레지던시

연락처
Wind_island@naver.com



꽃다발, 2017, Oil on Paper, 28.4×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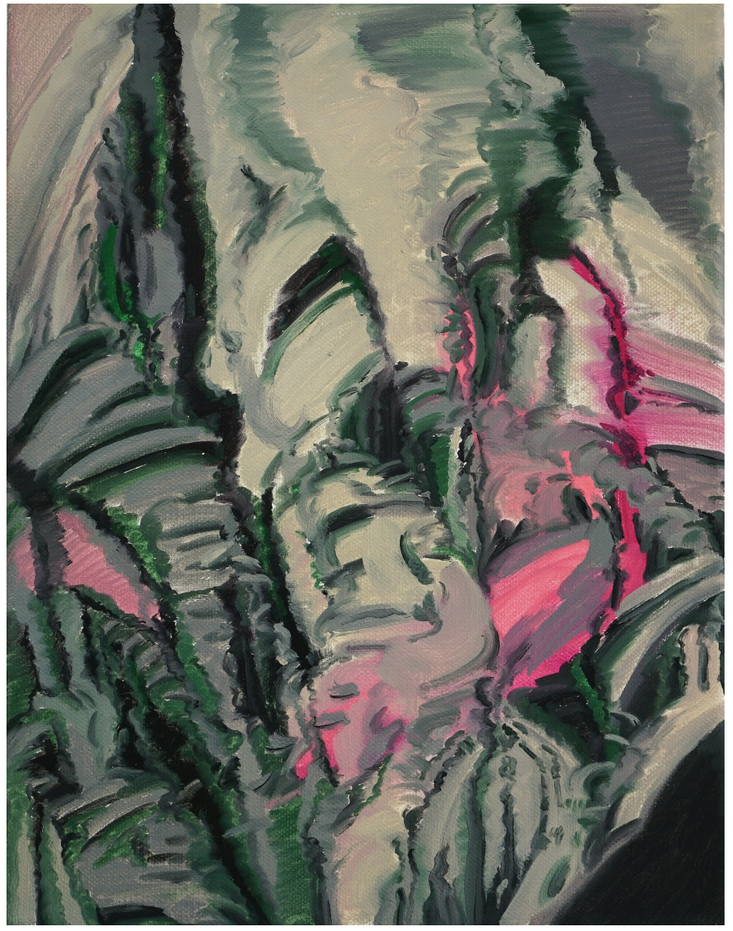
김인혜 *Kim In Hye*

학력
동덕여자대학교 회화

주요전시
2017 Be the 까망,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부천
2017 해외 이종교배 프로젝트–로컬 투 로컬, Frees Art Space, 타이페이
2017 서울모던아트쇼, 예술의 전당, 서울
2017 다시, 스페이스선+, 서울
2014 Below the Surface, 갤러리 토픽, 서울
2013 아무도 모른다,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연락처
iamene@naver.com



Pink Point, 2018, Oil on Canvas, 33.4×24.2cm

김지선 *Kim Ji Seon*

학력
런던 슬레이드 스쿨 오브 파인아트 회화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반복, 리듬, 차이,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8 보기-운동 Eye Movement, SeMA창고, 서울
2018 Recalling Another Memoery, Yamakiwa Gallery, 니가타
2017 Familliar, bur Unfamiliar, UM갤러리, 서울
2017 Nakanojo Biennale, 나카노조
2017 도큐멘트: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 청주창작스튜디오, 청주
2016 섭씨공간°C: The Temperature of Unknown Place, 청주창작스튜디오, 청주
2016 겸손해지는 경험을 위한 연구, 가천대학교미술관, 한국

레지던시
2017 대구예술발전소 7기
2015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9기

연락처
jsunny@gmail.com





답 없는 공간_근사한 악몽4, 2016, Mixed media on Linen, 36×28cm



You can be real a food hero, 2017–2018, Mixed media on Paper, 35×25cm

봄로야 *Bom Roya*

학력
홍익대학교 예술학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7 드로잉 페스티벌, 예술지구_P, 부산
2017 The Great projection O, 대만예술교육미술관, 대만
2017 도시시도 미래도시,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서울
2017 A/S (After Show),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6 불편한 고리들: 폭력의 예감, 스페이스 알떼에고, 서울
2016 연애의 온도, 서울미술관, 서울
2016 답 없는 공간: 근사한 악몽, 탈영역우정국, 서울
2014 사라의 짐, 스페이스 알떼에고, 서울
2012 0페이지: 움직이는 책,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09 눈물이 내리는 노래, 프린지클럽, 홍콩
2007 아구안타르 콘서트, 갤러리 아우재, 서울

수상
2017 신진여성문화인상,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레지던시
2017 대구예술발전소 7기
2015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9기

연락처
boomroya@gmail.com

안상훈 *Ahn Sanghoon*

학력
중앙대학교 서양화
독일 쿤스트아카데미 뮌스터 순수미술 석사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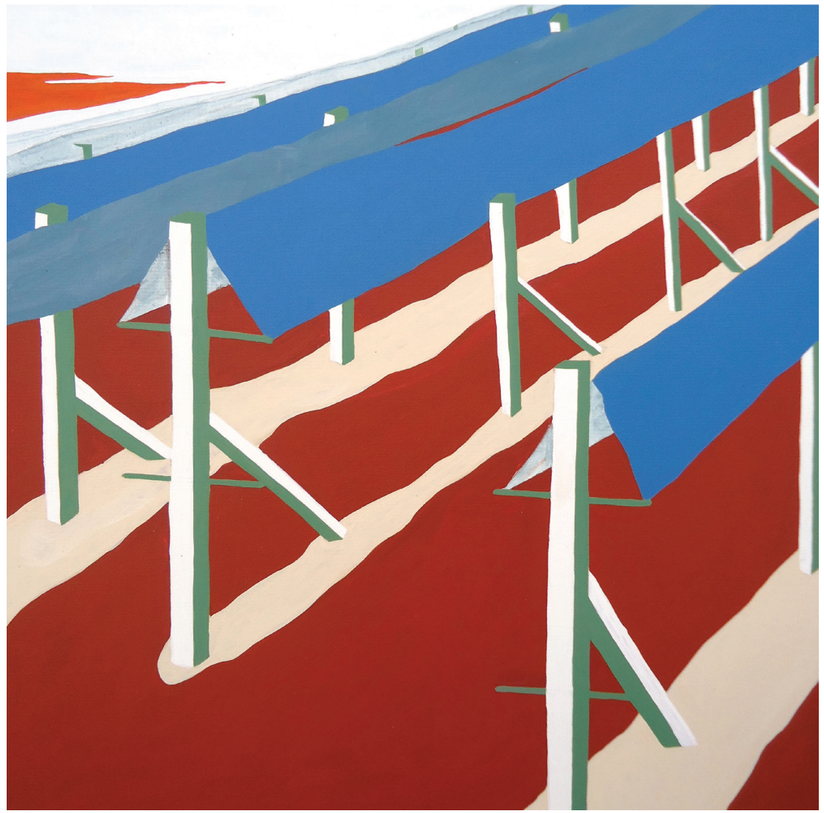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8 My shoes are a bit more colorful, 갤러리 조선, 서울
2017 GOOD: PAINTING,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친절한 농담, 살롱 아터테인, 서울
2016 아스팔트 위에는 빵이 자라지 않는다, 크라이스미술관, 오스터부르크
2016 캡슐 콜렉션, 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2016 브런치 트러블, 사이아트스페이스, 서울
2014 이상한 집, Sparkasse Buer, 겔젠키르헨

레지던시
2017–2018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5 쿤스트호프 다렌스테트 레지던시

연락처
9528as@naver.com



H–beam composition, 2018, Mixed media, 90×60×85cm



존재의 이유, 2017, Acrylic on Canvas, 37.5×37.5cm

이태수 *Lee Taesoo*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

주요전시
2018 개인전, 갤러리 구피, 서울
2018 국제조각 페스타–개인부스,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8 세운, 예술가의 실험실, 스페이스바421, 서울
2018 국제조각 심포지엄 특별전, 이천아트홀 아트갤러리, 이천
2018 십전십미 한중현대조각 교류전, 항저우
2018 Secret salon, 갤러리 원, 서울
2018 개관기념전, 갤러리 구피, 서울
2017 Vanishing point, 스페이스 선+, 서울
2017 메멘토 모리, 쿤스트 원, 서울
2017 Art N Work 'Culture & Art project, SJ 쿤스트할레, 서울

수상
2018 대상, 2018 국제조각 페스타

연락처
oiehat@naver.com

정진경 *Jung jingyeong*

학력
홍익대학교 판화

주요전시
2018 만디의 J씨, 2인전, 부산
2018 제1준비운동, 공예도사가있다, 서울
2018 라이브드로잉,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8 아티스트페어,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8 공간 & 소통, 범어아트스트리트 입주작가전, 대구
2018 사각사각, 아트팩토리, 서울
2017 너른 데서 핀(pin)하다, CR collective, 서울
2012 푸르름을 담다, 갤러리 온, 서울
2011 마주하다, 갤러리 아우라, 서울

레지던시
2017–2018 대구 범어아트스트리트

연락처
aria2790@naver.com



Untitled Cube S No.18, 2013, Pencil on Korean paper, 52×60cm



Inter-language in unconscious 08, 2016, Acrylic on Canvas, 53×45cm

편대식 *Pyoun Dae Sik*

학력
고려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SeMA 신소장품–하늘 땅 사람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8 Deerupt Artcon, Adidas Base Camp 107, 서울
2018 Compact Moment, 갤러리 엘르, 서울
2018 Stage, 갤러리 그림손, 서울
2018 아직, 10년, 스페이스선+, 서울

레지던시
2015 경기창작센터

연락처
truedaesik@nate.com

홍정우 *Hong Jungwoo*

학력
홍익대학교 판화 학·석사 졸업
로열 멜버른 공과 대학교 미술전공 박사졸업

주요전시
2018 뿌연풍경: 낙서독백, 사이아트스페이스, 서울
2018 감정의 무게, 세 번째 집, 서울
2018 Fly me To The Moon, 아트모라, 서울
2018 서울모던아트쇼 메세나 대상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8 Abstract Mind 2018, CICA museum, 김포
2017 몸이 기억하는 풍경, 레스빠스71, 서울
2017 Timid Violence: Doodling 소심한 폭력: 낙서, 가창창작스튜디오/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7 혼자낙서: Mind-mapping, Gallery Minnim, 서울
2016 Trace-Hide time 흔적-시간을 감추다, 라메르 갤러리, 서울

수상
2012 입선, International Triennial of Graphic Art Bitola, 마케도니아
2011 입선, Space International Print Biennial, 서울

레지던시
2017 가창창작스튜디오
2009 중국관란판화공방

연락처
kazewoo@hanmail.com

2018.6.23.—6.24.
아라아트센터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9길 26

2018.10.10.—10.14.
더케이지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287번길 31

2018 그림도시



(주)예술고래상회
website grimdosi.com
facebook /grimdosi
instagram @grimdosi





그림도시: 싱글채널 무빙 이미지를 위한 시장

양지윤(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2018 그림도시는 서울 아라아트센터와 부산 더케이지에서 총 5일간의 장터 행사로 구성된다.

서울 전시인 '그림도시 S#3 City Code'(이하 그림도시 S#3)는 일러스트, 회화 등 지면 작품을 위주로 진행된다.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림도시', 원화만 모아 관람하고 살 수 있는 '도시미술관', 아트북과 책을 판매하는 '책도시', 예술관련 워크숍과 강의를 진행하는 '도시학교' 등의 존에서 물성에 따라 나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부산 전시인 '그림도시 F#1 Time Sheet'(이하 그림도시 F#1)는 애니메이션과 영상 작품을 위주로 관객이 몰입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 그림도시 F#1은 물성이 없는 영상·애니메이션 작품의 유통과 판매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새로운 도시 속 존으로, 영상작품 자체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든 프레임(장면)을 물성이 있는 형태로 소장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판매한다. 부산 전시에서 관객은 메인 상영관에서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함께 관람하거나 개인 상영관에서 자신이 선정한 작업을 관람할 수 있다. 대다수의 영상을 전시하는 방식이 일방적인 반복재생으로 관객이 영상을 온전히 관람하기가 힘들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림도시 F#1에서는 관객이 자율적으로 영상을 관람하는 방식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몰입감 있게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면을 정확히 소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관람 중 소장하고 싶은 장면의 분과 초인 '프레임 코드'를 '타임 시트'에 적어 박스오피스에 제출하면 해당 장면을 지면으로 출력해 준다. 또한 작가가 추천한 주요 장면이나 플립북 등의 원화 및 에디션은 '프레임 숍'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관객이 영상의 원본 구매를 원할 시, 무단 배포 및 2차 상업적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 영상을 USB에 담아 구매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싱글채널 영상은 판매가 거의 불가능한 장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왜 시장이 부재하는 매체의 예술시장을 지원할까? 지난 3년간 작가미술장터를 현장평가하면서 이 지원제도 자체에 관한 의문이 들었다.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인 한스 애빙은 "정부에서 예술을 후원하는 이유는 예술적 가치와 시장의 가치가 서로 적대적이라는 전제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예술적 가치가 높으면 시장의 가치는 떨어지며, 시장의 가치는 예술적 가치를 해치는 요소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치와 반비례하는 예술적 가치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가난한' 예술가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낭만주의 시대 이전에 예술은 신성한 것으로 믿어져 왔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미술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술의 신성함은 작품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예술적 가치는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바바라 스미스는 "유용성, 이해관계, 가치의 배경과 같은 것들을 모두 없애 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술작품의 핵심가치는 사람들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작가미술장터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작업들이다. 소득수준이라는 경제적 가치만을 본다면, 예술은 가치가 없는 분야일 것이다.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는 많은 이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예술대학에 진학한다. 예술대학은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예술가로 생활할 수 있다는 낭만적인 메시지를 설파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술대학 졸업생 중 소수만이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다. 예술가로 활동하는 많은 이들 역시 작품 판매를 통한 생계 유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제 예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 미국 정부는 1930년대에 뉴딜정책과 함께 예술가들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시작했다. 서유럽의 정부들 또한 예술가들의 이러한 빈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부지원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이는 '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예술가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작가미술장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술가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원에 선정된 사업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대안적' 장터를 실험하게 된다. 정부지원 하에서 시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제 소득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작품을 즐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예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믿음과 궤를 같이한다.

다시 2018 그림도시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 기획자는 이 행사가 지향하는 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는다. "캔버스, 공예품 등 지면이라는 물성이 있어 판매·유통이 편리한 작품 뿐 아니라, 이러한 지면이 중첩되어 형성되는 애니메이션, GIF 등 소장이 어려운 영상작품도 함께 소개하고 유통하고자 합니다. (…) 동적인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도시 F#1을 새롭게 부산에서 선보이며, 물성이 없는 작품 자체와 자신이 정확히 원하는 장면을 소장할 수 있는 전시 및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획자인 윤영빈은 2015년 예술고래상회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201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LG패션 'Around the Corner × Seolzzi' 아트콜라보레이션, 2017년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와의 스포츠아트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주)예술고래상회는 다음의 설립 목적을 갖는다. "모든 예술의 장場과 전展의 목적이 작가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의 재생산에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이러한 장을 만들어 아티스트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설립된 회사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시장만의 작가 발굴, 중개, 계약 등의 업무에 특화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기획하며 더 나은 예술문화시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주)예술고래상회는 예술을 사용하여 문화산업을 벌이고, 예술가를 브랜딩하여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술작업이나 예술활동이 갖는 경제성 또는 시장성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출발을 정부의 기금에서 찾는다는 것이 지금 젊은 기획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정부의 기금은 정부의 인정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2018 그림도시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싱글채널 영상작업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작가의 작업 재료와 작품(에디션)의 물성 정보를 담은 가상의 '코드 시스템 Code System'을 개발한다. 관객이 좋아하는 재료·형태의 작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코드 시스템은 두 가지 전시의 특성에 맞게 각기 다른 코드 배열로 구성되며, 전시 속에서 관객들이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자기 큐레이션 장치로 역할을 한다고 밝힌다. 또한 굿즈와 같은 에디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일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층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제 개인적 취향이나 미감에 따라 소소한 금액으로 굿즈를 구매하는 것이다.

기획: 시장이 전무한 싱글채널 영상이라는 매체를 예술장터의 주요한 장르로 선정한 것은 큰 도전이다

운영: 작품의 분류나 운영은 제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잘 진행되었다

홍보: 기획자가 연고가 없는 부산이라는 지역을 선정한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양지윤은 대안공간 루프, 사운드이펙트 서울의 디렉터다. 미메시스아트뮤지엄의 수석큐레이터로 근무했고, 암스테르담 데아펠 아트센터에서 큐레이터 과정에 참여했다. 기존 현대미술의 범주를 확장한 시각문화의 쟁점들에 천착하며, 이를 라디오, 인터넷, SNS를 활용한 공공적 소통으로 구현하는 작업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다.



50m, Being and Not Being, 2015, 2018, Animation, 1920×1080px, 1분37초



병정이야기, 2018, Oil on Paper, 40×29.7cm

김영준 *Kim Youngjun*

학력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주요전시
2018 50m 두려움과 경이로움의 허구적 관찰자, 갤러리 밈, 서울
2017 어른들이 떠나버린 세상, 갤러리 밈, 서울
2016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사다리, 상상마당 아트센터, 춘천
2016 The Animation Show, 신세계갤러리, 부산
2015 디렉터스 컷, 대림아트홀, 안양
2015 있음과 없음,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구슬모아당구장, 서울
2012 한국 환경영화의 흐름, 서울국제영화제, 서울
2012 Electronic Language International Festival, The FILE, 상파울로
2011 Sakura Moment, 갤러리페이스, 서울

연락처
www.earthdesignworks.com
jack@earthdesignworks.com

김진수 *Justin Jinsoo Kim*

학력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주요전시
2017 Here is every where, 공상온도, 서울
2017 그림도시×가라지마켓, 비욘드가라지, 부산
2016 Roomno.2046展, 호텔수선화, 서울
2016 제17회 서강 미술가회 정기전, 로욜라도서관, 서울
2014 Listen.See.theMoon, 갤러리 인, 서울

수상
2018 시카프아시아–내장토끼, 2018 SICAF(서울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연락처
www.justinjinsoo.weebly.com



My Garden, 2017, Watercolor, Color pencil on Paper, 52.3×42.3cm



키린 소녀, 2017, Watercolor, Color pencil on Paper, 52.3×42.3cm

노보듀스 *Novoduce*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

주요전시
2018 일상의 한컨, P4SQUARE, 서울
2017 Alice into the rabbit hole, 갤러리아포레, 서울
2017 스포츠 아트 갤러리, 인천문학경기장, 인천
2016 숨은그림, 코엑스, 서울

연락처
instagram.com/novoduce
novoduce@gmail.com



도파민의 역사, 2018, Acrylic on Canvas, 137×3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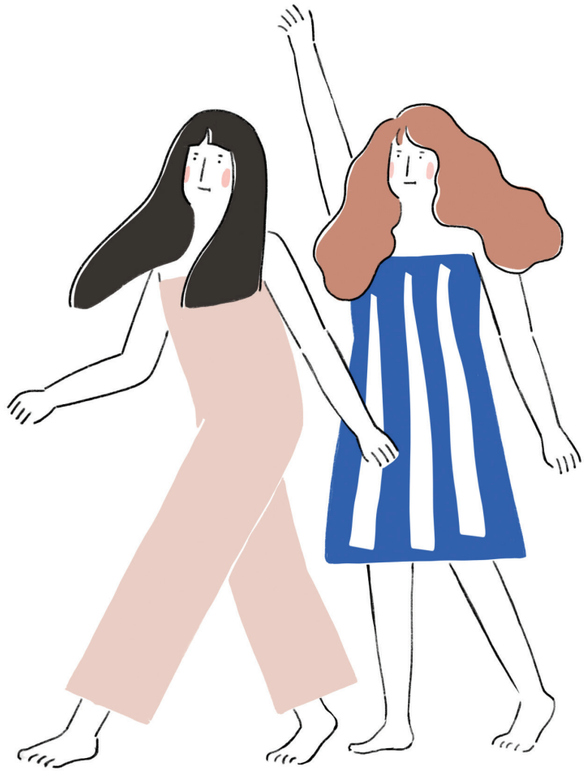
도파민 최 *Dopamine Choi*

학력
추계예술대학교 판화
런던 킹스턴 대학교 일러스트레이션&애니메이션

주요전시
2018 Pink Brain, 퍼블릭갤러리, 서울
2018 도파민랩, 오매, 서울
2018 경계적 유희, 갤러리 세줄, 서울
2017 생각, 생각 신해철 추모전, 진 갤러리, 서울
2017 서울모던아트쇼,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7 Start, Saatchi Gallery, 런던
2017 습가전, 진 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2018 신당창작아케이드 9기

연락처
www.dopaminec.com



저기로 가자, 2018, Acrylic on Paper, 130×160cm



RC카 드로잉, 2018, Acrylic, Pen on Paper, 39.2×39.2cm

드로잉메리 *Drawingmary*

학력
한성대학교 애니메이션

주요전시
2018 우리집에 놀러와, 아티굿띵 쇼케이스, 서울
2017 연희걷다, 연희동, 서울
2017 그림도시 S#2 도시국가선언

연락처
instagram.com/drawingmary

마우즈 *MAWZ*

학력
중앙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LET US, 갤러리아노브, 서울
2018 ReadyStance, 퍼블릭갤러리, 서울
2018 밝고 희망찬 미래, 치즈웨이브, 서울
2018 Fresh Art, 일조원갤러리, 서울
2018 용의비늘 신예작가전,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17 우연히 같은 곳에 있었다, UPP, 서울
2017 Choking Hazard, Kult gallery, 싱가폴
2016 1st Hyojabeer Poster Contest, Hyojabeer, 서울
2016 MASKS, Desel Art Gallery, 도쿄
2016 Launch Pad, Epoxy Lab, 서울
2016 New Drawing Project,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양주
2015 Good Bye Horses, UPP, 서울

작품소장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연락처
mawztown.com
mawzworks@gmail.com



성격이 불치병인 남자, 2016, Color pencil on Paper, 116.7×91cm



서기원 *Seo Ki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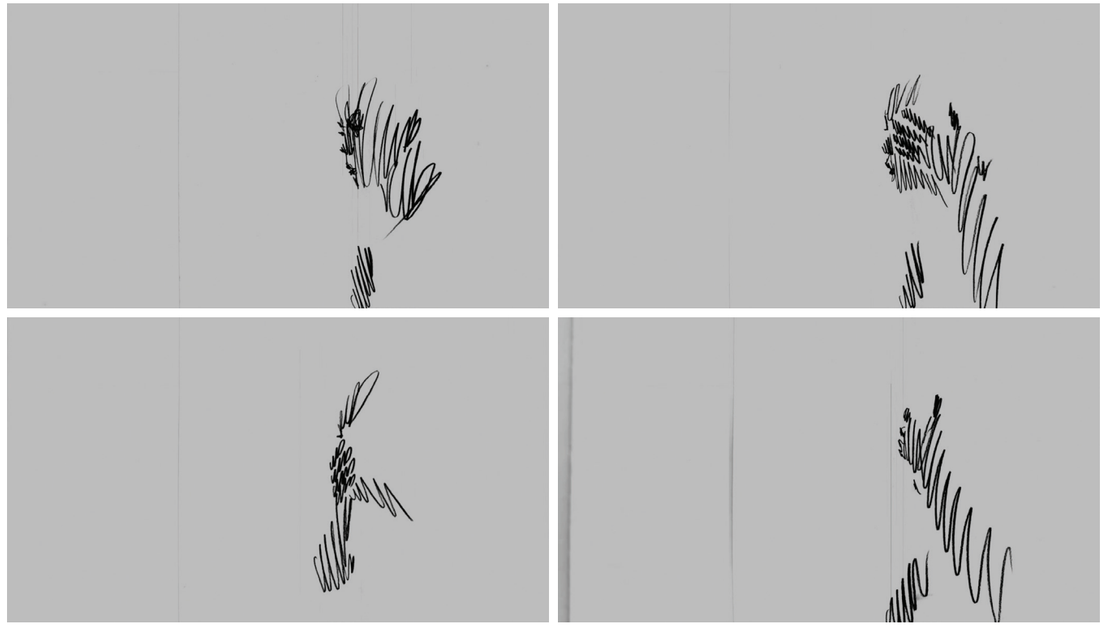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8 1st solo exhibition “FRANK”. 갤러리ANOV, 서울
2018 extended solo exhibition “FRANK”, 빈칸, 서울
2018 HAO OK션 [옥션] “소장의 기쁨”, 행화탕, 서울
2018 Union Art Fair, Let’s Make Together, S-Factory, 서울
2017 Illustration Festa 017, 인터페이퍼갤러리, 서울
2017 그림도시×가라지마켓, 비욘드가라지, 부산
2017 그림도시 S#2 도시국가선언, Layer57, 서울
2016 Design Art Fair, 예술의 전당, 서울
2016 Standing Tall, 이목, 서울
2016 THE MEDICI “Simple is the best”, 대림창고, 서울
2014 Spacehannam “GROTES-CUTE”, 스페이스 한남, 서울

연락처
instagram.com/seokiwon_
seokiwonart@gmail.com

설동주 *Seol DongJu*

주요전시
2017 City Trekking, 로그캠프, 서울
2017 일상의 단면, 소다미술관, 수원

연락처
seoldongju.com



얼굴지우기, 2018, Animation, 1920×1080px, 54초



빈방, 2016, Animation, 1920×1080px, 9분

성립 *Seonglib*

학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

주요전시
2018 독립, 그 이상의 역사–화성 사람들, 화성미술관, 화성
2018 Time of Black & white, 소다미술관, 수원
2017 말하기의 다른 방법,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 수원
2017 2nd NEW DRAWING PROJECT,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양주
2017 TIME : CONNECT, Y gallery, 서울
2016 時代憧憬, 익동다방, 서울
2016 폭발과 순환, 갤러리 밈, 서울
2016 R=VD, 창원창동아트센터, 창원
2016 Unusual Sympathy, 갤러리 밈, 서울
2016 Young Creative Korea 2016, 아라아트센터, 서울

연락처
seonglib.com

정다희 *Jeong Dahee*

학력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 애니메이션

주요전시
2016 The empty room, MOKA, 서울
2016 나, 무의 시간, 애니살롱, 서울
2016 3 Projections,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서울
2015 Man on the chair, 인디애니페스트, 서울
2010 Micro Clima, Espace Mendes France, 푸아티에

수상
2016 대상, 히로시마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016 Le Prix Emile-Reynaud, AFCA (France)
2016 대상, 서울 국제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016 Competiton,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France)
2014 Cannes 2014 Directors' Fortnight (France)
2014 Cristal for a Short Film Award,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France)
2014 심사위원상,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014 우수상, 인디애니페스트

레지던시
2013, 2017 Fontevraud Abbey, France
2017 Cinémathèque québécois, Canada

연락처
jeongdahee.com

2018.8.24.—8.26.
(구)중앙초등학교 후문 공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8

2018.9.1.—9.2.
주주&모나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17-1

2018 아뜨마트



모나드
website artt-mart.com





아뜨마트: 고도성장의 도시에서 예술장터라는 실험

양지윤(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2018 아뜨마트(이하 아뜨마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행사가 이뤄진 청주라는 도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청이 위치한 청주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 성장률 22.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위인 성남시의 성장률 (6.9%)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대단한 기록이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을 유치한 것을 시작으로, 반도체, 화학, 바이오 기업의 입주가 더해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가 15조 5,000억 원 가량이었다고 한다. 청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이들 산업단지가 모두 완공되는 2024년 쯤엔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청주시의 고용률은 62.5%를 기록했다. 인구 80만 이상의 7대 도시(청주,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용인, 창원)와 비교할 때에도 7대 도시 평균 고용률 57.9%, 경제활동참가율 60% 보다 높다. 이는 젊은 인구의 전방위적 유입을 의미한다.

아뜨마트를 기획한 김현묵은 자신의 활동으로 새롭게 유입된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말한다. 그는 프랑스의 디종국립미술학교에서 석사와 학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제 고향인 청주라는 지역을 무대로 활동 중이다. 2015년부터 청주에서 2달에 한 번씩 운영했던 '시민 빈티지 장터', 예술인과 비예술인의 드로잉 모임인 '목요 데생', 꿈다락토요문화학교인 '토요디잔', 청주 지역 행사와 함께하는 '썸머나이트마켓', 청주 시민들에게 레트로 문화를 전파하는 '레트로 마켓' 등 시민들이 보다 쉽게 예술을 향유하는 접점을 만들어 왔다.

올해 아뜨마트는 청주문화재야행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졌다. 청주문화재야행은 미디어 파사드, 거리 공연, 음식장터와 같은 시민 축제를 엮어 청주 지역 12곳의 문화재를 시민들이 거니는 행사다. 가장 시민 참여도가 높은 행사 중 하나라고 한다. 아뜨마트는 문화재야행을 구경 온 시민들에게 예술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번째 키워드는 "장바구니"다. 모든 관람객은 장바구니를 들고 입장한다. 입장한 전시장에는 수퍼마켓의 상품 진열방식을 사용하여 예술작품들을 진열했다. 작품들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고, 각각 라벨이 붙어있다. 라벨에는 "작품 제목, 작가 이름, 제작년도, 재질, 가격"이 적혀 있다. 입장객들은 수퍼마켓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듯이 예술작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아 입구에 위치한 카운터에서 구매한다. 두번째 키워드는 "재미있고 편리한 예술품 편의점"이다. 김현묵은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작가도 큐레이터도 아닌 관람객의 입장'이라고 말한다. 아뜨마트는 순수예술을 전시하는 화이트큐브 갤러리 공간이 아닌,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진행되는 마켓이다. 일종의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은 예술 갤러리 대신, 보다 일상적인 활동인 편의점에서의 구매 환경을 제공한다. 기획자는 "자신도 모르게 작품을 스스럼 없이 대하는 관람객들은 이 현상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오랜 예술시장의 관념과 현장이 조금 더 다양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기존 갤러리나 아트페어에서의 예술작품 구매는 여전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고급 예술계라는 선입견을 철저히 와해시켜, 아뜨마트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또한 고가로 인식되던 조형예술작품들을 3D프린터로 소형으로 축소한 에디션 제품, 판매나 복제가 어려운 작품을 실용화 가능한 아트 굿즈의 형태로 판매한다. 이를 위해 기획자는 의도적으로 '귀여운 마스코트'를 아뜨마트의 브랜드 이미지로 삼는다. 야구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그것이다. 초록색의 이 마스코트를 아뜨마트 여기저기에 부착한다. 그리고 "우리 동네 수퍼처럼 편안한 신개념 아트마켓"을 지향한다고 소개한다.

아뜨마트는 지금 한국의 젊은 노동 인구가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청주와 같은 크기의 도시에서 시민 계급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양식화된 특정 문화에 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김현묵은 “20–30대 청주 시민들에게 밤에 술 마시는 것 말고는 여가 활동이라는 게 없”다고 말한다. 아이돌 음악을 듣고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문화 생활’의 대부분을 의미한다. 이들은 문화산업과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작되고 유통되는 대중문화 외에 자신만의 미감이나 개성이 담긴 문화·예술에는 무관심한 듯 보여진다. 관객의 대부분이 현대미술에 무관심한 도시에서 현대 미술 기획자는 무엇을 해야할까? 김현묵은 그러한 시민들에게 예술을 통해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때로는 예술 교육의 형태로, 때로는 아트숍의 형태로, 그리고 이번에는 예술장터 형태로의 실험이었다. 김현묵이 2015년 설립한 ‘모나드’는 다음의 설립목적을 갖는다. “문화·예술 분야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서로가 가진 역량을 교류해 강화하며 연대한다. 문화·예술 향유자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예술인과 비예술인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아뜨마트가 진행된 기간은 충청북도에서 시민의 방문이 기간 대비 가장 많은 행사인 청주야행과 동일했다. 2017년 청주야행에는 3일 동안 9만여 명의 시민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청주야행은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녁 행사다. 하지만 청주야행에서 현대예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약하다는 판단에서 아뜨마트가 기획되었다. 청주야행의 중심부에 위치한 공원을 활용하여 시설물을 만들고 수퍼마켓을 차렸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예술품 구매를 경험”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아뜨마트는 “슈퍼마켓이라는 콘셉트로 장바구니에 예술 상품들을 담는다”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예술을 구매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옛날 동네 수퍼마켓의 시각적 특징을 담고, 구매하는 방식도 장바구니에 소품을 담는 콘셉트로 만들었다. 구매절차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현장결제가 가능하고 구매 직후 바로 작업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어려운 고가의 엘리트 예술이 아니라 게임하듯이 또는 장보듯이 예술 상품을 소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했다. 백호암 작가의 ‘미디어아트 시장에서의 VR 기법’에서는 VR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배해경 작가는 3D펜으로 입체와 평면을 함께 구현하는 ‘3D로 그리는 공간 드로잉’라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3D로 그리는 명화 드로잉’은 명화 속의 공간과 대상을 3D펜으로 작업하는 워크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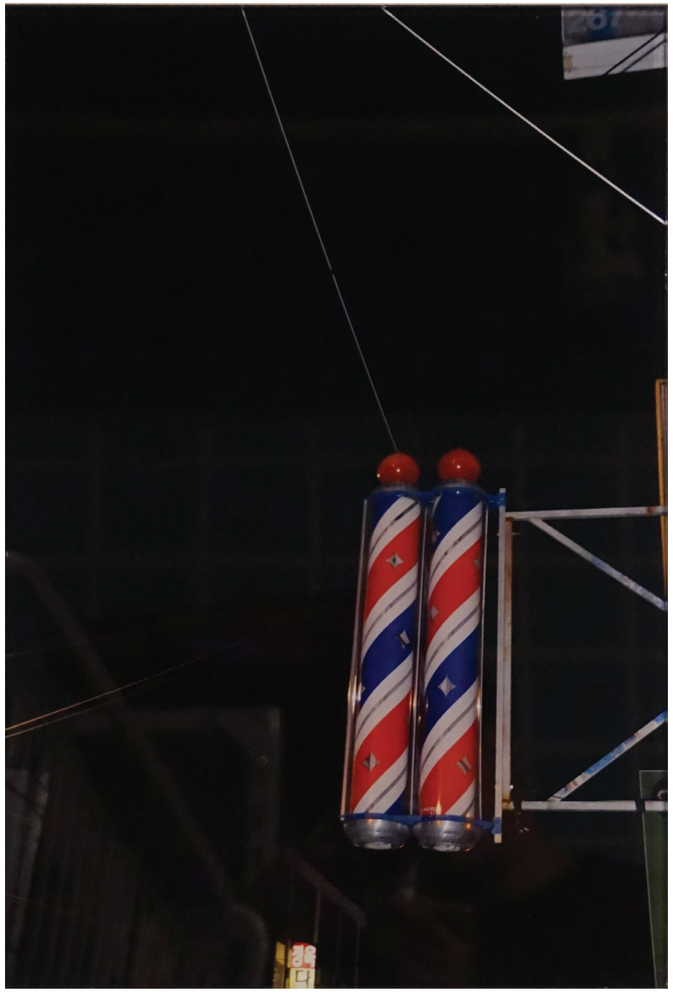
하지만 (구)중앙초등학교 후문 공원의 야외에서 진행된 올해의 행사는 계속되는 비로 시민 참여가 저조했던 듯하다. 우천을 대비하여 천막을 설치했지만 작품을 보호하거나 시민들이 여유롭게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였다. 예술작품이 아닌 예술 상품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예술로의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기. 청주에서 김현묵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기획: 수퍼마켓 콘셉트의 시도는 미술에 무관심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에 적절해 보인다

운영: 우천으로 관객 참여나 공간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

홍보: 청주야행과 같은 기간에 개최되어 홍보에 도움을 받았다

양지윤은 대안공간 루프, 사운드이펙트 서울의 디렉터다. 미메시스아트뮤지엄의 수석큐레이터로 근무했고, 암스테르담 데아펠 아트센터에서 큐레이터 과정에 참여했다. 기존 현대미술의 범주를 확장한 시각문화의 쟁점들에 천착하며, 이를 라디오, 인터넷, SNS를 활용한 공공적 소통으로 구현하는 작업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지극히 사소한 단편1–사직동 L, 2016, 디지털프린트, 435×295cm



시라카와고1, 2017, 엽서, 21×14.8cm

고정원 *Go Jungwon*

주요전시
2016 시스템에 대한 경의, 동부창고34, 청주
2016 고정원 개인전, 소호헌 12스페이스, 대전
2016 立冬小雪, Recycling Space 293, 대전
2015 NEXT CODE,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2014 발광하는 간판사,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4 Now&&Old, 우민아트센터, 청주
2013 사물의 가장 좋은 방법, 아트스페이스 이드, 청주

레지던시
2016 대전 소제 창작촌 레지던시
2014–15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1 청주 퍼블릭에어 레지던시

연락처
jungwongo@naver.com

구한나 *Koo Hanna*

주요전시
트리니티 블랙, 올라 클랜징 주스, 어스–카페 BX 디자인
서울시 도로백서, 현대 가이드북, 박현정 심청가 공연, 무주 박물관
나비관–책 BX 디자인

연락처
kooava91@naver.com



물속 누드1, 2016, 캔버스 위에 유채, 23×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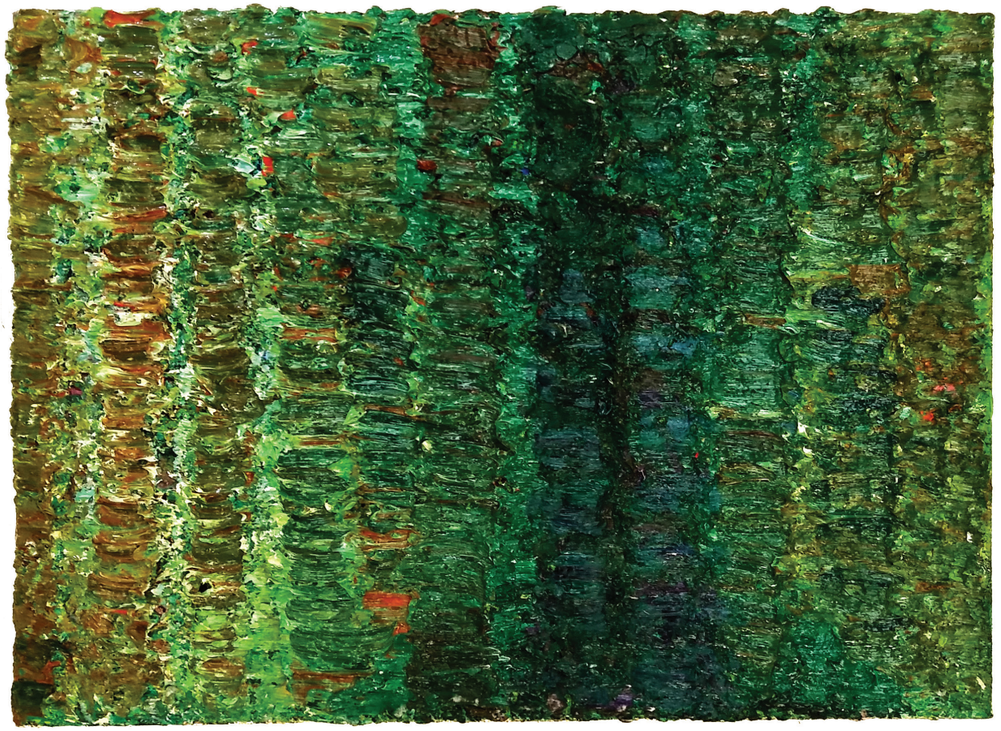
김현묵 *Kim Hyeonmuk*

주요전시
2018 관찰자시점,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청주
2018 권태응–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전, 충북문화관, 청주
2017 불안정, 마이페이버릿팅스, 청주
2017 사람들, 키오키오, 청주
2017 크로스오버 젊은 디자인,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청주
2016 강원 청년 환경 설치미술제, 주음치리, 홍천
2016 다시한지, 동부창고, 청주
2013 기억에 의지한 이미지, 우리문고 아뜰리에, 청주
2010 Sold, 프리바, 디종
2009 Petit, 프리바, 디종

연락처
kim.hyeonmuk@gmail.com



물속 누드3, 2016, 캔버스 위에 유채, 50×30cm



흐름–여름의 봄1, 2014, Oil on Canvas, 24×33cm



흐름–겨울의 봄4, 2015, Oil on Canvas, 24×3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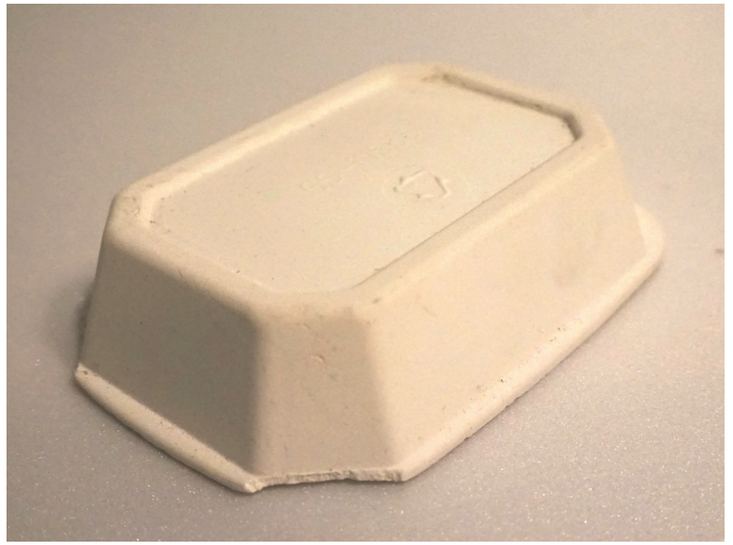
남경숙 *Nam Kyeongsuk*

주요전시
2018 색 흐름–feeling, 갤러리41, 서울
2018 봄을 봄, 키오키오, 청주
2014 Interact with esch other by color color color,
bcs갤러리, 뉴욕
2014 만인 아트전, 금보성아트센터, 서울
2012 나눔과 상생 1호전, 봄 갤러리,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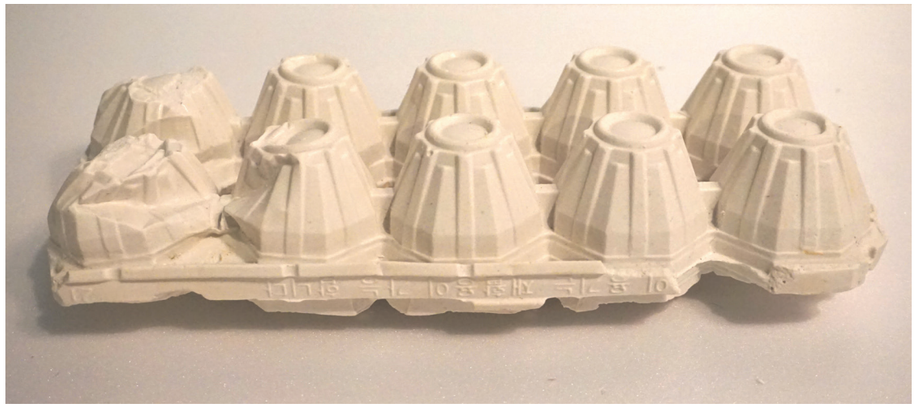
연락처
dnsrud12345@naver.com



氷層 빙층 ***Ice layer***, 2018, Lampworked, Pyrex glass, 7×7×12cm



Freshpack 2, 2018, 석고, 13×8×7cm



Freshpack 4, 2018, 석고, 20×13×10cm

박영호 *Park Youngho*

주요전시
2018 공예로 나누는 수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
2017 도계유리나라 오픈전, 삼척
2017 현대산업디자인 대상 전, 청주 예술의 전당, 청주
2017 제1회 공생 정기전, 청주시 한국공예관, 청주
2017 젓가락 페스티벌 전시, 연초제조창, 청주
2017 공예 트렌드 페어, 코엑스, 서울
2016 지역 연계 창업-창작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樂(LAC), 청주시 한국공예관, 청주

연락처
pyh980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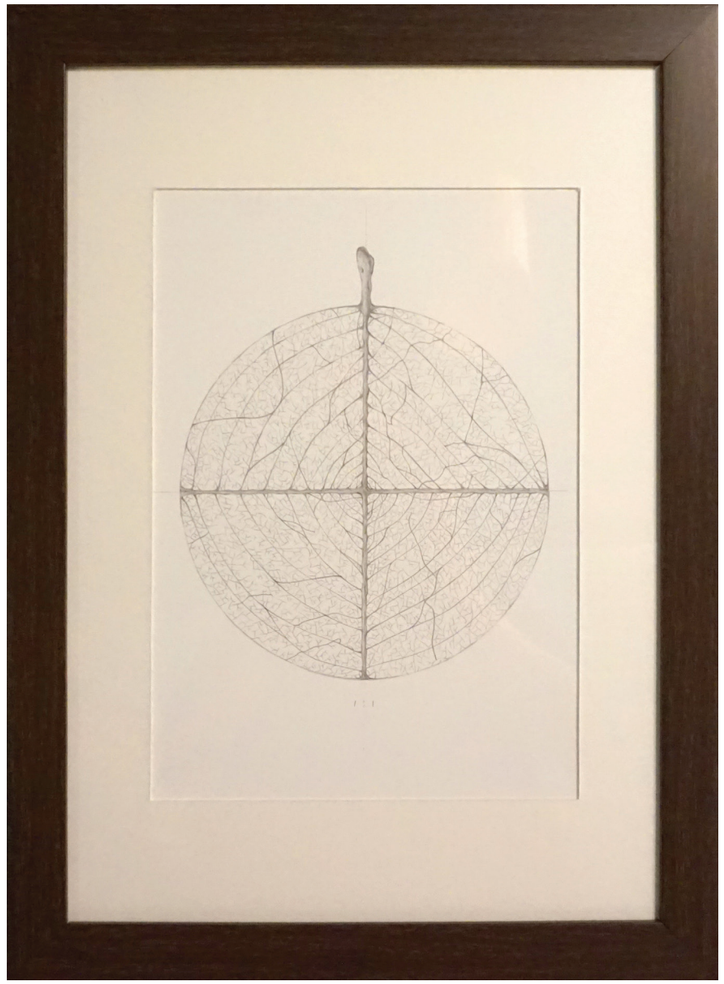
박진희 *Park Jinhee*

주요전시
2014 미아리블루스, 동방쌀롱, 서울
2013 아트프로젝트, 신흥시장, 서울
2013 The Texas Project, 서울
2013 Nature Play, 동방쌀롱 서울
2013 벌이총총 수수한 축제, 안산

연락처
dhommedart@gmail.com



무제, 2017, 디지털 프린트, 21×14cm



무제, 2018, 종이에 드로잉, 50×30cm

윤순영 *Yoon Sunyoung*

주요전시
2018 3232 Prologue, 거인의 정원, 제주
2017 얼굴이나 봅시다, 18번가 갤러리, 제주
2016 Home, 문화공간 8번가, 서울

연락처
annacraft@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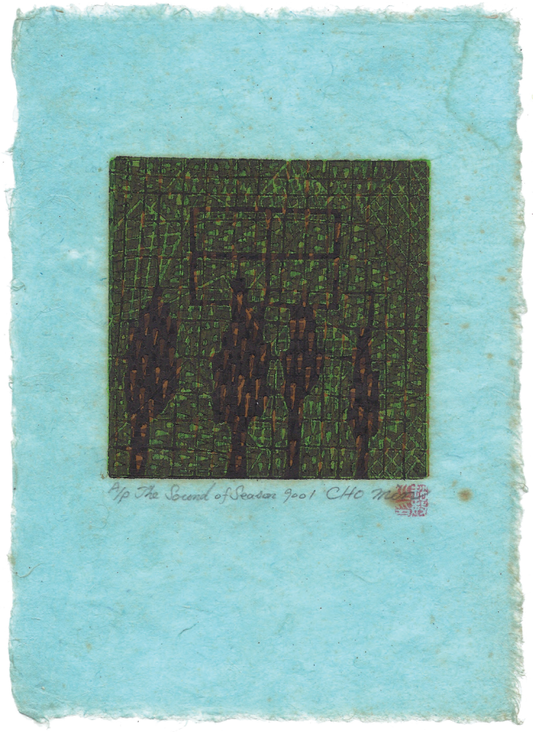
이승환 *Lee Seunghwan*

주요전시
2018 Carte de Visite, 브뤼셀
2018 Love ATH, 아트
2017 Autonomy, 브뤼셀
2014 Performance, 갤러리 104, 파리
2013 Le bureau de dessin, 갤러리 ESAL, 메스
2013 L'ombre, 갤러리 Namima, 낭시
2012 Monochrome, 갤러리 Chopin, 낭시

연락처
hawking88@naver.com



언타이틀, 2016, 캔버스에 혼합재료, 40.9×31.8cm



The sound of season, 1990, 목판, 10×10cm



Morning Break, 1990, 목판, 10×10cm

정은주 *Jung Eunjoo*

주요전시
2017 Portrait, CICA미술관, 김포
2017 단단히 묶는 법, 한전아트센터, 서울
2016 보행연습, 역삼1문화센터 갤러리, 서울
2016 강원 환경설치미술 청년작가전, 주음치리, 홍천

연락처
112knelt@naver.com

조민 *Cho Min*

주요전시
1991 조민 개인전, 보윤갤러리, 뉴욕

수상
1991 ACC상, 뉴욕 록펠러재단
1990 대상, 바르셀로나 국제 판화전

연락처
mincho1224@naver.com

2018.10.5.—10.15.
부산시민회관
부산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16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 부산



화이트테이블 예술인협동조합
facebook /WhiteTableArtistGuild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 부산으로 부팅하시겠습니까?

윤율리(아카이브 봄 디렉터)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부산에 간다. 업이 업이다보니 대부분은 주목할 만한 예술 이벤트가 열릴 때다. 서울의 편안함에 물든 내 얄팍함일지 모르겠으나 번화한 대도시인 부산으로의 출장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방문한 전시, 공연 혹은 세미나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와 무관히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엔 이런 것 역시 도시의 특별한 역량 중 하나다. 예술가들에게 친숙한 또 다른 장소들을 생각해 보라. 이를테면 부산에 비해 광주는 얼마나 청교도적인가? 할 것도 볼 것도 잘 곳도 없는 광주는 비엔날레조차 별로일 때 사람을 얼마나 급격히 우울하게 만드는가?

그런데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로 향하는 부산행 KTX 안에서 문득 나는 이 문제를 정 반대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떤 사실은 모순적이게도 상충되는 반대의 사실에 관한 새로운 단서가 되는 법이다. 부산 정도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고유성을 가진 도시에서 왜 2000년대 이후 '부산의 미술'이나 '부산의 미술가'라 부를 만한 대상들이 잘 가시화되지 않는 걸까? 나는 어째서 부산의 지역색을 자유분방하게 구사하는 젊은 작가를 만나본 적이 없을까? 부산에 사는 지인들이 많게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서울에 오는 동안, 왜 나는 (고작) 일년에 한두 번 부산에 가는가?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이하 화이트테이블)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은 솔직히 무척 뜻밖이었다. 화이트테이블은 이미 그들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충분히 검증된 데다 서울시립미술관을 효율적인 베이스캠프로 이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아무 연고 없는 부산에서 새로운 기획에 도전해야 할 당위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서울의 '아트페어'들은 최근 과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몇 가지 지점의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과도한 경쟁이다. 대중들에게 특별히 친화적이거나 유화적이지 않은 한, 광의의 '예술행사'가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매우 한정적이다.(통계로 파악할 때 그 숫자는 약 4–5천 명 정도 선이다.) 그들—한정된 관객들은 갑자기 불어난 미술 이벤트를 한정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관람한다. 어떤 경쟁은 시장의 건강함과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연 이것이 그러한 속설이 통용될 수 있는 시장인지는 의문스럽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로부터 관객이 호소하는 피로감이다. 어떤 종류의 예술이 더 이상 새롭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치명적이다. 더구나 근래의 '아트페어'가 궁극적으로 시장이란 형식을 메타-전유하는 미술 기획의 한 흐름이었다면 오히려 전유 이후의 것이 이전의 것을 양적인 면에서 압도하게 된 기형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부산에서 열린 새로운 화이트테이블은 이런 맥락에서 양자—'부산'과 '화이트테이블'에게 당면한 필요가 적절하게 상충된 결과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화이트테이블의 '부산 버전'은 서울이라는 OS와 수평적으로 교차하는 다른 장소에 인스톨된 응용프로그램 같은 것일까? 이런 구동방식은 작년 작가예술장터 사업에 등장한 PACK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큐레이터 심소미는 이를 일련의 인터페이스로 간주하면서 이같은 실천이 "특정 패러다임을 오히려 중성적(중립적)인 이슈로 전환"하며, "부재하는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마켓의 시스템으로 제안"한다고 썼다.("…PACK이 세 장소를 표류한 이유는 사실 장소의 특정 맥락에 있지 않다. 오히려 무관심할 정도로 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는 단지 선언으로서만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장을 구축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심소미, 2017 작가예술장터 결과비평집 74–77pp., 2017,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만약 우리가 PACK을 인터페이스로 이해한다면, 같은 연장에서 화이트테이블은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기획적 모듈,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유의미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화이트테이블이 열린 부산시민회관은 궂은 날씨에도 다양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뒤늦게 북상한 태풍으로 부산의 모든 것이 정지되었던 바로 그 다음주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회관 인근을 찾은 이들이 아무런 문턱 없이 전시장에 진입해, 저마다 다른 연령대와 구성으로 작품 앞에 모여 소소히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화이트테이블 운영진이 앞서 증명한 디테일의 짜임새를 생각할 때 현장의 요소요소가 모두 만족스러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기획의 이상적인 도달점이 (숙련된 유저가 부트캠프를 다루듯) 서울과 부산이라는 OS를 수평적으로 구동시키는 시뮬레이팅에 있었다면, 일정한 톤으로 정리되지 못한 전시 환경, 그리고 '이것은 아트페어'라는 사실을 동어반복할 뿐인 작가구성은 오히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제한적인 데모웨어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가급적 많은 다수에게 열린 기획임을 감안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작가와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하다. 그러나 지역자원을 최대로 연계·활용하는 과정에서 화이트테이블이 거둔 성과의 폭은 작지 않다. 무엇보다 현장을 지나는 시민 한 명 한 명에게서 이를 온전히 자신과 관계된 것, 그러한 경험의 확장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호의와 여유가 느껴졌다. 지방에서 '행사'를 치뤄본 기획자라면 이것이 얼마나 도달 불가능한 궁극의 목표인지 잘 알테다.

어쩌면 앞선 문제들은 화이트테이블이 로컬에 너무 잘 융화한 나머지 제 이질성을 모두 휘발시키고 취득한 모종의 안전한 감각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쓰지 않겠다. 지역 미술과 미술대학의 낙후함이나 그 배타적인 힘의 구조에 관한 길고 먼 이야기가 될 테니.

내년에도 부산에서 열릴 화이트테이블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까? 몇 가지 물음표에 나름의 답을 내려 보다가 조금 다른 종류의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과업에 자꾸 예술(혹은 예술에 대한 예술가 개인의 열정)을 갈아넣을까? 국가단위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을 안배하는 것은 응당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예술이 편리한 수단처럼 이용된다면 곤란하다. 예술정책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벽화가 아니라 더 진지한 사회적 공론, 연구, 지원, 고위 관료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다.

기획: 무난함이라는 미덕. 그러나 기억에 크게 남는 것도 없다

운영: 충분한 경험에서 오는 안정감이 돋보였다

홍보: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했다는 느낌을 준다

윤율리는 동시대 서울의 시각성을 재료로 예술의 현장 혹은 그 근방에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2015 페스티벌 봄, 2017 타이포잔치에서 편집인으로 일했고, 아르코 미디어 비평 총서 10 『증상들: 불면증, 현기증, 안구건조증』(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메타유니버스: 2000년대 한국미술의 세대, 지역, 공간, 매체』(공저, 미디어버스, 2015)를 펴냈다. 《윈터 클럽》(문화역서울284, 2018), 《오렌지 포디움》(시청각, 2018)을 비롯해 《여의도 모더니티》(SeMA 벙커, 2017), 《No More Fruits》(갤러리 팩토리, 2017), 《SILKY NAVY SKIN》(인사미술공간, 2016) 등을 기획했다. 갤러리 아카이브 봄과 글쓰기 에이전시 윤율리 라이팅 코퍼레이션을 운영한다.



물들다 1, 2015, 장지에 먹, 지름45cm

강민하 *Kang Minha*

학력
경성대학교 미술 석사

주요전시
2017 잔몽: 강민하, 경성대학교 제2미술관. 부산
2017 공동의 방, 경성대학교 제1미술관. 부산
2017 가려지지 않는 욕망, 해운아트 갤러리, 부산
2016 OPEN MATCH, 금정문화회관. 부산
2016 지상으로부터 2cm, 경성대학교 제1미술관. 부산
2016 젊음의 시선, 부산예술회관. 부산
2015 NEWGAZE, 해운아트갤러리, 부산

연락처
mining1992@naver.com



이기는 것이 좋아, 2017, 실크스크린(edition 13), 50×40cm

김효은 *Kim Hyoeun*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회화, 판화
라이프치히대학교 일러스트레이션

주요전시
2018 Gewinnen ist besser–이기는 것이 좋아, 갤러리 도스, 서울
2018 휴식, 기장힐튼호텔, 부산
2017 언리미티드 에디션9 서울 아트북페어 2017,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5 Taĭpi, Ortloff, 라이프치히, 독일
2015 Design &Narrative, KSDC, Prefectural University of Arts, 오키나와
2014 도쿄 아트북페어, 도쿄

연락처
hallofraukim@gmail.com



Field-silver#1, 2018, Oil on Canvas, 53×45cm



댕댕이와 꿀꿀이 도서관가다, 2018, Mixed media on Canvas, 53×33.4cm

박수형 *Park Suhyung*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
클랜부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회화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Selva oscura, 룬트갤러리, 서울
2018 Equilibrium, 사이아트 도큐먼트, 서울
2018 Between Black and White, 가고시포 갤러리, 서울
2018 공감 공간, 성산아트홀, 창원
2017 The between, art BN, 서울
2017 Shim invitational, Art Helix gallery, 뉴욕
2017 Urban Collage and the Collage City, Feral Factory, 덴버
2017 Day Dreamers, bG gallery, 산타모니카
2017 Texas National 2017, Cole Art Center, 나코도체스
2017 45th International Art Show, Brownsville Museum of Art, 브라운스빌
2016 Drive thru, Forum gallery, 브룸필드힐스
2015 Mediations, Forum Gallery, 블룸필드힐스
2012 Knocking, 카이스 갤러리, 홍콩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디트로이드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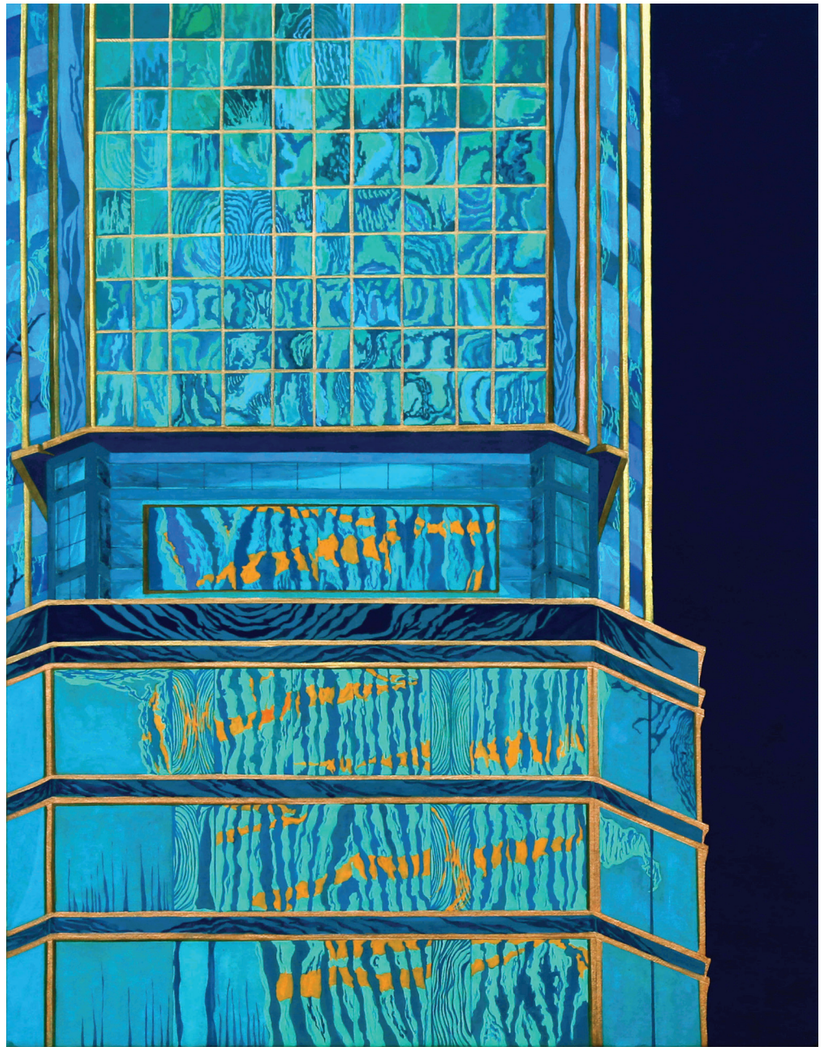
연락처
www.parksuhyung.com
parksoohyung0105@gmail.com

박하늬 *Park Hanui*

학력
울산대학교 서양화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박하늬 기획초대전,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산
2018 잘살아보개, 강남 머큐어 엠배서더호텔, 서울
2017 THE 폼나개(4), 광화문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연락처
psss0321@naver.com



욕망의 그림자#1, 2018, 장지에 채색, 53×41.3cm

이예리 *Lee Y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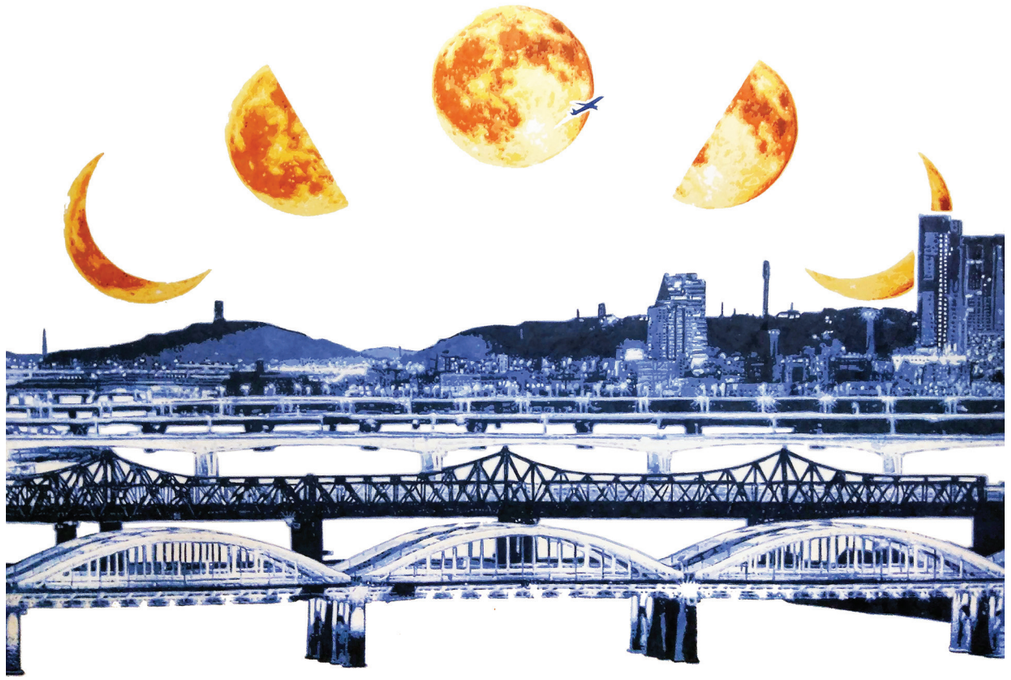
학력
창원대학교 미술

주요전시
2018 The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Burapha University, 방콕
2017 창원대, 경남대 4인 그룹전, Space1326 갤러리, 마산
2017 창원시 청년작가전시회-청춘예찬, 청년비전센터, 창원
2016 이예리 욕망산수, 시티세븐, 창원
2016 아시아프(ASYAAF), DDP, 서울

연락처
yeri290887@naver.com



욕망의 그림자#4, 2018, 장지에 채색, 150.5×55cm



TIMESLIP (blue hour bridge), 2018, 장지에 채색, 130×162cm

이지훈 *Lee Jihun*

학력
부산대학교 한국화

주요전시
2018 이지훈 개인전 TIMESLIP, 아트갤러리 오픈, 부산
2018 제7회 안국약품 갤러리 신진작가상, 안국약품, 서울
2017 이지훈 초대전 TIMESLIP in BUSAN, 선유갤러리, 부산
2017 제5회 부산 청년미술제, 시민공원 미로전시장, 부산
2017 제43회 부산미술대전 청년작가 특별상, 부산미술협회, 부산
2017 제1회 영호남청년예술제 최우수상, 매일일보, 대구
2014 이지훈 개인전 TIMESLIP, 갤러리 봄, 부산

연락처
gotorich@naver.com



TIMESLIP (pass over bridge), 2017, 장지에 먹, 청묵, 채색, 80×80cm



Adidas Dharma, 2018, Acrylic on Canvas, 75×56cm



다실바화분#5, 2016, Acrylic on Paper, 29.7×21cm

이정선 *Lee Jeongsun*

학력
경성대학교 연극영화

주요전시
2018 나는 덕후다, 부산시민회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2017 Autumn DHARMA, 신기산업, 부산
2017 달마, 이선장, 카페이든, 부산
2017 Brandnew DHARMA, 카페달리, 부산
2016 집들이전, 비꼴로, 부산
2015 보따리 극장전 영화의 기억, 모퉁이 극장, 부산

연락처
round3089@daum.net

조정은 *Jo Jungeun*

학력
동국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GREEN THE PLANET part.02 co-and-bloom, 갤러리 다온, 서울
2018 Everything under the sun, 갤러리 토스트, 서울
2018 GREEN THE PLANET part.01 co-and-seed, 아트컴퍼니 각, 서울
2017 레디메이드 인 다실바, 대안공간 눈, 수원
2017 경기예술신문 기획전, 아트스페이스 어비옴, 용인
2017 경기문화재단 아트경기 우리 집 우리 가족, 벨라시타, 고양
2017 a/s 지난 전시 다시보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7 ING…, G타워갤러리, 인천
2016 동네드로잉, 대안공간 눈, 수원

연락처
staroox2@naver.com



Ockchun five orange, 2013, Acrylic on Acrylic board, 100×100㎝



Look at me, 2018, 라이브드로잉, 부산시민회관

지희장 *Jee Hui Chang*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주요전시
2018 부유하고 수용하는 피부, 갤러리 도스, 서울
2016 Embracing and Floating Skin, 레호보트 시립미술관, 레호보트
2016 The Sky, wind, stars and poem, 5R Hall & Gallery, 나고야
2015 The Relationship, 89 Galerie, 파리
2015 Trace of Relationship, 팔레드서울, 서울
2015 Desire between the Relationship, Cite des Arts, 파리
2015 The Scene, 인사아트센터, 서울

연락처
Jeehuichang@gmail.com

홍원표 *Hong Wonpyo*

학력
단국대학교 동양화
홍익대학교 동양화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6 보네이도×프린트베이커리, 가나아트, 서울
2016 콜!브라보라이프, 코트라 아트콜라보 갤러리, 서울
2015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5 2015 국제 에디션 아트페어,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5 웃으면 공이와요, 인디아트홀 공, 서울
2014–2016 롯데갤러리 개인전, 서울/일산

연락처
shimpyo@naver.com

2018.12.12.—12.16.
일민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52

퍼폼 2018



퍼폼
website performplace.org
facebook /perform2018
instagram @perform_place





퍼폼: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명옥(사비나미술관 관장)

퍼폼 2018(이하 퍼폼)의 평가의뢰를 받고 행사 취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퍼폼의 소개글에 의하면 기획의도는 다음과 같다. “동시대 퍼포먼스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한 플랫폼으로, 국내에 아직 체계적인 시장구조가 확보되지 못한 퍼포먼스, 퍼포먼스 기반의 영상, 참여예술과 같은 판매대상이 되지 않았던 비물질 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토양을 마련하고 새로운 유통구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퍼포먼스 아트를 선보이는 실험적 프로그램은 국내외 비엔날레, 대형 미술관, 메이저 화랑 등 주요 전시공간에서 종종 열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는 작가 직거래 미술장터에서 물질이 결여된 예술작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퍼폼이 처음이었다. 순간 이런 의문이 들었다. 폐쇄적인 한국 미술 시스템에서 투자 대상도 소장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일회적 성격이 강한 신체 및 시간기반 예술시장을 구축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필자가 알고 있는 한 퍼포먼스 아트는 미술시장 진입이 어려운 예술장르였다. 미술가의 육체적 행동이나 행위에 의한 조형 표현을 하는 퍼포먼스 아트는 전위예술의 최전선 역할을 담당하는 실험적인 예술로 인식되었고, 반제도권, 반자본주의, 반시장을 추구한다. 이는 미술평론가 윤진섭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퍼포먼스는 무용이나 연극, 오페라와 같은 공연예술과 달리 대본에 의한 모체matrix가 없이 진행되는 ‘실연 예술 Live Art’입니다. 퍼포먼스 작가들은 이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인용 출처 표기)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트페어 중 특별섹션을 통해 비물질 예술을 다루는 사례는 간혹 있지만 퍼포먼스나 영상기록 등과 같은 형식의 작품들이 실제로 거래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퍼폼이 의도한 그대로 물질성이 결여된 예술의 유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열리는 퍼폼 행사장을 방문했다. 김웅현 대표와의 면담, 퍼포먼스 참관, 현장 분위기를 종합한 결과 성과 및 보완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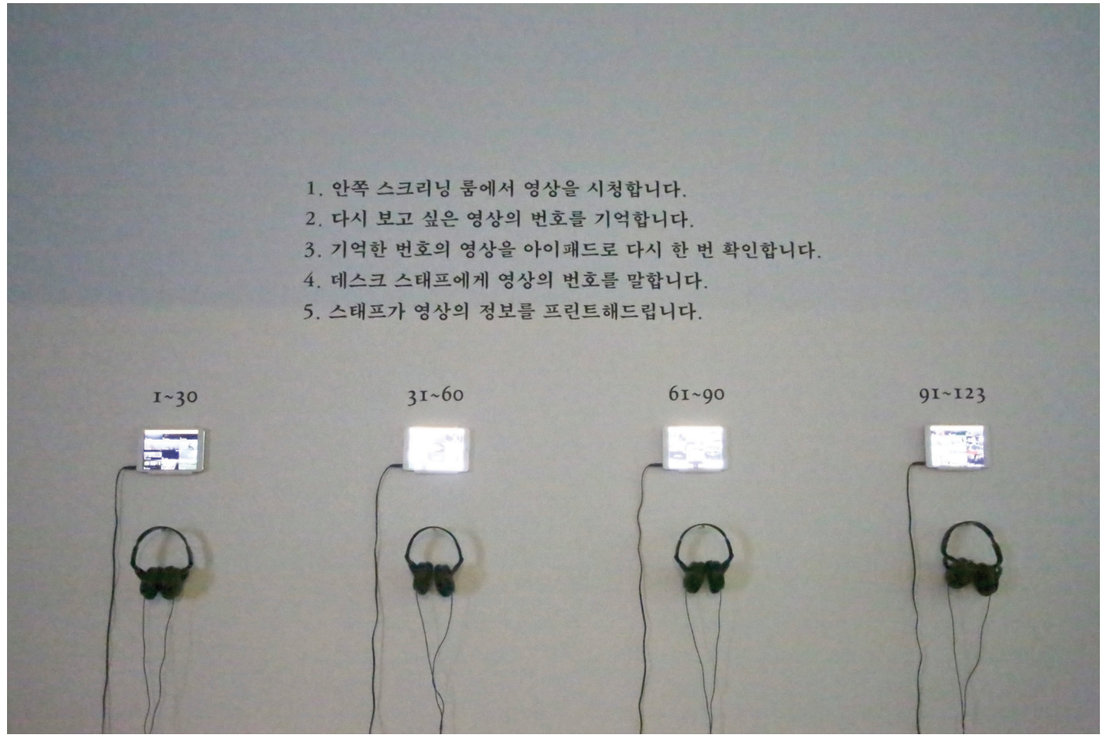
성과 부분

첫째. 출품 작품이 다양한데다 질적 수준이 높았다.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된 ‘인도네시아 69 퍼포먼스 클럽’을 비롯한 김보용, 류한길, 방용환, 송민정, 숌부르크사슴과 두루미와날치, 동백화, 유지원, 윤율리, 이랑, Mu:p, 오버레이프랍스(Over-Ray/Props), 오티 위다사리(Otty Widasari), 핑칸 폴라(Pingkan Polla), 프라샤스티 푸트리(Prashasti Wilujeng Putri), 14팀이 참여해 다양한 실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즉 인지도를 구축한 팀과 자체발굴한 신진작가들의 신작을 전략적으로 섞어 배치하는 기획력이 돋보였다.

둘째. 예술과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작품들로 새로운 영역을 확장했다. 2017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포크송을 수상한 이랑은 뇌공학자 장정준과 표정·감정인식 카메라 및 뇌파측정장치를 이용한 퍼포먼스 ‘크라우드 워크’를 진행했다. 아시아즉흥음악그룹 FEN(Far East Network)의 멤버 류한길은 스스로 비규칙적인 주파수 조직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강력한 음향적 효과를 만드는 장치인 ‘엔벨로프 데몬’을 선보였다. 김보용은 단파 라디오와 구글맵, 컴퓨터 운영체제를 매개로 진행되는 ‘반도투어’를 진행했다. ‘반도투어’는 현대의 기술을 빌어 시공간의 제약없이 세계에 접속한다. 작가는 이 세계를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다채롭게 선택가능한 불연속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송민정은 휴대폰 화면을 매개로 이동과 표류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김웅현과 정명우로 구성된 오버레이프랍스는 영상합성 기술로 무대 공간을 겹치고 확장하며 서사 중심의 다른 퍼포먼스 두 개가 서로를 참조하여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장면을 선보였다. 위 사례에서 나타나듯 비물질 예술과 신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작품으로 일반적인 퍼포먼스 아트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셋째. 비물질 예술의 담론을 생산하는 부대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직접 소통했다. 영상예술의 소비와 유통, 미디어와 퍼포먼스 플랫폼 현장에 관한 이야기 등





대중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비물질 예술장르에 대해 적극 소개하는 5가지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생생한 현장 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설명한 자료적·사료적 가치를 지닌 작가 55명의 작품 총 123편은 예술가들의 노력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를 예고편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팩' 상영으로 퍼포먼스 아트라는 미술의 새로운 형식에 관심을 가진 대중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넷째. 미술관과의 연계·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비영리기관이자 공공성을 가진 미술관을 공동주최자로 이끌어내어 행사의 질적수준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대관료 부담을 덜어내는 경제적 실익도 거뒀다. 향후 행사기간 동안 여러 전시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보완할 점과 향후 숙제

첫째. 퍼포먼스 전용 공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퍼포먼스 아트를 선보이기 위한 전용공간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퍼폼은 공연 티켓 판매비용으로 1,034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 풍성한 볼거리, 관객의 잠재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 창출로 자생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어렵더라도 외부 도움 없이 자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비물질 예술을 소장하고 싶은 미술관, 문화재단 등 예술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퍼폼 행사에 선보인 작품들을 여러 도시로 기획비를 받고 순회하는 투어링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유통 경로를 확보한다.

셋째.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체평가시스템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참여자, 작가, 관객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성과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관람객 스스로 SNS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술전문가 및 미술인들에게 메일링을 서비스하고 그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행사소식을 소개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작품, 행사장 내 다양한 활동을 수시로 소개함으로써 예비관객을 창출하고, 항시 움직이고 활동하는 듯한 역동적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 스스로 SNS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특히 젊은층을 겨냥한 인스타그램 홍보 컨텐츠 및 이벤트를 꾸준히 개발·운영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미술계에는 화랑을 거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작품을 파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품 판매행사인 직거래 미술장터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근거를 제시한다. 예술가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나, 현재로서는 화랑에 진입하지 못한 작가들이 작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화랑에서 작품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작가보다 화랑에서 작품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작가수가 훨씬 많고, 인지도가 없는 젊은 작가는 화랑에 초대되어 작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것.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직장인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직거래 미술장터에서 화랑마진을 뺀 가격으로 작품을 팔면 이중가격이 형성되어 유통 질서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미술장터에서 판매되는 작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사후관리나 환불거부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화랑에서 정기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콜렉터와 작가를 연결해 주는 접합지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퍼폼은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찬반 균형이 찬성으로 기울어지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겨냥한 명확한 사업목표 설정 및 특화된 콘텐츠 개발, 기존 미술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비물질 예술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기획: 콘텐츠 차별화에 성공

운영: 미술관과의 연계·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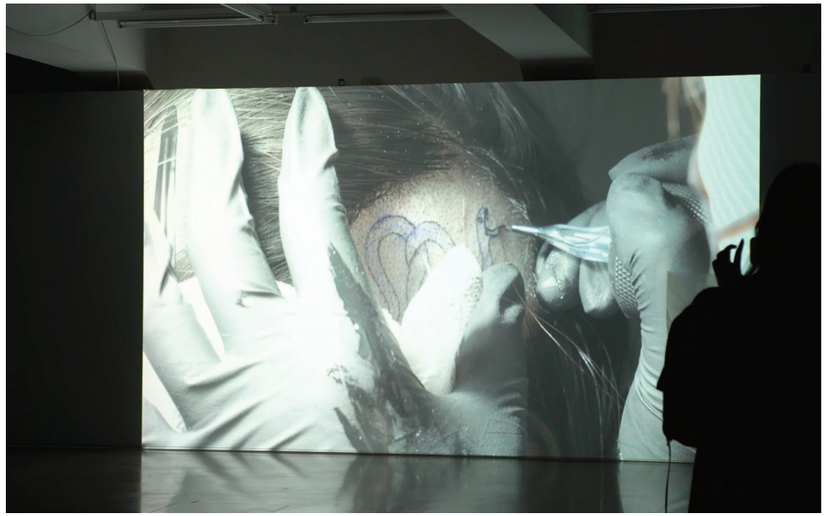
홍보: 젊은 관객들에게 친숙한 인스타그램, 유투브의 활용 등 이벤트 개발 노력이 미흡함

이명옥은 사비나미술관 관장이며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
(사)과학문화융합포럼 공동대표,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심의위원,
2017 미술의 해 미술주간 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위원회 위원,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위원회 위원, 부산시립미술관 9대 작품구입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 2017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조직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홍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했다.



반도투어, 2018, 퍼포먼스, 60분





몸의 기억법, 2018, 렉쳐 퍼포먼스, 50분

김보용 *Kim Boyong*

학력
계원예술대학교 백남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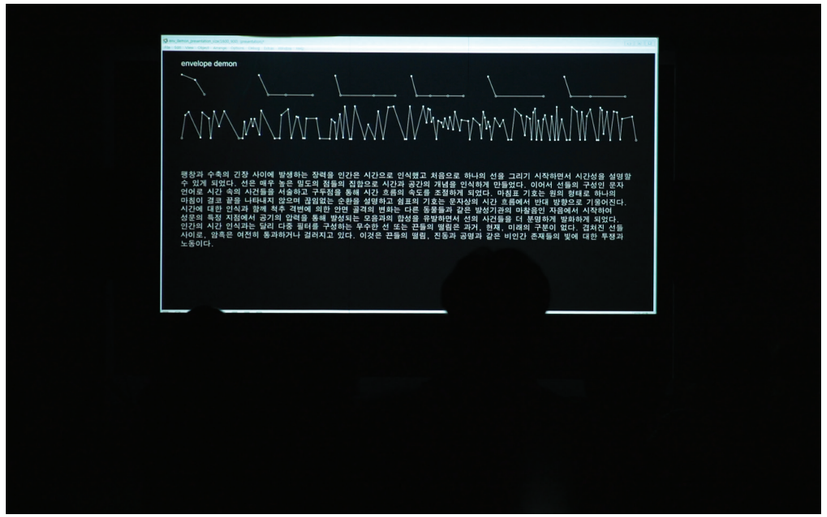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8 반도투어, 신촌극장, 서울
2014 MAP, 문래예술공장, 서울

연락처
voyonk@gmail.com

동백화 *Dongbaek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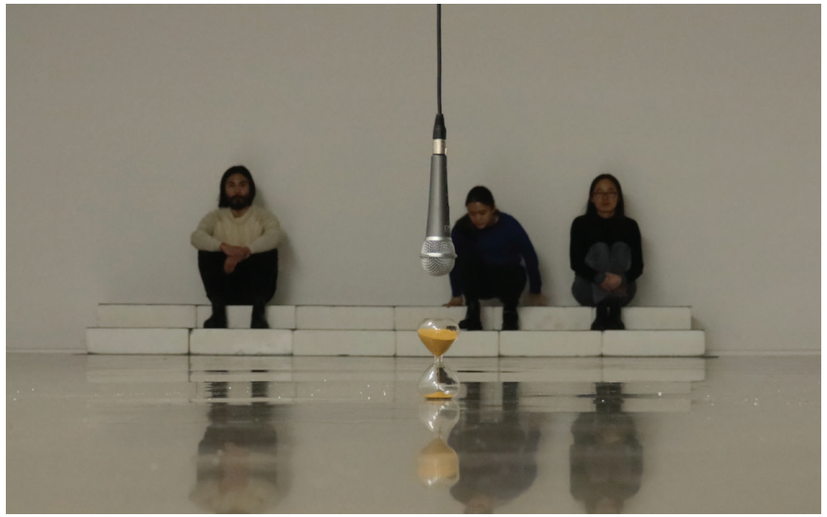
학력
대구대학교 회화

연락처
simjuhwa@naver.com





엔벨로프데몬/백낙진 교수의 인용문, 2018, 퍼포먼스, 60분





???, 2018, 퍼포먼스, 30분

류한길 *Ryu Han Kil*

학력
경원대학교 회화 학·석사 졸업
계원대학교 회화

주요전시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_좋은 삶 Eu Zên,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4 무잔향 페스티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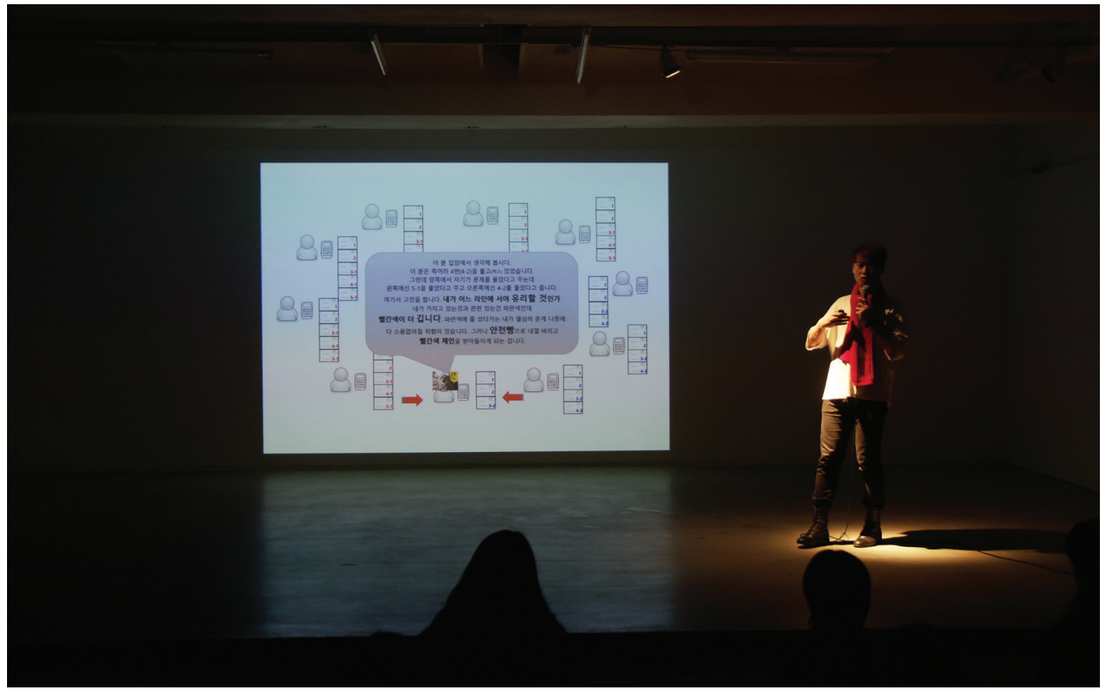
연락처
manual@themanual.co.kr

뭎 *Mup*

학력
성균관대학교 한국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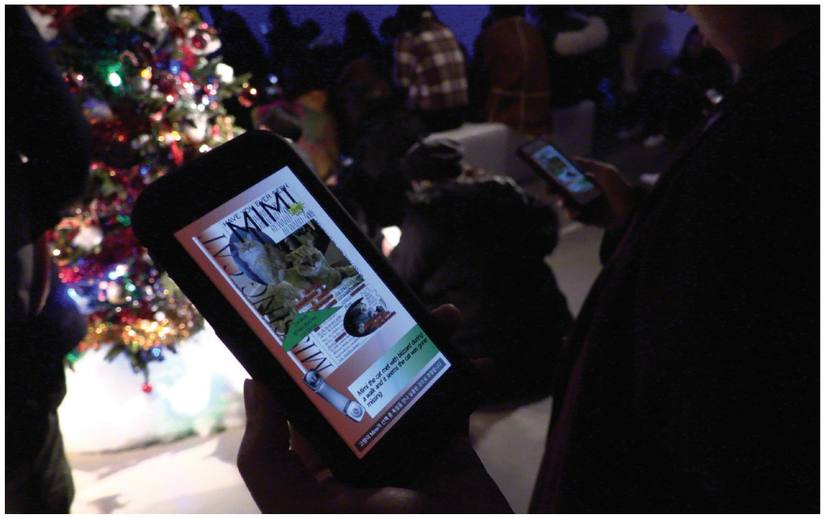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8 맑고 높은 소리,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2018 가드닝 시퀀스, 한강예술공원, 서울

연락처
mup.seoul@gmail.com



블록체인, 그거 먹는 건가요?, 2018, 렉쳐 퍼포먼스, 60분





Caroline, Drift train, 2018, 퍼포먼스, 60분

방용환 *Bang Young Hwan*

학력
카이스트대학교 엔지니어 학·석사 졸업

연락처
yhlvyp@gmail.com

송민정 *Song Minjung*

학력
건국대학교 현대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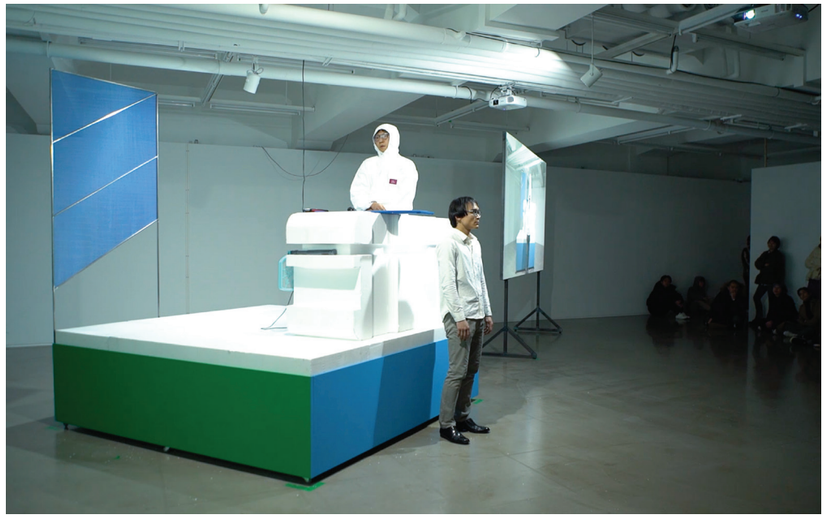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8 COLD MOOD_1000% soft point, 취미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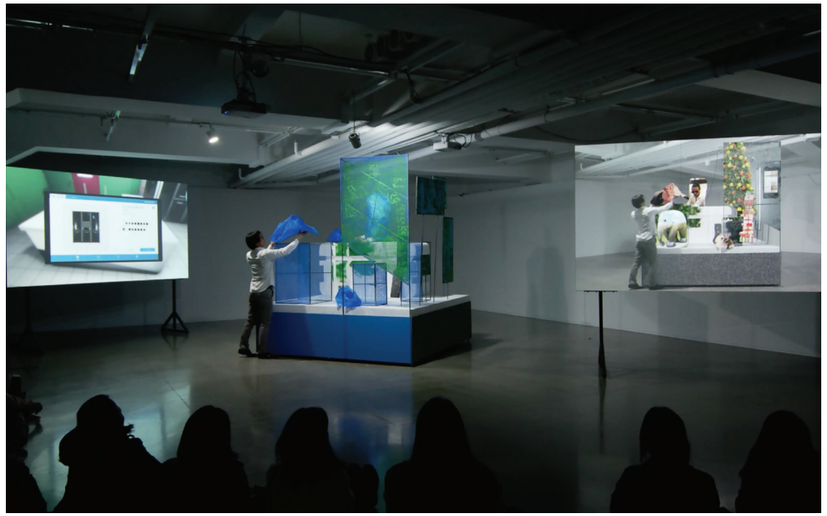
연락처
am.jaying@gmail.com





오프라인 바디스킵, 2018, 퍼포먼스, 60분





오버레이프랍스, 2018, 퍼포먼스, 60분

숌부르크사슴과 두루미와 날치 *Schomburgks Deer and durumiwanalchi*

학력
홍익대학교 도예유리

연락처
keatgnue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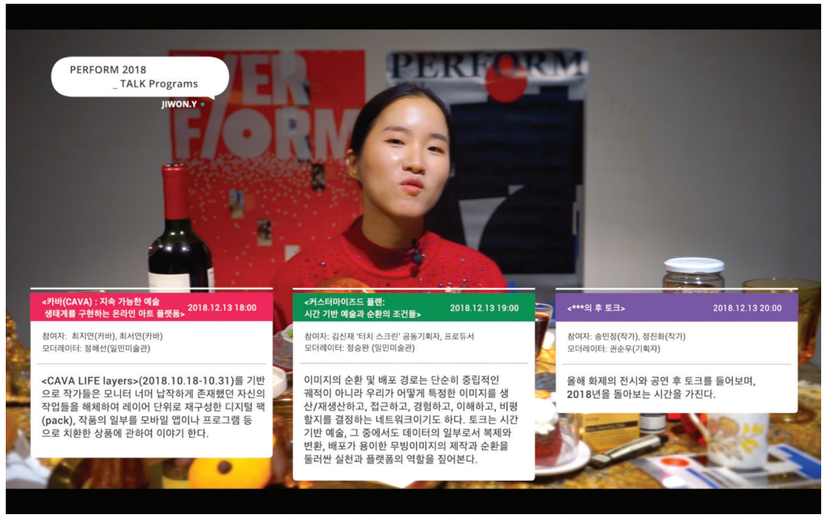
주요전시
2018 검은함수, 문래예술공장, 서울
2016 플루토의 동굴에서, 미연씨, 서울
2017 밤의 뒷면, 개방회로, 서울
2018 드리프트 앤 탭, 문래예술공장, 서울
2018 오프라인 바디 스킵, 문래예술공장 박스시어터, 서울
2018 오프라인 바디 스킵, 일민미술관, 서울

오버레이프랍스 *Over-ray-props*

학력
김웅현 국민대학교 회화
정명우 가천대학교 회화

주요전시
2018 오버레이프랍스, 퍼폼플레이스, 서울

연락처
howdywoong@gmail.com





퍼폼2018 완벽 가이드, 2018, 렉쳐 퍼포먼스, 영상, 30분

유지원 *Yu Jiwon*

학력
서울대학교 미학 학·석사 졸업

주요이력
2018 출판물 및 전시 『viewers』 편집
2016 포럼에이 편집위원, 미술세계, 아트인컬쳐, 계간시청각 기고

연락처
yujiwon0424@gmail.com



리플리: 퍼폼이라는 거짓말, 2018, 렉쳐 퍼포먼스, 60분

윤율리 *Yoon Juli*

연락처
yoonjuliwc.web.fc2.com





크라우드워크, 2018, 퍼포먼스, 90분



Oh Parmitu (The Supper), The Three Percuss, Kode Baik (The Good Code), 2018, 퍼포먼스, 60분

이랑 *Lee Lang*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

수상
2017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노래상

연락처
langleeschool@gmail.com

69퍼포먼스클럽 *69 performance club*

학력
Otty Widasari 자카르타 아트 인스티튜트
Pingkan Polla 인도네시아 대학교
Prashasti Wilujeng Putri 인도네시아 대학교

주요전시
2018 Media Art Festival, Pakan seni Media, 파울

연락처
akumassa.org
prashastiwp@gmail.com

2018.11.22.—12.4.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갤러리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932

Art at Home II
‘예술이 가득한집’



(사)베어스테일
instagram @art_at_home2018





Art at Home Ⅱ : 컨설팅을 통해 일상으로 들어온 미술품

정무정(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사)베어스테일이 기획한 Art at Home Ⅱ ‘예술이 가득한집’(이하 아트앳홈)은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개장되었고, 현장평가는 12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현장평가는 작품이 전시된 광주 신세계백화점 갤러리 내부와 로비를 둘러본 뒤, 사업책임자인 이선미 대표 및 김상연 총괄기획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획의도, 운영상황 그리고 신청사업의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현장평가 당일 부대행사로 진행된 윤남웅 작가의 포춘카드 제작 모습을 확인하였고, 복잡한 현장에서 벗어나 카페에서 사업의 성과, 진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총괄기획자의 진솔한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사)베어스테일이 기획한 아트앳홈은 1. 미술 분야에서 생소한 기술과 기법을 활용한 사진, 판화, 미디어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기회 제공 및 관람 제공, 2. 예술작품이 생활공간에 곁들여져 숨쉬는 공간, 상상적인 공간으로의 변화, 3. 예술이 어렵다는 인식을 허물고 생활공간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홈 아트 컨설팅’ 제공이라는 의도를 갖고 기획된 사업이다. 현장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미술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작가들의 판로개척 지원과 일반 국민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미술을 즐기며 미술품을 소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기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트앳홈의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운영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이라는 입지조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 요지에 자리한 백화점의 1층, 특히 주변의 명품관과 로비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입지조건은 미술소비계층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갤러리 공간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갤러리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수시로 관람객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미술과 일상적 생활공간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기획 취지에 걸맞은 입지선정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리적 장점에 비례하여 부각된 단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업계획서에 맞춰 갤러리 공간과 로비 공간을 모두 이용해 작품의 디스플레이가 이루어졌으나 신세계갤러리 대관시 제시된 조건, 즉 백화점 전체 외관이나 디스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해 작품의 설치나 디스플레이에 제약이 따랐고 로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갤러리 벽면의 유리 진열장이나 로비 설치물은 장터 사업과 무관하게 백화점 장식의 일부로 오인될 여지가 컸다. 향후 사업기획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갤러리 내부 네 벽면에 작품을 빼곡히 걸어두는 진열방식도 생활공간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아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다양한 공간 속에 설치된 작품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막상 화면에 집중하는 관람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주최측의 설명에 따르면 주말보다는 주중이 컨설팅의 효과가 크고 또 행사 이후에도 전화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나, 좁은 전시공간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컨설팅 공간을 마련해서 차분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컨설팅 제도는 금요일과 토요일 1–4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담당 전문가도 전남도립미술관 학예사 김정삼과 총괄기획자 김상연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다소 의심되었다. 주말보다는 주중에 컨설팅의 효과가 더 컸다는 기획자의 설명과도 모순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계획서와 달리 융통성을 발휘하여 기획자가 수시로 컨설팅에 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참여작가를 컨설팅 담당자로 활용하여 상시 컨설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전시장 벽면에 적힌 작품정보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다. 일부 판매된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대체한 경우 펜으로 직접 정보를 기입한 경우도 있었다. 작품 판매를 대비해 계획서에 명시한 것보다 더 많은 작품을 준비하여 판매시 바로 대체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처럼 설치환경이 다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작품 판매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진 6건, 중진 2건, 공예 2건의 비율로 나타난 작품 판매 추이는 미술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작가들에게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장터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성과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분야에서 생소한 기술과 기법을 활용한 사진, 판화, 미디어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기회 제공 및 관람 제공"이라는 기획의도는 미디어 작가들조차 모두 평면작업을 출품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작품 판매 실적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애초부터 그 기획의도가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거나 그 취지를 살릴 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

홍보면에서는 사전에 작품 디스플레이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작가와 작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SNS 홍보를 위해 홈 아트 컨설팅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장터사업을 지역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부금과 미술가 자비로 제작된 편지지, 엽서, 달력 등의 아트상품을 카운터에 비치해 관계자나 SNS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기증한 것도 관람객 동원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총괄기획자와의 면담에서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에 대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향후 사업공고에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평가서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사업공모요강에 기재된 인센티브 조항이 자칫 일부 신청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 조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부대행사와 사업실적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부대사업은 축소시키는 것도 효율적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부대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대 프로그램을 줄이는 대신에 참여작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아이디어를 부대 프로그램 시행으로 갈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서 작성시 예산, 장소, 작가수가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작가의 수, 작품의 질, 장소의 크기와 사업실적이 반드시 정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작가를 위한 사업 아이템의 적극적 발굴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작가의 수와 장소의 크기를 만회할 만한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작품가격 결정에 다소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보다 다양한 가격대와 크기의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기획: 일반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참신한 기획

운영: 백화점 갤러리 공간에 걸맞은 운영의 묘미가 필요

홍보: 모든 홍보 전략을 무색케 할 정도로 인파가 붐비는 백화점 1층 명품관 주변이라는 탁월한 장소선택

정무정은 뉴욕시립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을 역임 중이며 서양미술사학회 회장(2014–2016)을 지냈다.
서양 및 한국미술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논문과 『추상표현주의』(데브라 브리커 발켄 저, 열화당, 2006), 『피카소 월드』(존 핀레이 저, 미술문화, 2013) 등 다수의 번역서를 출간했다.



장난감 배와 할아버지, 2018, Acrylic on Canvas, 45.5×53cm

강미미 *Kang Mimi*

학력
전남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8 나무숲 기획전–드로잉 파티, 나무숲 창작 센터, 목포
2018 황토 드로잉–미인도와 숨, 이화갤러리, 광주
2017 자연, 아워캔버스카페, 서울 암사동)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보성/
전남대학교 역사관, 광주
2015 빛의 재해석, 자연드림카페, 광주

수상
2016 특선,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서양화부문

연락처
momo9309@naver.com

262



따땃한 떡차 마시고, 이열치열, 2013, 광목에 아크릴, 견사, 30×21cm

김지영 *Kim Jiyoung*

학력
조선대학교 공예디자인
조선대학교 섬유디자인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福받으시개,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7 어둠속에서 만물의 영혼을 일깨우다,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6 로우Mr.몽키,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4 별무리, 한평갤러리, 광주
2013 강진: 숨,결, 신세계갤러리, 광주

수상
2012 입선,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2012 특선, 전국한지공예대전
2011 장려상, 대한민국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2011 입선, 광주광역시미술대전
2011 장려상, 광주대표수공예품공모

연락처
welcome307@naver.com

263



돌림노래, 2018, 백토, 15×15×10cm

김치준 *Kim Chijun*

학력
조선대학교 응용미술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7 Urban Implosion–아시아의 도시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6 영원한 청춘의 도시, 광주–아, 무등이여,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2015 한·중·일 서예교류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5 꿈꾸는 당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5 MOA매흘국제환경미술제_교점, 시화호, 화성
2014 너덜겅을 빚다,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2014 운림길 산책, 해와복합문화공간, 광주
2012 검은바위 흰파도 생명의숲, 세심제갤러리, 제주
2008 그릇도 세상도 하얗게 눈에 덮였다, 원 갤러리, 광주

연락처
kcj4520@naver.com

264



Nomadic Landscape, 2016, Digital pigment print, 28×42cm

박세희 *Bark Sehee*

학력
조선대학교 서양화
런던 예술종합대학교 비주얼아트 석사졸업
국민대학교 입체미술 박사수료

주요전시
2018 광주비엔날레_상상된 경계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7 태국&한국 현대미술교류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실팟컨예술대학 아터리갤러리, 방콕
2016 48 뉘켈른 페스티발, 베를린
2016 쿤스트캄마 Kunst-kammer, 슐츠&용 갤러리, 광주
2016 이주 migration, 유·스퀘어복합문화관 금호갤러리, 광주
2015 FIAC Paris, Grand Palais, 파리
2014 광주비엔날레_터전을 불태우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

수상
2016 신진작가상, 신세계미술제

연락처
seheebark@naver.com

265



요리조리 1, 2015, 도마 위에 유채, 47×27cm

박수만 *Park Suman*

학력
전남대학교 미술

주요전시
2018 붉은 땅, 푸른 강, 검은 갯벌-무안 문호의 원류,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무안
2017 예술과 몸,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보성
2016 숨기고 드러내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
2016 음식남녀,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6 생활예찬, 롯데갤러리, 광주/대전
2015 헬로우아트,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5 1980년대와 한국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4 숨, 해와문화예술공간, 광주
2013 쇼, 롯데갤러리, 광주

연락처
supark00@hanmail.net

266



Sinan Gageod-5, 2012, Digital print, 41×60cm

박일구 *Park Il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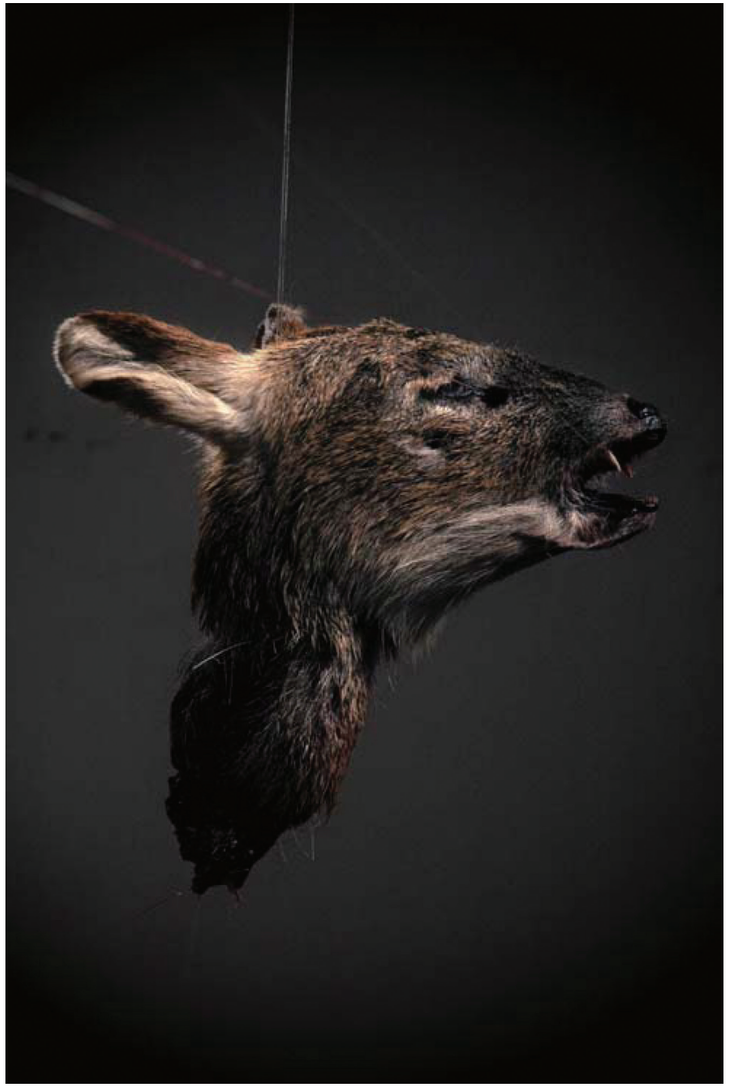
학력
조선대학교 사학
광주대학교 사진
중앙대학교 사진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풍경사이, 광주시립 사진전시관, 광주
2015 남도의 바다를 색으로 추상하다,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광주
2015 The South Sea, 호텔 더메이, 광주
2013 그룹 새벽, 옥과미술관, 곡성
2011 WITH SEA, 신세계갤러리, 광주

작품소장
광주시립미술관, 국립5.18묘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지방국세청

연락처
ggephoto@hanmail.net

267



Deer: Head Part, 2016, Pigment print, 25.4×20.3cm



사거리 치킨하우스, 2018, Oil on Canvas, 27.3×34.8cm

비콘 *B-cone*

주요전시
2017 Urban Implosion,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6 Combination, 아트스페이스 뽕뽕브릿지, 광주
2015 Beyond the Border, 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Center, 베이징
2014 이상한 시선: 2인전, Project Space Pilipinas, 룩반
2013 DOG, 미테우그로, 광주
2011 New Ink Installation_Chicken, Galerie ora-ora, 홍콩

연락처
braincone.tm@gmail.com

서완호 *Seo Wanho*

학력
전북대학교 서양화 학·석사 졸업
전북대학교 서양화 박사수료

주요전시
2018 Hidden Place,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광주
2018 PLUS, 슴, 교동아트미술관, 전주
2017 젊은 미술전, 교동아트미술관, 전주
2017 의외로 심플한 현대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5 Le visage de l'autre, 샤를롯트 노베르지 갤러리, 파리
2015 타인의 얼굴, 우진문화공간, 전주

수상
2015 김치현 청년미술상

레지던시
2018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015 상하이 윤아르떼 레지던시

연락처
half6877@naver.com



오래된 집, 2016, Mixed media, 가변크기

안희정 *An Heejeong*

학력
광주대학교 사진영상

연락처
iofi99@naver.com

주요전시
2016 트렁크 in art port,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6 홈그라운드,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6 이미지 스펙트럼, 담양예술창고, 담양
2015 다산과 영랑을 품으며, 강진아트홀, 강진
2015 The little house 집으로, 롯데갤러리, 안양
2012 곳 Somewhere, 롯데갤러리, 광주



Wind_1, 2016, Pigment print, 46×70cm

오태풍 *Oh Taepung*

학력
광주대학교 사진영상

연락처
0410wind@naver.com

주요전시
2018 스물의 파편, 복합문화공간공간 이다, 하남
2017 스물의 파편, 전북예술회관 둔벙, 전주
2016 비일상의 발견, 공단 파노라마, 팔복예술공장, 전주
2015 약광조건 예술제, 동진시장, 서울
2015 남도의 쌀, 갤러리D, 광주
2015 The moment, 복합문화공간 손과 얼굴, 서울



꽃, 2016, 혼합재료, 아크릴, 90×60cm

윤남웅 *Yoon Namwoong*

학력
전남대학교 한국화
선양 노신미술학원 중국화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7 미시적 서사, 일상의 기록,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무안
2016 또 다른 꽃, DS갤러리, 광주
2016 생활예찬, 롯데갤러리, 광주/대전
2016 한중현대미술 20인, 대학성미술관, 광저우
2015 바람 그리고 놀다, 자하미술관, 서울
2015 브라보! 3류, 광주시립미술관 서울분관, 서울
2014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세계갤러리, 광주

연락처
yoonnu2011@naver.com



아이스크림 걸, 2018, Gouache on Paper, 51×38cm

정다운 *Jung Daun*

학력
전남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7 우주소녀 vol.3, 주안미술관, 광주
2017 내일의 작가, 함평군립미술관, 함평
2016 제2아트 청년예술가 초대전, 담빛예술창고, 담양
2016 우주소녀 vol.2,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광주
2015 우주소녀, 유·스퀘어복합문화관 금호갤러리, 광주
2015 브라보! 삼류, 광주시립미술관 서울분관, 광주
2014 다방에 간 예술검객, 궁다방갤러리, 광주
2014 그 꽃이 되고 싶다, 함평군립미술관, 함평
2014 젊은작가 초대전_점핑, 리채갤러리, 광주

연락처
hamos2@naver.com

2018.10.24.—10.31.
로데오 왁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4

제4의 예술장터



경계없는예술센터
website event-us.kr/artmarket/Info
facebook /the4thartmarket
instagram @the4thartmarket





제4의 예술장터: 블록체인과 미술이 빚은 낯선 풍경

정무정(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경계없는예술센터가 기획한 제4의 예술장터는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개장되었고, 현장평가는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현장평가는 평면작품이 전시된 '1st Art Market'과 기념품 마켓인 '2nd Art Market'을 둘러본 뒤, 사업책임자인 이화원 대표 및 박무림 코디네이터와의 면담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마켓 플랫폼인 '4th Art Market'의 현황과 실적을 확인하고, 이후 '3rd Art Market'인 스페이스T 공연장에서 진행 중이던 퍼포밍 아트를 일부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오픈 당일 예정된 부대행사였던 '현대미술시장과 소액투자 미술품의 가치'라는 포럼을 대체해 열린 '청년작가와 4차산업' 포럼에 참석하여 제4의 예술장터 사업의 기획의도와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제4의 예술장터는 "미술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작가들의 판로개척 지원과 일반 국민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미술을 즐기며 미술품을 소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제4의 예술장터의 두 가지 핵심적 아이디어, 즉 "일상적 생활공간에 전시된 작품"과 "블록체인 시스템"은 대중의 관심과 이해 부족 및 운영의 미숙으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의 예술장터 사업이 보여준 문제점과 개선점을 아래에 정리해 본다.

제4의 예술장터 사업계획서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 아이디어는 일상적 공간에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의미있고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로 판단된다. 먼저 커피숍, 음식점, 상점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 작품을 전시한다는 아이디어는 전시장을 찾는 관객의 수가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정보 입수, 매매, 작품가격의 추이 확인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한 블록체인 시스템의 도입은 시스템의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기존 미술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혁신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경계없는예술센터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운영의 미숙을 보여주었다. 우선적으로 문래역 로데오 왁 거리가 일상에 작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절한 공간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가다가 또는 식사나 음주를 하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온 고객이 상점의 유리면에 설치된 작품을 보고 작품에 관심을 갖게 하기에는 각 상점의 쇼윈도가 전시공간으로서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상점의 광고나 상품안내를 피해 눈높이보다 한참 위로 동일한 작가의 10호 이내의 유사한 작품이 반복적으로 진열되어 시각적으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고, 특히 해가 진 후 상점의 내부 조명이 부각되면 작품은 거의 검은 실루엣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차라리 주변의 공공기관이나 학교와 같은 공간이 원래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블록체인 시스템도 개막일이 9월 18일에서 10월 24일로 한 달 정도 늦춰질 정도로 완성도나 안정성이 떨어졌고, 막상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객 뿐 아니라 작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해 결국 기획자의 인맥을 동원해 해당 시스템에 작품을 등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출했다. 오픈 당일 예정된 부대행사인 '현대미술시장과 소액투자 미술품의 가치'라는 주제의 포럼이 참가자 부재로 취소되고 평가 당일 현장평가를 고려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청년작가와 4차산업'이라는 주제의 포럼에도 관계자와 평가자를 포함해 총 7명 뿐이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일반 관람객의 관심은 전무했다. 관계자들이 시험삼아 시도한 몇 건의 매매가 실적의 전부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미루어, 결국 장터 사업은 개발된 시스템을 시험하는 의미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성격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구축은 자본력을 갖춘 영리사업 주체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술장터 사업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의 예술장터의 또 다른 사업은 퍼포밍 아트 마켓이다. 쇼케이스로 진행된 무료 공연을 통해 연극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방식의 공연예술작품 판매방식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으로, 평가 당일 참관해 본 경험으로 미루어 시각예술 분야보다 홍보나 관객의 참여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획이 포함된 것은 경계없는예술센터의 독특하고 영리한 운영인력 구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공연예술과 시각미술 분야의 인력을 갖추고 두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하며 서로의 분야를 부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공생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객의 참여도 많고 일상의 공간에 예술을 옮겨온다는 기획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시각미술 분야와 융합된 형태가 아닌 전통 연극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연예술 사업이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향후 공모사업 진행에 있어서 타장르의 예술 분야가 부대 프로그램의 차원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동등한 형태로 참여할 경우, 평가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개념 유통망에 대한 이해의 결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경계없는예술센터의 홍보전략 부재도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한 요인으로 보인다. 계획서상으로는 주요 일간지 경제부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협찬사로 지정하며 문래예술공장 메일링 서비스와 지역주민 네이버 카페를 이용한 행사안내 게시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명확하다. 온라인상으로는 온라인 뉴스매체인 뉴시스와 경계없는예술센터의 결제 및 홍보를 담당한 이벤터스의 네이버 블로그 2건 홍보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경계없는예술센터가 기획한 제4의 예술장터는 기획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취지에 녹여내는 기획력 부재, 운영 미숙으로 애초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술의 감상과 매매를 일상의 공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장소의 선정이 선행되었어야 하며, 동시에 작가와 작품의 선정도 기획자의 인맥이 아니라 선정된 공간의 특성을 토대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유통망 구축도 아직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 부재하여 그러한 시스템을 시험해 본다는 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그러한 시스템의 운영에는 기술적 차원만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개 비영리단체가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의 주체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은 관련 기관과 분야의 지원금으로 진행하고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짜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현재의 여건에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여 장터를 기획한다면 경계없는예술센터의 개성이 녹아든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기획: 제4의 예술장터는 장터의 콘셉트가 참신하고 혁신적이나 가상마켓 플랫폼 개발에 치중하느라 생활 속에서 예술을 공유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 커피숍, 음식점 등 상업시설의 쇼윈도에 전시된 작품은 기존 영업시설의 광고물을 피해 위쪽에 위치한데다 100여 미터 길이의 공간에 분산되어 행인들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안내부스에 앉아 있는 1명의 운영인력도 관람객이 없어서인 듯 적극적인 홍보의지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홍보: 온라인 홍보는 2건 정도만 확인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리플렛에 변경된 행사일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배포하는 등 안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정무정은 뉴욕시립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을 역임 중이며 서양미술사학회 회장(2014–2016)을 지냈다. 서양 및 한국미술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논문과 『추상표현주의』(데브라 브리커 발렌 저, 열화당, 2006), 『피카소 월드』(존 핀레이 저, 미술문화, 2013) 등 다수의 번역서를 출간했다.



***Daydream "beyond the horizon"* (상자를 열다)**, 2018, 도자, 80×55×4cm



Memory of Brave New Exercise: DE1932, 2016, Coffee and Ink on Paper, 26×32cm

강경연 *Kang Kyung Youn*

학력
홍익대학교 도예 학·석·박사 졸업

주요전시
2018 Daydream_beyond the horizon, 아트팩토리, 서울
2018 향기 나는 숲 속의 정원, 한향림도자미술관, 파주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광주
2017 URNEN: 골호, EKWC, 네덜란드 오이스터베이크
2017 대구아트페어, EXCO, 대구
2017 행복한?! 동물원,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2016 아트 타이페이, Taipei World Trade Center Exhibition Hall, 타이페이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특별전_오색일화, 반달미술관, 여주
2014 Colorful Wonderful, 갤러리 이도, 서울
2013 Art Road 77 아트페어, 포네티브 스페이스, 파주
2013 유쾌한 세라믹스, 세라믹스 창조센터, 이천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신촌세브란스병원, 수원시청, 한향림도자미술관, Lalit Kala Akademi(인도), InKo 센터(인도), 경덕진 도자대학(중국), 경덕진 세라믹뮤지엄(중국), Yingge 세라믹뮤지엄(대만), The Shigaraki Ceramic Cultural Park(일본)

연락처
cerakky@hanmail.net

김우진 *Kim Woo Jin*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
런던 골드스미스 파인아트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Kotodama, Para Site, 홍콩
2018 고독의 기술, 금호미술관, 서울
2018 AS_pedia Project vol.2, IN-East institute gallery, 뒤스부르크
2018 서바이벌키트: 불시착륙의 시작,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8 서바이벌키트: 긴급착륙 의외의 조합, 서울
2018 Active Filter, 고색뉴지엄, 수원
2018 무브!무브!무브!, 갤러리175, 서울
2017 Open Site, Brave New Exercise: Memorizes Movement, 아트앤스페이스, 도쿄
2016 Hidden Frame,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성남
2016 기억들, 미테우그로, 광주
2016 Up Beat, 서울 무용센터, 서울
2015 AS_pedia Project vol.1, 갤러리 퍼플, 남양주
2015 Build Up,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레지던시
2017–19 금호창작스튜디오
2018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스튜디오
2016 Taipei Bamboo curtain studio
2015 Yokohama Koganecho residency
2014–15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2014 Artist in Residence in Dunedin School of Art

연락처
mirssky@gmail.com



선인장 ***Cactus***, 2018, Inkjet print, 75×50cm

김정현 *Kim Jeong Hyun*

학력
중앙대학교 사진
함부르크 HFBK 순수예술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63아트 갤러리, 서울
2015 Summer Love,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4 현대미술, 런웨이를 걷다, 성남아트센터, 성남
2014 바깥에 갇히다, 문화공간 양, 제주
2013 Survival Game, 송은아트큐브, 서울
2013 시대의 초상, 초상의 시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예술은 얼마인가, 53갤러리, 서울
2012 I see you seeing me, 정다방프로젝트, 서울
2011 개입에의 충동, 갤러리 써니, 파주
2008 조감도, 스페이스 바바, 서울
2007 영화 없는 영화 Dream Ship 3호, 일민미술관, 서울
2006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스페이스 바바, 서울
2006 경미한 사건, HFBK갤러리, 함부르크
2005 Nah und Fern, HFBK갤러리, 함부르크

연락처
yakkeby@naver.com



Imagimary, 2018, Oil on Canvas, 90×180cm

김춘재 *Kim Choon J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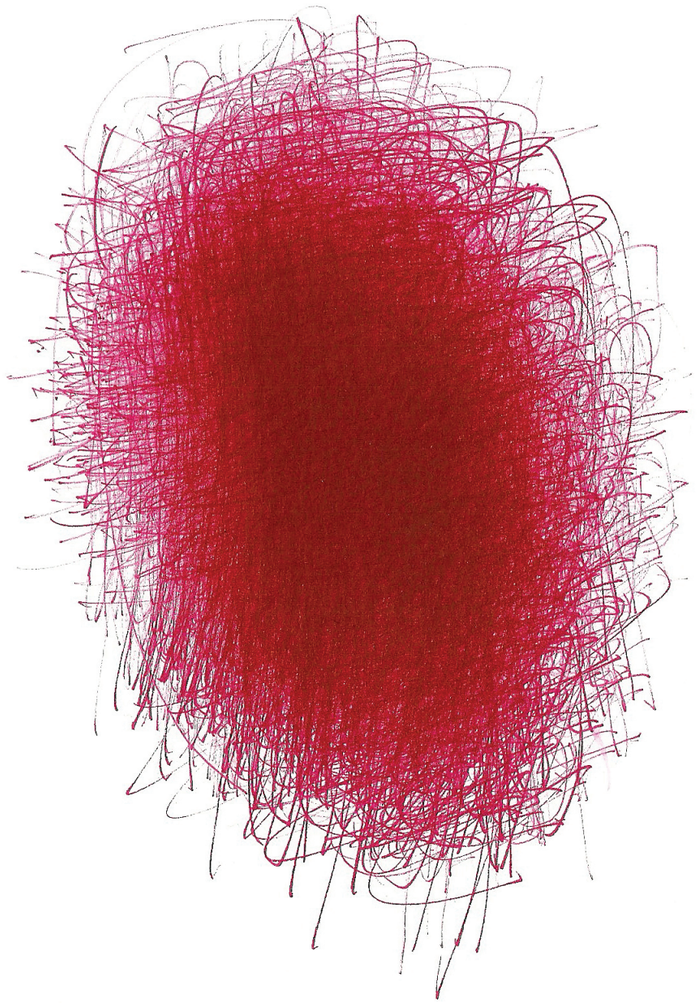
학력
홍익대학교 동양화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찬란하게 어두운, 서린스페이스, 부산
2018 기억의 밤 그리고 낮, 성북도원, 서울
2017 성남을 걷다,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성남
2017 경기아트프리즘,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7 제주비엔날레: 투어리즘, 예술공간 이아, 제주
2017 O의 조경, 성북도원, 서울
2017 플랫폼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6 The Great Artist,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6 Wet paint,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6 Sensible reality, 시민청, 서울
2015 묵선전, 아트스페이스H, 서울
2014 강산무진, 아트스페이스H, 서울
2013 낮과 밤, 갤러리 현대 윈도우, 서울
2011 Will of Gaia, 스페이스 선+, 서울
2010 Other's City_이야기1. 타인의 도시, 교하아트센터, 파주

레지던시
2016 인천아트플랫폼

작품소장
경기도미술관, 성남문화재단, 포스코미술관

연락처
www.choonskim.com
choons81@hanmail.net



Truth, 2016, pen on paper, 31×23cm



허공, 못 끝에서 벌어지다, 2016, 피그먼트 프린트 페이스마운트, 50×40cm

나혜령 *Na Hye Ryung*

학력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주요전시
2018 Still, The 3rdPlace, 서울
2018 Leave, 대안공간 눈, 수원
2018 Art Spectrum, The 3rdPlace, 서울
2018 New Thinking, New Art 2018, Gallery Violet, 서울
2018 Seoul New Face Art, 뚝섬 J Bug, 서울
2018 Spirit of Art, Korea Daily Art Center, 로스앤젤레스, 미국
2017 The Bedroom, Holland Tunnel Gallery, 뉴욕
2017 Newfoundland, Real and Imagined, The House Museum, 길람스
2017 Fare Thee Well, The Arts Center Corvallis' Corrine Woodman Gallery,코밸리스
2017 The Bedroom, Joyce Goldstein Gallery, Chatham, 뉴욕
2017 Uprise-Angry women, The Untitled Space, New York City, 뉴욕
2016 Loop, Sheila C. Johnson Design Center, 뉴욕,
2016 Breaking the spell: Na Hye Ryung, WAS Biennale, 예산

연락처
www.hyeryungna.com
na.hyeryu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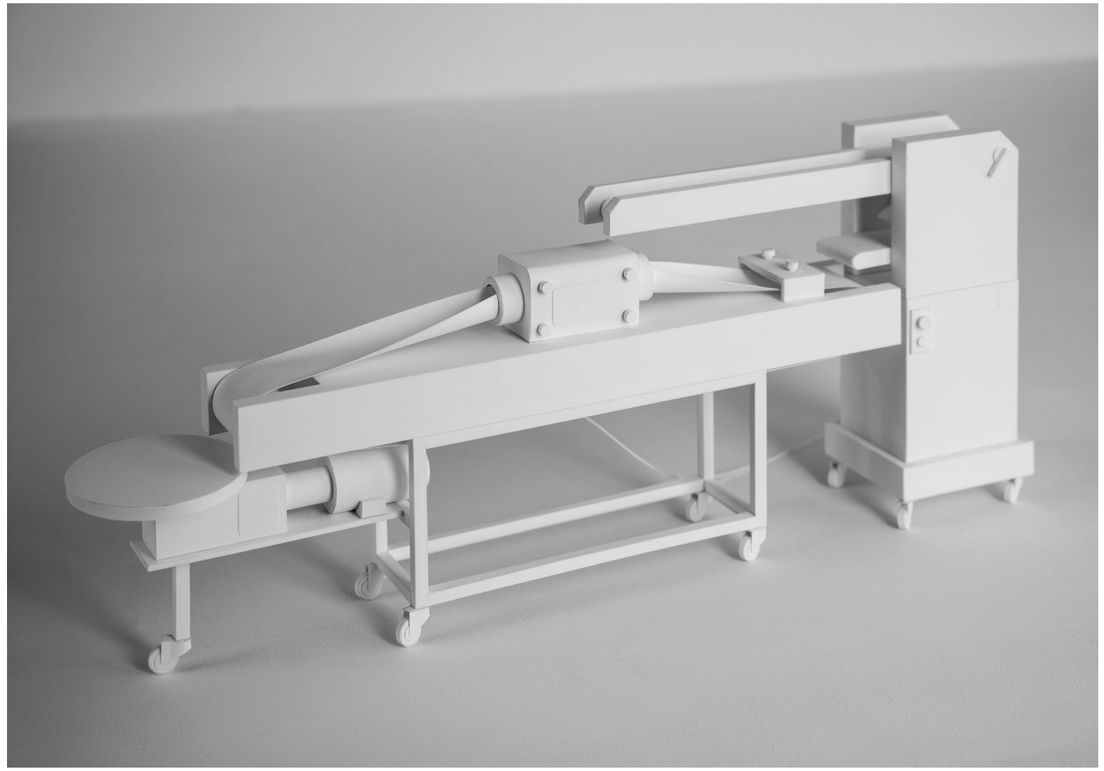
박지나 *Park Jina*

학력
홍익대학교 조소 학·석·박사 졸업
캘리포니아 브룩스 인스티튜트 오브 포토그래피

주요전시
2018 받아쓰기, 최정아갤러리, 서울
2018 Stripe-City-Strife, 예술지구_P, 부산
2018 Seize+1,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7 부록 낱장의 형태,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서울
2017 경기아트 프리즘,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7 문화본일률, 솔거미술관, 경주
2017 Collect_Aseemble, 예술지구_P, 부산
2016 발끝과 목소리, 최정아갤러리, 서울
2016 Labor. Art, Husslehof, 프랑크푸르트
2016 예술쇼핑센터, 서울혁신파크, 서울
2015 Dutch Design Week 2015, NRE Terrein, 아인트호벤
2015 015 Summer, 도시와 이미지,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5 Tuning of space, 유중아트센터, 서울
2014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 스페이스22, 서울

작품소장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연락처
mirssky@gmail.com



무제, 2017, C-print, 42×59.4cm



대안공간 문, 2018, C-print, 42×59.4cm

백승현 *Baek Seung Hyun*

학력
카셀미술대학 조형예술 마이스터과정

주요전시
2017 모든 것은 결론이다, 3rd Place, 서울
2015 거듭된 실패, 갤러리 그리다, 서울
2011 Galerie coucou, 카셀

수상
2014 금호미술관 영아티스트

레지던시
2015–2016 금호창작스튜디오
2011 쿡스하펜 숄로스가르텐 예술가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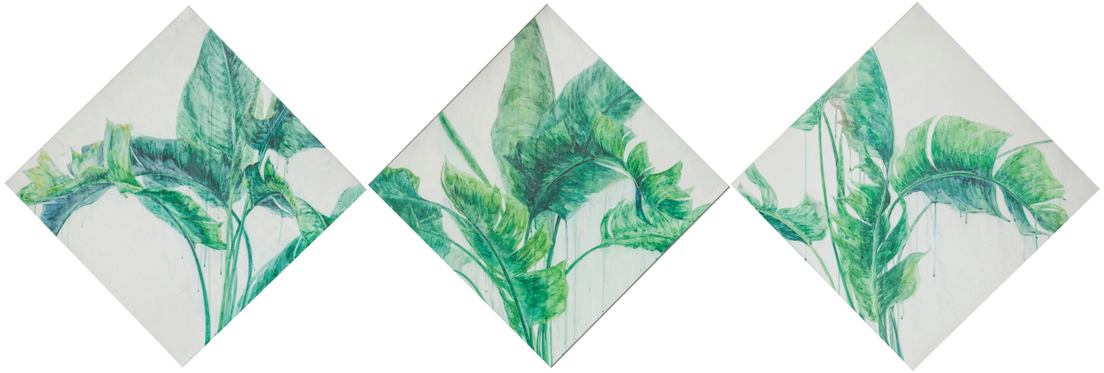
연락처
come100home@naver.com

예병현 *Ye Pyung Hyung*

학력
동아대학교 의상섬유
서울예술대학 사진
한성대학교 사진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3 예술가를 위한 “00”은 없다, 대안공간이포, 서울
2013 브뤼켄, 대안공간 씽크투두, 서울
2012 54-41 munrae;space, 갤러리 솜씨, 서울
2012 커먼 그라운드, 대안공간 문, 서울
2011 54-41 munrae, 갤러리A&D, 서울
2011 침투의 기술, 아트스페이스 꿀풀, 서울
2011 전회(轉回), 갤러리 아트 사간, 서울
2010 문래 아트아카이브, 영등포 아트홀, 서울
2010 54-41 munrae;artist, 프로젝트 갤러리 그날, 서울
2009 한일 교류전 신주쿠-문래동, 공용공간 날, 서울
2009 한일 교류전 신주쿠-문래동, 고르덴가이 nagne 갤러리, 도쿄

연락처
kkiahaa@hanmail.net



시간의 문, 2018, 리넨에 분채, 100×100/each

조은령 *Cho Een Young*

학력
서울대학교 동양화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시간의 문, The 3rd Place/ 정다방 프로젝트, 서울
2018 인천여성비엔날레, 인천
2017 Echoes_대나무 숲으로 그리고 대나무 숲으로부터, 불일미술관, 서울
2016 미궁_자존적인 정체성 혹은 배타적인 경계, 갤러리 도스, 서울
2014 음풍농월 사군자 풍류에 빠지다,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이천
2013 한국화 힐링을 만나다, 리서울갤러리, 서울
2010 書架에서 기억의 그림자를 만나다, 스페이스모빈, 서울
2008 내 마음의 은유, 아트앤컴퍼니, 서울
2008 현실의 틈, 기억의 흔적, GS타워 더 스트릿 갤러리, 서울

수상
1992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
1991 우수상, MBC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연락처
chao0716@naver.com



안개의 덩어리, 2017, 종이 위에 목탄, 29.7×21cm

최영 *Choi Young*

학력
대구대학교 회화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 석사졸업
국민대학교 미술 박사졸업

주요전시
2018 자연을 위한 풍경은 없다, 아트클럽삼덕, 대구
2017 안 개, 사이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5 안구조작의 기술, 영은미술관, 경기광주
2014 두 눈으로 본 그림, 아트팩토리, 서울
2013 두 눈으로 본 그림, 윤디자인연구소, 서울
2012 두 눈으로 본 그림, 이랜드문화재단, 서울
2012 Stereoscopic, 공평아트센터, 서울
2010 망막에 비친 그림, 사이아트 스페이스, 서울
2009 불러다 준 그림, 구올담갤러리, 인천
2009 Mind content, 소헌컨템포러리, 대구

레지던시
2015–2016 인천아트플랫폼 6기
2014–2015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2014 National Gallery of Indonesia Artist Residence Program
2014 인천아트플랫폼 5기
2013 일현미술관 Rising School Young Artist
2009 l'espace des arts sans frontieres (파리)

연락처
cento178@naver.com



균형2, 2018, 종이 위 먹, 77×102cm



Synthetic_house, 2017, 도자조형, 30×30×35cm

최은혜 *Choi Eun Hyea*

학력
서울대학교 동양화·고고미술사
서울대학교 동양화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7 미지림_알 수 없는 숲, 갤러리 도스, 서울
2017 무진기행_Journey to a Fluid Island, 금호미술관, 서울
2014 자작나무 갤러리 3인 특별전, 갤러리 자작나무, 서울
2013–2014 한국화회,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13 Luminous, 중아갤러리, 서울
2013 Between Mu and Mu, 츄와갤러리, 도쿄
2012 Luminous,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12 그림으로 만나다, space 50, 서울
2012 한울회,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12 BLUE STAR, 올림푸스홀 Gallery Pen, 서울

레지던시
2015–2016 경기창작센터

작품소장
분당서울대병원

연락처
eunue.e@gmail.com

허정은 *Heo Jung Eun*

학력
홍익대학교 도예 학·석사 졸업

주요전시
2018 URNEN: 골호, EKWC, 네덜란드 오이스터베이크
2018 호호-이성교제, 흙의시나위, 여주생활도자관, 여주
2018 24인의 현대도예전, 돈의문 박물관마을 G4전시실, 서울
2018 파엔자 도자페스티벌-Argilla, 파엔자
2018 KWCA-FAENZA, Palazzo Muky gallery, 파엔자
2018 Blue cube, 반달미술관, 여주
2018 여성, 감성으로 흙을 빚다, 갤러리 민, 서울
2017 함께하는 봄맞이, 갤러리KWCA, 서울
2013 세라믹 루키_Ideality:수집된 이미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큐빅 갤러리, 김해
2012 By Unite, 우모하갤러리, 수원
2010 Phantasmal, 갤러리 아트가, 서울
2009 Lap over, 부천시청 아트센터, 부천
2008 집, 흔적 그리고 공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작품소장
지우리팡미술관(베이징), 마로니에갤러리(교토)

연락처
huegiant@hanmail.net

2018.8.11.—8.15.
양양 하조대 서피비치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해안길 119

파트론 비치 아트페어



아트앤
website patron.center
facebook /fungryu73
instagram @patron.center





파트론 비치 아트페어: 해변에서 여는 아트페어

최형순(미술평론가)

멀지 않은 곳에 맑은 바다가 있다.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으로 이어지는 아름답고 높은 산들과 함께 유리알처럼 맑은 동해가 이처럼 가깝다는 것은 확실히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같은 것이다. 어떤 열대의 바다에 못지않은 천혜의 자연이 펼쳐지고 있는 강원도 동해 한가운데가 양양 즈음이 될 것이다.

그 강원도가 뽑은 여름 여행지 1위로 양양 하조대에 위치한 '서피비치 Surfyy Beach'가 선정됐다 한다. 강원도는 지난 8월 16-19일 페이스북 팔로워를 대상으로 '내 마음속 1위! 내가 선택한 강원도 여름 여행지는?'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1위 양양 서피비치, 2위 삼척 장호항, 3위 영월 패러글라이딩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양양 서피비치는 1km 구간에 걸쳐 펼쳐진 서핑전용 해변이다. 이에 앞서 이미 강원도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2018 하계휴가 국내여행 선호지'로 1위(32.1%)를 차지했던 바 있다. 양양은 그러니까 최고의 휴가지 중에서도 1위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곳에서 열린 아트페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서 이곳보다 더 좋을 곳은 없을 것이다.

파트론 비치 아트페어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휴양형 아트페어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물론 마이애미 아트페어처럼 국제적인 규모로 각국의 전문가·화랑·작가가 총망라되어 성황을 이루는 행사로서의 아트페어는 잘못 설정된 비전일 수밖에 없다. 아트페어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관람객이 아니라 대중을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가들의 이름으로 어필하는 대규모 작품전으로 기획할 일도 아니다. 작품 구성에서는 페인팅과 드로잉, 판화 등 순수미술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실용성이 높은 공예·디자인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미술을 즐기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름 해변이라는 특징, 본격적인 아트페어 방문객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점, 재미있고 쉬운 것이어야 한다는 걸 인식한 기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름의 해변이지만, 미술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할지에 대한 기획자의 인식도 보여주고 있다. '장소'라는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 행사가 열리는 동안 온라인에서도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사람이 모이는 곳과 미술장터의 적합성은 여전히 문제일 수 있다는 이해를 보여주는 점이다. 북적대는 해변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서핑에 필요한 물품이나 식품,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문화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트론 비치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나 팀 중에서 판화가 특히 많은 것을 포함해 가구, 홈 데코, 섬유, 조명, 도자기, 디지털 미디어 작품들이 많은 것도 눈에 띄는 구성이다. 출품 판화가들이 진행하는 실크스크린 체험 프로그램도 미술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기획의 연장선에 있다.

전시공간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성과 규모에 아쉬움을 가질 일이 아님도 물론이다. 오히려 복합공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강점이다.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팔고 휴식 기구가 놓여있어 끊임없이 구매객이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미술작품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면 그런 방문자들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화이트큐브와 같은 전시공간의 색채를 뺀 공간 구성도 현장의 분위기에 맞추고 있다. 규모가 큰 작품으로 시선을 끄는 것도 아니라 소품 위주로 작품의 세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다. 당연히 작품도 여러 줄로 걸어 더 많은 선택의 폭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미술장터의 콘셉트에 닿아 있는 것이겠다.

예술의 대중화와 새로운 미술시장 개척이라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측면의 성공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아쉬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미술시장이 예술경영 측면의 성과를 내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다. 좋은 전시를 위한 행사라면 작품의 예술성 또는 학술적 평가가치나 관람객의 만족도로 일반적인 목표를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경영이 목표라면 다른 문제가 된다. '이 전시가 작품의 내용에서 얼마나 잘 기획된 것인가'가 실제적인 평가기준이 되기 어려운 다른 목표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판매 성과의 종속개념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운영비를 들여 그곳까지 간 것의 성과, 즉 5일 동안 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이익을 낼 수 있을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현실의 벽이다. 지원이 없는 사업이라면 누가 돈을 투자하고 작품을 이곳까지 가지고 나올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 계획적인 예술경영 지원이라면 당연히 지원금이 시드머니가 되도록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행사의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미술장터 운영은 오프라인 전시기간과 맞출 것이 아니라 더 여유를 두고 운영되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오프라인 전시공간 운영이 현장 홍보기간을 거쳐 수익을 내기까지 여유롭지 않은 형편을 생각하면 말이다.

여름 해변, 그것도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동해 해변의 여름이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유난한 무더위가 끊임없던 한여름의 한가운데, 서피비치에서 열린 파트론 비치 아트페어였다. 이국적 풍광에 젊음과 휴양과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낭만의 장소였다. 뜨거움이 절정인 그곳에서는 발을 딛기도 어려운 모래톱을 지나 바닷가에 서기만 해도 극적인 시원함이 느껴졌다. 그속에서 이루어진 예술이었다. 미술이 예술적으로 바닷가를 일신해 놓겠다는 야심이 아님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녹아들 수 있는 예술이고자 했다. 다양함 속에 품격이 더해져 풍성한 해변이 되리라는 기대였다. 그리고 그 결과, 그곳 여름 해변이 더욱 멋있어졌다.

기획: 콘셉트에 가장 적절한 기획

운영: 화이트큐브를 떠난 것이 탁월

홍보: 온오프 양수겸장

최형순은 미술이론과 미학을 전공하고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현대미술을 위한 변명』(해토, 2003), 『박수근 미술관 우리미술』(해토, 2007), 『이 그림 정말 잘 그린 걸까?』(고즈윈, 2011) 등이 있다.



Chocolate Mass L, 2014, Walnut, 31x31×65cm



Structure L 18-13, 2018, Digital print, 50×50cm

고영규 *Ko Young Kyu*

학력
인하대학교 미술교육
인하대학교 회화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7 Slow furniture 나무에 기대다,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6 공예 트렌드 페어 'Slow furniture–사방림', 코엑스, 서울
2015 Slow furniture 나무, 빛나다,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5 쉼, 흙길 걷다,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2015 쉼, 흙길 걷다 II ,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2014 가내구원 일상의 치유소,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3 여행을 가다, KCDF갤러리, 서울
2013 선물(膳物:選物), KCDF갤러리, 서울
2012 소반,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힐링 퍼니처, KCDF갤러리, 서울
2012 서랍 展, KCDF갤러리/관훈갤러리, 서울
2011 Slow furniture, KCDF갤러리/관훈갤러리, 서울
2011 도시농부의 하루, KCDF갤러리, 서울
2009 EDGE 104展, 성남아트센타, 성남
2008 목가구 디자이너 3인전, 호 갤러리, 서울
2006 TRES-사랑채의 재해석, 래미안갤러리, 서울
2005 춤-꽃이 피다, 가람아트센타, 서울
2001 천상대전(天上大戰), 관훈갤러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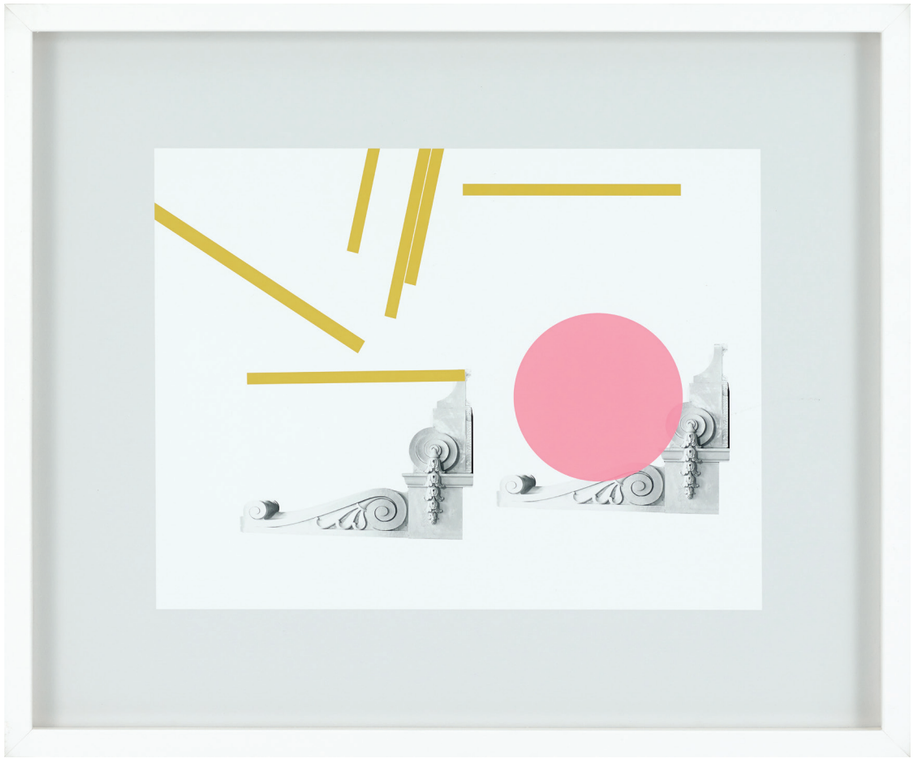
연락처
www.arkraft.co.kr
leoko72@naver.com

김산 *Kim San*

학력
중앙대 사진

주요전시
2018 한일 크리에이터 교류 프로젝트 전, 인영갤러리, 서울
2018 Affordable Art Fair, 브뤼셀
2017 BUY ART, Gallery Art&Space312, 서울
2016 비평가의 시선을 사로잡은 작가전, 최정아갤러리, 서울
2014 Perspective, 류가헌갤러리, 서울

연락처
kstudio2055@naver.com



거룩한 채로 머물기, 2016, Pigment printing, 52.5×62.5cm



Modern People–City Tour, 2012, Wood-Cut, 40×56cm

서유정 *Seo U Jeong*

학력
홍익대학교 판화 학·석사 졸업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회화 석사졸업
홍익대학교 회화 박사졸업

주요전시
2018 미망과 현혹, 한새뮤지엄, 부산
2018 감각하는 사유–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H갤러리, 부산
2017 정의도감–상실과 획득, 양림미술관, 광주
2017 정의도감, 파비욘드갤러리, 서울
2016 객관의 의도, 갤러리 너트, 서울
2015 오류의 창,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강릉시립미술관, 강릉
2013 망각의 자유, 갤러리 예담컨템포러리, 서울
2012 아트서울전–Living in Oblivion, 예술의 전당, 서울
2011 Incomplete Garden, 강릉미술관, 강릉
2010 Double Monstrous,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7 화인아트쇼 '한국미술 현장과 검증', 예술의 전당, 서울
2007 Liquid States, 갤러리 아이, 서울
2006 The Formless has Form, 금호미술관, 서울
2005 The Sound of Color, FGS Gallery, 뉴저지/ Open Center, 뉴욕
2004 Trace of Gesture, Pratt Steubern Gallery, 뉴욕

수상
2010 대상, 신 미술대상, 서울미술관
2004 우수상, Manhattan Arts국제공모전
1997 우수상, 한국현대판화가협회공모전

연락처
seoujeong@gmail.com

신상우 *Shin Sang Woo*

학력
홍익대학교 판화 학·석·박사 졸업
뉴욕주립대 판화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제26회 초대 개인전, 청풍갤러리, 강릉
2017 제25회 초대 개인전, United Gallery, 서울
2016 제24회 초대 개인전, Able Fine Art NY Gallery, 서울
2015 제21회 초대 개인전, Zeinxeno Gallery, 서울
2014 제19회 초대 개인전, Art Bean Gallery, 서울

수상
2006 문화관광부장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비구상부분
2005 우수상, 무등미술대전

작품소장
경남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사카마미술관(일본), 서울시립미술관, 외교통상부

연락처
dondonkr@hanmail.net



Paper Bag of Thought 1Blue, 2018, Oil on canvas, 22.7×15.8cm

신혜선 *Shin Hye Sun*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도예
홍익대학교 회화 석사졸업
홍익대학교 회화 박사재학

주요전시
2018 The Paper Bag of Thought -순간을 takeout하다,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2018 현대미술작가회 기획초대전, 세미원갤러리, 양평
2017 한국-벨기에 교류전, 아트스페이스312, 서울
2016 순간을 takeout하다, 갤러리 이즈, 서울
2016 뚝섬 Pop Art 페스티벌, 나루아트센터, 서울
2016 COAF 오렌지 아트페스타 '그림 있는 여름', 웰리힐리, 횡성
2015 그림 있는 여름, 웰리힐리, 횡성

수상
2016 최우수상, 예술 해커톤: 로봇과 드론

연락처
artshin7@naver.com



Relationship–composition, 2015, Silkscreen, 38×32cm

신혜영 *Shin Hye young*

학력
홍익대학교 판화 석사졸업
홍익대학교 판화 박사수료

주요전시
2018 Way together, 세미원 연꽃박물관, 양평
2017 여미갤러리 초대전, 여미갤러리, 서산
2017 일상속의 이야기들, 아트스페이스312, 서울
2017 BUY ART, 아트스페이스312, 서울
2017 은행나무 정기전, 한전아트센터, 서울
2016 청풍갤러리 초대전, 청풍갤러리, 광주
2016 갤러리 MANA 초대전, MANA갤러리, 서울
2016 Seoul Modern Art Show, 예술의 전당, 서울
2016 한.판 신명나게, 291갤러리, 서울
2015 신진작가 초대전, 갤러리 이즈, 서울
2015 SUMMER, 도시와 이미지,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5 판화경, 진천군립 생거 판화미술관, 진천
2014 두 자매의 가방, 409갤러리, 용인
2014 은행나무,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수상
2016 최우수상, 예술 해커톤: 로봇과 드론
2013 입선, 대한민국 미술대전
2013 특선, 서울미술대전
2012 입선, 유나이티드 갤러리 아트페스티벌

연락처
agasia00@naver.com



별밤을 지나며, 2013, Monotype, Drypoint, 캔버스에 배접, 27.3×22cm

이서미 *Lee Seo Mi*

학력
홍익대학교 판화 학·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판화 박사수료

주요전시
2016 국제판화비엔날레, 리마, 페루
2015 Print: Unity in Diversity,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2014 오마주 현대미술 41인전, 박수근미술관, 양구
2014 What is Print?–Beyond the Border, 이치하라 레이크사이드미술관, 이치하라
2014 Print Making, 63스카이아트미술관, 서울
2013 Art Link Project,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2 Work on Joyfulness, Shin Hwa Gallery, 홍콩
2012 현대미술사용설명서,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2 맛있는 미술 Art& Cook,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0 Tool, tool, tool,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0 HOT PLATE, Phoenix Brighton Gallery, 브링턴
2010 Crossing Over, Making Contact, Northwest Reno Library, 리노

연락처
seomi@yahoo.com



한 그루, 2017, Oil on Canvas, 38×45.5cm

이우현 *Lee Woo Hyun*

학력
용인대학교 서양화
한성대학교 복합매체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5 고양미술장터, 고양꽃전시관, 고양
2015 신진정예작가 15人전, EW갤러리, 서울
2015 Breack Exhibition, 키다리갤러리, 대구
2015 모락모락, 갤러리 일호, 서울
2015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미술관, 파주
2014 아크바겐, 갤러리 토스트, 서울
2014 Be Ok!, K아트스페이스, 서울
2014 개관전, 서진아트스페이스, 서울
2014 그림을 겁시다–Let's Hang Whatever You Can Carry,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4 젊은 예술을 사다, 충무아트홀, 서울
2013 사심없는 그림, 문화역서울284,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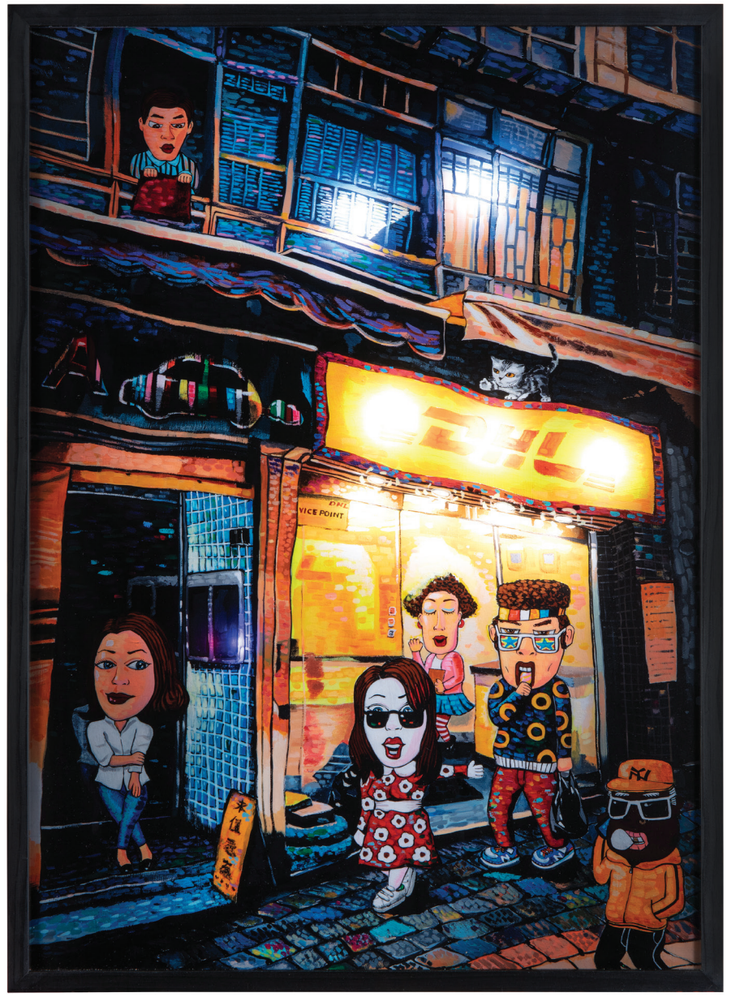
수상
2015 특선, 대한민국 평화예술대전
2010 특선, 국제창작미술대전
2010 미술과비평 선정작가상, 대한민국 선정작가 공모

작품소장
미플러스치과N갤러리, 아트플랫폼, 학아재뮤지엄,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

연락처
lwh295.wixsite.com/lwh29
lwh29@naver.com



전망 좋은, 2018, Acrylic on Canvas, 53×45.5cm



Signboard, 2018, Painting, Led, 85×65cm

임상희 *Lim Sang hee*

학력
세종대학교 회화
홍익대학교 회화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Share House, 토스트갤러리, 서울
2017 익숙하지만 낯선, 가이아갤러리, 서울
2017 Home Scape, 아트스페이스H, 서울
2017 달빛을 탐하다, 갤러리 탐, 서울
2017 My pet, 프린트베이커리, 스타필드, 고양
2018 한일 크리에이터 교류 프로젝트 2기, 인영갤러리, 서울
2018 우리 함께하개, 비디갤러리, 서울
2018 50-50 선물전, 1326갤러리, 창원창동예술촌

연락처
www.limsanghee.com
likehy@naver.com

정도영 *Jung Do Young*

학력
울산대학교 서양화

주요전시
2016 다세대주택, 갤러리 AG, 서울
2014 한국미술경영연구소 7주년 기념전-행복의 발견, 갤러리그림손, 서울
2011 신진작가 초대전, 갤러리 전, 대구
2008 Sweet & Fat, A&D갤러리, 울산

수상
2011 SOAF Young Generation Artist 10 선정

작품소장
경남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사카마미술관(일본), 서울시립미술관, 외교통상부

연락처
instagram.com/art_koong_
changeeee@naver.com



Beetle, 2016, Silkscreen & Acrylic Colour, 32×41cm



Love V (Ed.1–5)* 시리즈 *movement 01, 2018, 플라스틱 위에 아크릴, 55×50cm

정명국 *Jung Myoung Guk*

학력
세종대학교 회화
성신여자대학교 판화 석사졸업

주요전시
2018 변신, 갤러리JAC, 서울
2018 판화하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8 감각의 확장,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7 갤러리 파란 초대전, 부산
2015 TAKE ME, 세움갤러리, 서울
2015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2012 결합된 시선, 스페이스 몸, 청주

레지던시
2014 하슬라아트월드 국제레지던시

연락처
sokumj@naver.com

함영훈 *Haam Young Hoon*

학력
홍익대학교 광고디자인

주요전시
2017 알수도 있는 사람, 서울 창의인성센터, 서울
2017 256개의 점에서 시작된 감정의 기호, 레스빠스71, 서울
2017 한강 예술 공원, 한강여의도공원, 서울
2016 픽토그램 플러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5 서명과 기호, 탐앤탐스갤러리, 서울
2015 썸러브, 신세계갤러리, 서울
2014 감정의 상징화, 갤러리 팔레드, 서울
2014 얼굴풍경, 호림아트센터, 서울
2013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2 미디어 아트 영 플레이어스 나우,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서울
2011 만화, 캐릭터 미술과 만나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9 감정의 순간, 빛 갤러리, 서울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삼성SDS,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KT

연락처
www.haamyounghoon.com
haamyounghun@naver.com

2018 작가미술장터를 마치며

윤율리(아카이브 봄 디렉터)

벌써 세 번째 결과비평집이다. 한 번은 기획자로 세 번은 비평가이자 편집자로 이 사업과 함께했다. 기획자로서 보면 나도 이 사업도 운이 좋았다. 우리는 적절한 순간 잘 만나 나쁘지 않게 헤어질 수 있었다. 정책의 결과로 만들어진 여러 새로운 풍경들, 그로부터 추동된 어떤 활기들을 돌이킬 때, 여기엔 많은 이들의 노력에 더해 약간의 행운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비평가로서 보면 그렇기에 이 사업은 늘 문제적이었다. 한국미술계의 시급한 현안이랄 만한 이슈들이 작가미술장터의 현장에서 쉼없이 터져나왔다. 그렇게 몇 해를 보냈다.

조금 더 건조한 기록들을 살펴보자. 가파르게 50–60%씩 팽창을 거듭하던 사업의 각종 지표는 올해 처음 보합세에 접어들었다. 참여작가, 방문자, 출품작, 매출 같은 부문을 통틀어 이 지표들은 소폭 증가하거나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작품 거래량이 전년 대비 9배 증가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이것은 꽤 크게 체감되는 변화다. 이 사실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 기획이나 정책에도 성장의 리듬이 있다면 작가미술장터가 양적인 확장 단계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인 것은 아닐까? 다른 말로 이제 이 정책이 어떤 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할 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몇 가지 변곡점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비수도권 쿼터의 시행이다. 작년까지 '단체'(기획주체)와 '공간'(공간 제공자)으로 나뉘던 공모 유형은 2018년 사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변경되었다. 비수도권에서 작가미술장터가 진행되는 경우 지원액도 상대적으로 컸다(각각 최대 5,000만 원, 최대 6,000만 원). 만약 프로젝트가 서울과 지방에서 번갈아 열린다면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서울-부산을 오가던 그림도시를 비롯해 예술하라, 하오옥션, 집기류 등이 이처럼 여러 지역을 로케이션 삼아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이것은 포화상태의 기존 수도권 장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아예 부산으로 자리를 옮긴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 같은 기조는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최상위의 목적, "미술문화 향유 및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이라는 당위와 맞닿는다.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역간의 문화적 격차는 상당하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비수도권 쿼터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올해 사업에서 유독 참여작가 및 출품작들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되었음은 눈여겨 볼 만하다.

> "어떤 작품이 잘 팔린다고 하는 정답 같은 것이 있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작품의 질, 성실한 공정, 완벽한 마무리, 완성도 높은 지점, 그리고 흥미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기존의 관습적인 것들과는 조금은 다른 (…) 것들을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박영택:79)

> "젊은 작가의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작품의 수준(완성도, 표현력, 내용 등)에서는 작가간 편차가 컸다. (…) 출품작 선정에서부터 판매 방향, 전시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한층 구체적이고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다."(변종필:151)

> "서울의 작가미술장터가 다양한 예술가들이 연계해 다양한 공간에서 주제·기획을 가지고 진화해 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 (비수도권 일부 장터는: 편집자 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술가들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했다. (…) 미술을 매개하는 방식, 또 매개행위가 판매로 이어지는 유통의 순환구조를 진단하는 통찰력있는 기획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백기영:117)

백기영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간 작가미술장터의 핵심은 '아트페어'라는 형식 속에 "판매행위와 매개행위가 동시에 존재"함을 간파하고, 이를 "하나의 퍼포먼스와 같은 과정극으로 설계"하는 기획적 역량에 있었다. 참여작가들은 "판매자인 동시에 전체 미술장터의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로서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전시'와 '페어'를 자유롭게 플레이했다.(백기영:115)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누적된 작가미술장터의 강점은 사업에 진입하는 신규 단체들, 그들의 작가, 관객, 팔로워들에게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홍대 앞 놀이터에도, 삼청동에도, 성수동에도, 적당한 가격대의 아트상품으로 행인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예술장터는 이미 즐비하다. 그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은 아닐 테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고무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작가미술장터를 형식적 전유가 발생하는 플랫폼으로 분명히 설정한 점이다. 즉 작가미술장터는 기존의 아트마켓, 미술시장, 상업 갤러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연동하고 때로는 그들 사이의 접점을 찾아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미적실험의 장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언급을 참조할만 하다.

> "예술가들이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미술시장은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작가, 갤러리(혹은 대안플랫폼), 콜렉터(혹은 관객)가 상호적으로 교류하는 데서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 (…) 이 축제에는 동시대 미술시장에 대한 작가들의 문제의식과 발언을 참여자(콜렉터, 소비자, 관객)와 더불어 교류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다. 궁극적으로 작품을 사고 판매하는 경험을 넘어 서로간 의미 있는 대화로 교류하고 지지하는 문화적 장의 마련과 관계된다."(심소미:169)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번 사업을 앞두고 한국화랑협회가 참여하는 '2017 작가미술장터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한국화랑협회는 미술시장의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이면서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작가미술장터와 몇 가지 갈등이 불거졌던 당사자다. 사비나미술관 관장 이명옥이 쓴 퍼폼 비평은 그런 측면에서 꽤 의미있게 읽힌다. 같은 연장에서 2018 작가예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공모요강은 다양한 업계 관계자(미술관, 화랑 등)들과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도록 제작을 기획의 필수요소로 지정하고, 일반에 생소한 장르를 연구하고 소개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이상적인 도달점을 공식화했다. 물론 본문 중의 지적처럼 인센티브에 관한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사업의 크기를 키우는 데 치우친 허수가 되지 않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정무정:261)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시장 실태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규모는 약 3,96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아트페어를 통해서 거래된 작품은 736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국의 국공립미술관 57곳과 미술은행이 총 201억 원어치의 작품을 사들였다.(백기영:133) 사실상 공공영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 미술시장이랄 만한 것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은 느리게 먼 길을 가야한다. 많은 행정가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의 세 번째 역할, 편집자로서의 제언을 적으며 마친다. 벌써 몇 년째 작가미술장터를 지켜보며 (열악한 지원에도) 기꺼이 원고를 수록해 주시는 비평가 분들이 계시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며 감사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작가미술장터의 난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해야 할 분들이 아닐까.

2018년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직거래 미술장터를 개설하여 미술시장 진입이 어려운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개척 지원(판매수익금 전액 해당 작가에게 지급)
- 중저가 미술품 장터로 국민의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 유도
- 기존 페어와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아트상품, 퍼포먼스, 영상 등)으로 대안마켓을 찾는 작가, 미술애호가 및 미술계 인사들의 네트워크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사 업 명: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사업기간: 2018년 3월–2019년 2월
- 지원규모: 6.3억원

공모요강

- 신청자격: 본 지원 사업 취지에 적합한 미술장터 행사를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획자
- 지원대상: 민간단체(자)가 주관하여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규모 미술장터
- 지원유형 및 규모

공모유형	지원규모	
수도권 장터	6개소 내외	50백만원 ~ 25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비수도권 장터	10개소 내외	60백만원 ~ 3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 과거 유사사업의 성과, 지원신청 사업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심의 후 차등지원

지원내용

- 미술장터 및 부대행사 기획·개설·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올해의 우수장터 선정 시 차기년도 비수도권에서 장터 개설할 경우 연속지원
- 장터별 대표작품은 센터 이름으로 미술은행 작품구입 대상 추천
- 미술품 유통, 세무 등 강의 제공
- 언론·온라인 홍보 지원

2018년 주요성과

-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장터 지원을 통한 아트 플랫폼 활성화
- 비수도권 장터 개설 확대로 지역미술 활성화
- 참여작가 1,189명, 관람객 76,070명, 작품판매(에디션, 아트상품 포함) 18,136점

작가색인

강경연 280
강동호 82
강미미 262
강민하 226
강병섭 154
강선호 118
고마음 83
고아라 28
고영규 298
고정원 208
고진이 172
구한나 209
권민우 100
권소영 29
김계완 155
김도희 173
김만순 174
김명우 84
김민주초원 136
김보용 244
김산 299
김선우 175
김승택 85
김연수 30
김영준 190
김영태 86
김용현 31
김우진 281
김유정 10
김이박 32
김인혜 176
김정현 282
김주호 11
김지선 177
김지영 263
김지예 137
김진수 191
김창영 138
김채린 33
김춘재 283
김치준 264
김판묵 156
김현묵 210
김현지 34
김형주 158
김효은 227
나혜령 284
남경숙 212
노동식 12
노보듀스 192
노여운 119
도파민최 194
동백화 245
드로잉메리 196
류금상 87
류한길 246
마우즈 197
문호 13
뮲 247
박설 120
박세희 265
박솔지 64
박수만 266
박수형 228
박안식 35
박영진 36
박영호 214
박일구 267
박장호 37
박정용 139
박정일 88
박지나 285
박지수 101
박지은 121
박진희 215
박천욱 140
박하늬 229
박현지 122
방용환 248
백상옥 89
백승현 286
봄로야 178
비콘 268
빅터조 159
서기원 198
서다민 123
서세원 124
서완호 269
서유정 300
선무 14
설동주 199
성립 200
성유삼 141
손기환 15
손연우 90
손원영 162
손희민 102
송미리내 142
송민정 249
숌부르크사슴과 두루미와 날치 250
신상우 301
신소라 103
신재은 16
신혜선 302
신혜영 303
안상훈 179
안세현 65
안소현 125
안소희 66
안희정 270
양나희 91
엄기준 92
엄아롱 38
영케이 160
예병현 287
오버레이프랍스 251
오세경 67
오태풍 271
위영일 17
유예림 126
유지원 252
육효진 143
윤남웅 272
윤순영 216
윤율리 253
이랑 254
이민경 104
이빛나 105
이샛별 18
이서미 304
이세린 106
이승환 217
이아람 127
이어니 68
이예리 230
이우현 305
이정배 144
이정선 234
이정형 145
이종갑 163
이지훈 232
이채(이채현) 69
이채영 146
이태수 180
이태수 107
임상희 306
임정서 108
장연수 164
정다운 273
정다희 201
정도영 307
정명국 308
정보은 128
정상수 109
정아롱 19
정은주 218
정진경 181
조기섭 70
조남홍 71
조민 219
조은령 288
조정은 235
조종성 147
조주희 129
조현익 20
지희장 236
최미남 165
최영 289
최요안 93
최윤정 21
최은혜 290
최지이 72
텐거 110
편대식 182
표영은 111
함영훈 309
해요(이행석) 74
허정은 291
홍시야 75
홍원표 237
홍정우 183
황호빈 39
69퍼포먼스클럽 255

* 작가명 가나다순 정렬

2018 작가미술장터 도록·비평집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 및 운영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이수령 팀장
오재숙 주임
정혜원 주임
김성혜 코디네이터

편집
윤율리

디자인
양민영

인쇄
청산인쇄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인
김도일

발행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03082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57(연건동) 3층, 12층
T. 02-2098-2927/2931
F. 02-2098-2934
www.gokams.or.kr

ISBN
978-89-98604-61-5

본 책자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 복사, 판매를 금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술경영지원센터 VAM VISUAL ARTISTS MARKET 작가미술장터

문화체육관광부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술경영지원센터

VISUAL ARTISTS MARKET
작가미술장터

